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A Study of God's Care for
the Nuclear Feelings of Cain**

September 5, 2010

Ok Soon Lim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A Study of God's Care for
the Nuclear Feelings of Cain**

-가인의 상처 입은 핵심감정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치유에 관한 연구-

**A Dissertation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Christian Counseling**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September 5, 2010

Ok Soon Lim

임옥순의 박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Accepted:

Dissertation Mentor

Dr. Yang Taik Lim D. Min. Ph. D. Cand.

Dissertation Committee Chairperson

Dr. Henderson Belk Ph. D.

Second Reader

Dr. Paul Kim Ph. D.

Third Reader

Dr.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September 5, 2010

감사의 글

상담이라는 학문에 눈을 돌린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목회자의

아내로 살면서 지쳤던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을 다루고 싶어 상담이란 학문에 마음을 기대어 보았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끌리고 예술과는 거리가 먼 내 자신인데 “상담은 예술이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며 나도 모르게 결심하였다. ‘나라는 존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 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과 배운 모든 지식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깊이 뿌리박힌 나의 무의식까지 끌어 모아 상담이라는 학문에 투자하고 싶다고....그래서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나를 보고 싶다고...’ ‘용과 성서’ 라는 책을 통해서 만난 심리학자 칼 융은 내게 더 강한 자극을 주었다. 그 분이 사용한 자기실현과 개성화라는 용어에 매료되어 그 때 얻은 에너지가 이 논문 작성을 마무리 하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학문에 전념하도록 만들었다. 또 하나의 행운은 상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패밀리 터치에서 상담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자 자신감을 더 갖게 되었다. 훈련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해가면서 순간순간 당황하기도 하고, 부끄러워 숨고 싶은 수치심을 느끼면서 화들짝 놀라는 내 모습과 자주 만나곤 하지만, 이제 나는 나의 존재를 기뻐하고 사랑한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논문이지만 누구보다도 이 소박한 꿈을 마음속에 담고 약한 내 몸을 추스르며 서서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배우고 훈련 받도록 나의 길을 활짝 열어 준 남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민 목회를 해오면서 한 생명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기 위해 이민 목회상담이라는 학문과 실천의 길을 가는 남편의 의지와 꿈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쓰러질 뻔 했던 상황을 잘도 견디어 내면서 우직하게 학생들을 이끌어 가는 모습에 그저 감동 받을 뿐이다. 아직도 머나먼 길이지만 한 생명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장 하는데 돕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 논문을 지도해 주시고 학문의 눈을 뜨게 해준 남편과 심리 역동 상담의 정수 핵심감정이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상담의 현장에서 내담자를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김 경실 교수님과 상담대학원 교수님들, 같이 공부한 학우들과 지금도 상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패밀리터치 스텝들과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 해주고 용기를 갖게 해 준 딸 채리와 아들 동하, 멀리 조국에서 기도로 격려하시는 어머니와 공부하는 동안 뵈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 그리고 늘 용기를 주신 성문밖교회 성도들과 한국의 가족들께 이 논문을 바친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당신의 일부인 그 어떤
점을 발견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일부가 아닌 것은 아무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 헤르만 헤세 -

목 차

I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13
2. 연구 방향..... 16
3. 연구 방법과 범위.....17

II 본 론

1. 가인의 형제 살인에 대한 이해
 - 가. 가인의 형제 살인에 대한 전통적 해석19
 - 나.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대한 문화 일류학적인 해석.....22
 - 다. 신화와 핵심감정의 원형으로서 이해.....26
2. 핵심감정 연구
 - 가. 핵심감정의 정의
 - 1) 핵심감정이란(Nuclear Feelings).....28
 - 가) ‘핵심감정’ 이라는 용어의 역사적 배경28
 - 나) 핵심감정(nuclear feelings)의 형성 배경.....29
 - 다) ‘핵심감정(nuclear feelings)’ 의 파악.....31
 - 라) 핵심감정의 진단.....34
 - 나. 핵심감정과 정신역동의 비교 연구
 - 1) 프로이드의 정신역동과 핵심감정.....35
 - 가) 리비도(libido)와 충동.....35
 - 나) 리비도와 에디프스 콤플렉스.....36
 - 다) 리비도, 에디프스 콤플렉스와 핵심감정.....37
 - 2) 칼 융의 콤플렉스(Komplex, Complex)와 핵심감정.....39
 - 가) 콤플렉스의 정의.....39
 - 나) 콤플렉스의 형성41
 - 다) 콤플렉스와 핵심감정과의 관계.....41

3) Leon J. Saul의 아동기 감정양식과 핵심감정	42
가) 아동기 감정양식의 요소들	43
(1) 아동기의 생태적 욕구.....	43
(2) 아동의 타인과의 관계.....	43
(3) 에디프스 콤플렉스 와 형제자매 상황.....	44
(4) 아동에 대한 조건화의 영향.....	44
(5) 정상적 욕구의 왜곡.....	45
(6) 핵심적 양식과 성인기의 경험.....	45
나) 아동기 감정양식의 형성.....	46
다) 아동기 감정양식의 발달과 발견.....	48
(1) 아동기 양식을 발견하는 시기.....	48
(2) 아동기 양식을 발견하는 방식.....	48
라) 아동기 감정양식과 핵심감정과의 관계.....	50
4) 소암 이 동식의 도정신치료와 핵심감정.....	51
가) 도정신치료의 핵심	51
(1) 감정.....	51
(2) 핵심감정과 중심역동	52
(3) 도정신치료에서 자비심.....	53
나) 도정신치료와 서양 정신치료의 유사점과 차이점.....	54
(1) 전이와 핵심감정.....	55
(2) 해석과 직지인심(直指人心)	55
(3) 독립성과 저항.....	56

3. 핵심감정(nuclear feelings)의 종류와 가인에게 나타나는 핵심감정

가. 제사와 가인의 핵심욕구	58
1) 죄책감으로서의 제사.....	59
2) 감사의 제사.....	60
3)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60
나. 핵심감정의 기본 욕구.....	61
1) 독립심과 의존욕구에 나타나는 핵심감정.....	62
가) 일반론.....	62

(1) 수태에서부터 독립에 이르기까지.....	62
(2) 발달과 퇴행.....	63
(가) 아동기 욕구의 지속.....	64
2) 애정욕구(수동적-수용적-의존적)에 나타나는 핵심감정.....	65
가) 일반론	
(1)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원인과 강도.....	65
(2) 좌절감과 다양한 욕구의 형태.....	66
3) 광의적 나르시시즘(자기애)에 나타나는 핵심감정.....	66
가) 일반론.....	66
다. 욕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과 결핍된 인간	
1)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	68
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이해와 결핍.....	69
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	70
2)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계 개방성과 관계적 존재.....	70
가) 쉐러의 인간 이해와 세계 개방성	70
나) 판넨베르크의 인간과 세계 개방성	71
3) 희망 하는 존재로서의 결핍.....	73
가) Ernst Bloch의 유토피아 사상과 결핍.....	74
나) E. Bloch의 希望의 原理: 아직-아님의 存在와 결핍.....	75
다) 인간의 근본 충동으로써의 굶주림.....	76
4) 결핍된 존재로서의 가인.....	77
라. 핵심감정의 종류 가인의 핵심감정	
1) 시기심과 질투.....	80
가) 시기심의 일반 연구.....	80
나) 시기심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	80
다) 대상관계이론에서 본 시기심.....	81
라) 시기심과 질투와의 관계.....	83
마) 성서에 나타난 시기심.....	85
바) 가인의 시기심과 질투.....	86
2) 수치심과 죄책감	87

가) 수치심에 대한 일반 연구.....	89
나) 수치심에 대한 신학적 이해.....	89
(1) 성서에 나타난 수치심.....	89
(2) 죄로서의 수치심 이해.....	91
다) 정신분석학적 입장	
(1) 본능적 욕구 충족에 대한 억제작용으로서의 수치심.....	91
(2) 이상적 자기의 실패로 인한 수치심.....	92
라) 대상관계론에서의 수치심 이해.....	93
마) Erikson의 수치심 이해.....	95
바) 자기 심리학에서 수치심 이해.....	95
(1) 수치심과 자기애.....	95
(2) 수치심이 유발되는 비공감적 환경.....	96
(가) 부모의 엄격한 통제의 양육 방식과 수치심.....	97
(나) 역기능적 가정과 수치심.....	98
(다) 가족 내의 완벽 주의.....	98
(라) 정서적 신체적 학대.....	98
사) 수치심의 역기능적 요소.....	99
(1) 수치심이 주는 거짓 메시지들.....	99
(2) 나는 부족하다. 나를 만든 하나님도 부족하다!.....	100
(3) 다른 것은 나쁜 것이다.....	100
아) 수치심과 투사.....	101
자) 수치심과 우울.....	101
차) 가인의 수치심.....	103
3) 열등감	
가) 프로이트의 열등감 이해.....	105
나) 아들러의 열등감 이해.....	106
다) Erickson의 열등감 이해.....	108
라) 가인의 열등감.....	110
(1) 형제 갈등과 열등감.....	110
(2) 장자 상속권과 가인의 열등감.....	111
4) 적개심과 공격성.....	113

가) 적개심.....	114
(1) 일반론	114
나) 공격성	117
(1) 공격성의 정의 및 유형, 공격성의 원인.....	117
(가) 공격성의 정의 및 유형.....	117
(나) 공격성의 원인.....	118
다) 공격성의 제반 연구.....	118
(1) 정신분석학적 이해	119
(가) 프로이드의 인간의 성격구조론 관점	119
(a) Id(원초아).....	119
(b) Ego(자아).....	120
(c) Super ego(초자아).....	120
(나) 성격의 역동적 이론.....	121
(다) 본능.....	121
(a) 죽음의 본능·공격적 본능(Thanatos).....	121
(b) 삶의 본능·성적본능(Eros).....	121
(라) 정신 에너지.....	122
(2) 클라인(Klein):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공격성....	122
(가)편집-분열적 자리	123
(3) 위니캣(Donald W. Winnicott)의 공격성	125
(4) 하인즈 코헛의 공격성 이해.....	127
라) 공격성에 대한 동물행동학적 이해.....	128
(1) 로렌츠의(Lorenz): 동물의 공격성.....	129
(2) 아이베스펠트(Eibesfeldt): 인간의 공격성	130
마) 가인의 공격성	130
(1) 원형으로서의 가인의 공격성.....	131
(2) 형제 갈등과 공격성.....	131
(3) 사회 학습이론	131
(4)사회정보처리 이론.....	132

4. 핵심감정을 다루시는 하나님/ 상담가

가. 상담가로서 하나님	133
나. 가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135
1) 하나님의 부르심 / 공감적 접근	136
가) 하나님의 공감	137
2) 저항(resistance)과 직면 단계	145
가) 일반 상담과 저항	145
나) 기독교 상담과 저항	148
3) 명료화와 해석단계/직시인심 그리고 수용	149
가) 명료화와 해석	149
나) 수용 단계 수용=회개=위로부터 오는 용서의 능력	151
(1) 일반 상담에서 수용단계	151
(2) 기독교 상담에서 수용 단계/ 회개와 죄용서	153
(가) 죄의 수용	153
(나)수용과 사죄 은총	154
4) 자아 성숙/통찰(insight)과 훈습(working-through)	155
가) 통찰과 훈습	155
나) 기독교 상담에서 통찰과 훈습	158
(1) 통찰	158
(2) 훈습과 성도의 견인	159
5) 영적 성숙 단계/핵심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	161
가) 일반 상담에서의 자아성숙	161
(1) Freud	161
(2) C. G. Jung	162
(3) Leon J. Saul	163
(4) Margaret Mahler	163
(5) 이동식	165
(6) Abraham Maslow	166
나) 기독교 상담의 영적 성숙	167
(1) James Fowler	168
(2) Howard Clinbell의 영적 건강	171
다. 피해자의 아벨의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창4장 25절)	172

1) 피해자와 비존재.....	172
2) 비존재를 존재케 하는 하나님	173
결론.....	176
Abstraction.....	178
참고문헌.....	186

이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정말 모르고 그랬을까 의심도 가지만 인간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간은 의식에 따라 행동하기 보다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그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고통 받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인간은 자신의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무의식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기에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 무의식을 알아 차렸다고 해도 무의식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가인의 동생 살해 행위는 어처구니없을 뿐 아니라 비극적이다. 최초 인류의 아들로 태어난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살해하였는가? 이것은 엄청난 인류 최초의 비극적인 사건인데 가인이 동생을 죽여야 했는지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 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만 드렸는가? 왜 가인은 하나님께서 열납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는가? 안타깝게도 성서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열납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를 열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단서가 될 수 있는 성서 자체의 해석은 신약 성서 히브리서 기자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한 신앙적 해석이 있을 뿐이다. 전통적인 성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그러나 전통적 해석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전통적인 해석에도 더 설명이 필요함을 느낀다. 즉 “믿음으로” 라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어서 그 이상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는 없다. 또한 자신의 제사가 열납되지 않았고, 동생의 제사가 열납 되었다고 동생을 들로 유인하여 살해할 만한 동기가 되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제사의 열납 문제가 동생을 죽일 정도의 분노가 일어날까 질문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성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살해 동기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전통적인 신학에서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원죄를 물려받아 죄를 재생산한 표본으로 이해되는 정도였다. 이러한 원죄론적 해석은 얼마든지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다. 그러나 성서의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에 가인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웬지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연구 하려는 본문 어디에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대물림 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혹 부모의 죄로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부모의 죄로 인하여 가인이 동색을 죽였다면 가인이 죽인 것인가? 아니면 원죄가 죽인 것인가 질문하게 된다. 원죄가 원인이라면 가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가인의 살인 사건은 큰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어 어떻게 가인의 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 많은 이들은 가인의 살인 사건 이야기를 접하고 당혹해한다. 이곳에서 전통적인 이미 충분히 연구되었기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최근 신학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원역사¹⁾라고 부른다. 즉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설화적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글쓰기다. 또한 가인과 아벨 설화는 고대 사회의 글쓰기 형태인 설화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어떤 사실적 인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전승된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원형[原型, archetype]²⁾으로써 읽어낼 때에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새로운

1)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이전의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이르는 부분은 역사 이전의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원역사(Pre-Historic Narrative)로 분류한다. 아브라함부터 역사적 기록으로 증명 가능하기에 역사라 하고 아브라함부터 족장사(history of Patriarchs)가 시작된다. 원역사라는 의미가 역사가 아니라거나 부인하는 의미가 아니다. 역사라는 것은 6하 원칙에 따라 사실을 기록하는 독특한 문학적 장르를 의미 한다. 꼭 역사라고 해서 진리라는 것은 아니다. 진리와 역사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또한 사실과 진리도 다른 개념이다. 사실이라고 진리는 아니라는 뜻이다. 사실이 아니라도 진리를 담고 있는 것도 세상에는 너무 많다. 논리적이라고 곧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라. 그것이 비유든, 은유든, 상징이든 말이다.

2) 그리스어로 '최초의 유형'이라는 뜻의 archetypos을 우리말로 옮긴 용어다. 문학과 사상 전반에 보편적인 개념이나 상황으로 여겨질 만큼 자주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근본적인 상징 성격 유형을 가리키는 문학 평론 용어, 문학평론가들은 '집단 무의식'이론을 체계화한 심리학자 카를 융의 저서에서 이 용어를 차용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다양한 경험은 어떤 식으로든 유전 암호가 되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논리 이전의 사고에 기원을 둔 이 원초적인 심상(心象) 유형과 상황은 독자와 저자에게 놀랄 만큼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인류의 마음에는 최초의 조상부터 공통의 경험을 하면서 비슷한 감정들이 무리를 형성하면서 하나의 심장으로 마음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 감정 군을 원형이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일반적인 원형을 해석하듯이 신학적, 문화 인류학적, 심리 역동적인 접근을 통해서도 가인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극적 아픔을 방지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하는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향

전통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원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성서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즉 인간의 원죄가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의 뿌리라는 것이다. 원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을 죽이도록 한 동인을 가인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 차원의 핵심감정이라 가정하고 핵심감정에 대한 일반 연구와 핵심감정 연구를 통해서 가인의 핵심감정을 연구할 것이다. 핵심 감정은 일종의 원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다. 역으로 원형을 핵심감정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할 것이다. 즉 죄가 남긴 상처와 흔적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죄는 그리스도의 사죄 은총으로 용서된다. 그런데 그 죄가 남긴 상처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기에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생을 죽이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심리역동 연구를 통해서 가인과 같은 심리적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이해하는데 의의를 둔다. 나아가 파괴적 본능에 의해서 고통 받는 이들을 돕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상담의 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본 논문은 성서와 기타 자료를 통해서 가인의 핵심감정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 시켜 가는지를 자료 연구를 통해서 찾아내려고 한다. 하나님은 최초 인간의 죄와 상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찾아서 일반 상담 이론과 비교하면서 핵심감정을 다루는 목회 상담학의 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있다.

3. 연구 방법과 범위

위에서 제기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 논문의 성서 본문을 중심으로 가인을 한 인간으로, 또한 인간의 원형으로 이해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핵심감정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핵심감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사회 심리학적 입장, 정신 분석학적 입장과 대상관계 입장을 중심으로 가인의 동생 살해 이야기를 다루려고 한다.

본문 연구는 1장에서는 그 동안 교회가 가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살펴보고 가인의 이야기를 핵심감정, 즉 심리역동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일반적인 핵심감정을 다룰 것이다. 핵심감정이란 무엇인가? 핵심감정과 정신 분석학적 용어와 비교 하면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프로이트, 레온 사울과 분석심리학자 이론, 소암 이동식, 김경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핵심감정을 설명할 것이다. 그런데 핵심감정은 느낌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성의 언어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핵심감정의 종류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지만 논문의 성격상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범주로 나누어 연구하려고 한다.

3장에서는 가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 상태를 살펴볼 것이다. 가인의 내면에 있는 핵심감정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인의 핵심욕구, 시기심과 질투, 수치심과 죄책감, 열등감, 공격성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내재 되어 있는 결핍된 욕망으로서의 희망을 살펴봄으로써 가인의 핵심적인 심리 이해를 정리하려고 한다.

4장에서는 동생을 살해한 가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도록 돕는가를 살필 것입니다. 비록 동생을 죽인 살인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으로 인간의 핵심감정을 다루는 기독교 상담 기법을 찾아보는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다루실 때에 일반적인 상담 방법과 같이

다루시는데 일반 상담과 다른 부분, 즉 하나님의 지지와 보호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부분이 있다. 이 논문에서 이 부분이 강조할 부분이라 하겠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전망을 다루었다. 그러나 성서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가인의 핵심감정을 드러내는데 제한적 자료만을 주기 때문에 연구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었고, 어느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심리 이해를 통해서 가인의 핵심감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었다. 가인을 살해 원형으로 이해하려는 뜻이 여기에 있다. 가인을 역기능적인 가정에 태어난 형의 원형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러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상징되는 역기능적 가정의 아들의 원형으로 가인과 아벨을 읽으려고 한다.

II 본 론

한 생명이 잉태 되는 순간부터 그는 관계적 존재가 된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위치를 정하게 되고, 부모, 형제, 자매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유아기를 보내게 된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가족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관계는 한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자기 표상³⁾을 만들고, 대상 표상⁴⁾을 만들어 관계 표⁵⁾상을 갖게 된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과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어떤 무의식적 원초적 힘이 있는데 이것을 핵심 감정이라고 한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로 태어난 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장에서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심리역동의 핵(core)인 핵심 감정을 다루려고 한다. 핵심감정은 한 개인이 느끼는 느낌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성적 언어로 담아내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학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느낌을 몇 가지 단어로 분류하였다.

1. 가인의 형제 살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

가. 가인의 형제 살인에 대한 전통적 해석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가인⁶⁾과 아벨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해석하

-
- 3) 자기표상(Self representation) 자기 표상은 대상 표상이 자기화되어 자기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상으로서 대상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무의식세계의 자기를 지칭한다.
 - 4) 표상이란 자기 자신과 대상에 대해 갖는 어떤 정신적인 상(image)을 말하는데 객관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주요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한 바를 반영한다. 생애 초기 유아는 어머니로 대표되는 초기 양육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그 대상과의 경험은 물론이고 그 경험에 수반하는 정서상태까지 내면화하여 대상표상을 형성한다. 대상표상에 대한 표상뿐만 아니라 대상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자기에 대한 표상도 존재한다. 이것이 자기표상인데, 양육자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화된, 자신에 대한 지각, 느낌, 기억, 의미를 포함한다. 대상관계 이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며, 이런 내면화된 표상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각과 경험, 관계양식에 영향을 준다. 그럴 때에 형성된 어떤 표상이 작용을 한다.
 - 5) 표상(representation) 외부 세계에 대해 주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이미지로서 주체가 이 세계를 이해하거나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 틀. 개체는 대부분 외부에 실재하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나 외부의 대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 6) 가인의 이름에 대하여 어느 책에서는 카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인용한 책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특별한 인용이 아니면 가인으로 표기 한다.

였다. 가인과 아벨을 형제로 보고 이들의 갈등과 살인 사건을 아래와 같이 해석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 해석의 한계를 찾아보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형제의 심리 역동의 무의식적 반영의 이야기로 읽고 핵심감정을 찾아보고자 한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 가인은 '농사하는 자'(창4:2)가 되었고 당연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창4:3), 아벨은 '양치는 자'(창4:2) 곧 목동이었고 당연히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창4:4)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왜 가인의 제사를 열납하지 않으셨을까?

첫째로⁸⁾ 전통적으로 카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해석이다(레17:11)⁹⁾ 그러나 피의 제사는 농부에게는 불공정하고 가혹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2:1절에 보면 소제(곡식 제물)는 번제(희생제물)와 더불어 히브리인들의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제물의 요소이다. 따라서 피의 제사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도, 곡물의 제물도 기뻐하는 분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답이다. 출33:19절에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는 말씀을 들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이니 인간이 따질 것이 없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면 가인에게 분노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인의 살인 총동이 하나님

7) 본 논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곳은 개역 성경을 사용하였다.

8) Leach, Edmund, Culture and Communication: the Logic by which Symbols are Connect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 7.

9) 히 9: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 9: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의 절대 주권의 원인일 수는 없다.

셋째로 아벨은 믿음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신약 성서에 가인은 악한 자였고(요일3:12),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다.(히11:4) 이 해석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성서에 있는 유일한 해석이다. 그런데 이 해석은 한계를 지닌다. 제사법이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주어졌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제사법이 주어지기 전에 드린 제사였다. 즉 제사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에 대한 ‘믿음의 제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법이 없으면 잘못도 없고 처벌도 없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이 의미를 알 수 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한참 후대에 주신 법으로 가인에게 소급 적용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성서의 증언 자체가 창세기 기록의 사실성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왜 가인이 악한 자가 되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였는지, 누가 그에게 악한 마음을 넣어주었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가인의 악이 가인의 책임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왜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지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왜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이 좋았는지, 아벨이 믿음을 가진 것이 그의 태어난 성품인지, 아니면 외적 원인 인지 먼저 규명 되어야 한다.

네 번째 해석은 아벨의 제물보다 제물을 바치는 자의 삶을 받으셨다는 해석이다. 본문에 “야훼께서 아벨과 그리고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리고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제물과 삶을 같이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성서 어디에도 가인이 아벨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는 기록은 없다. 이 해석도 가인과 아벨의 삶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왜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았는지, 가인의 책임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서 자체의 다른 증언이다. 가인의 때에 야훼 하나님을 부르며 제사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창4:26에 “그 때에 야훼의 이름

을 불렀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그 후손 에노스 때에 인간들이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는 점이다. 성서적으로 가인과 아벨 때에는 야훼 하나님을 몰랐어야 맞다. 뿐만 아니라 성서 자체에도 다른 증언이 발견된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야훼라는 이름은 모세 때에 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계시되었다. 언제 야훼 이름이 주어졌는가? 모세 때인가? 에노스 때인가? 아니면 가인 때인가? 이런 다른 주장에서 어느 구절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성서 본문 해석의 방법이 달라진다.

이러한 성서 내용으로 보아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보다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의도에서 기록된 설화적 장르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성서의 의미를 바르게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설화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뒤틀림, 순서 바뀜, 역설 등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가인과 아벨을 한 개인으로 해석하고, 가인과 아벨에게 있었던 사건의 기록이라고 할 때에 위에서 제기한 일에 대한 충분히 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보려고 한다.

나.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대한 문화 인류학적인 해석

카인으로 대표되는 농업에 종사하는 정착민과 아벨로 대표되는 유목민 사이에 알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느 인종에게나 있어 온 갈등이다. 이스라엘인들은 비교적 정착이 늦은 유목민으로 약자에 속한다. 이들은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며 살았는데 땅을 소유한 정착민에게 쫓기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반면 가인으로 대표되는 농업 정착민들은 농산물의 축적과 안정된 생활 기반으로 사회적 강자요, 약자들을 학대하며 착취하면서도 제물로 신의 환심을 사려는 자들이었다.

동시대적으로 본다면 농부가 목자보다 사회적으로 더 우세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농부와 목자는 사회 계급적으로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반기시고, 가인의 제물은 반기지 아니하신 것은 제사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와 강자 사이의 사회적 갈등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약자의 편을 드신다는 것이다. 억압자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넷째 해석이 훨씬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억압한 자의 삶, 착취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이것이 성서 전체의 흐름이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해석이다. 가인은 사회의 약자인 아벨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을 믿고 약자를 죽였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강자가 약자를 돌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이 반발한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았다. 가진 자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 약자와 낮은 자를 도와야 한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다시 떠돌이 약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가인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늘 약자의 하나님으로 타나나는 것이 성서의 흐름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설화 형태를 띠고 성서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착취당하는 약자들의 하나님이다. 살해되어 암매장되는 약자들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약자인 히브리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셨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에게도 계속된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상속자였다. 그러나 특권을 믿고 약자 이삭을 놀리다가 버림을 받았다. 에서는 강한 사람이요 아버지 이삭의 상속자였고 야곱은 약자였다. 결국 약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편을 늘 들어주신다. 물론 하나님은 가인도, 이스마엘도, 에서도 보호해주시지만 그들이 약자를 억압할 때는 그들이 아니라 약자 편을 들어주셨다. 10)

구약 성서의 관점에서 피는 생명을 뜻한다. 생명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다. 생명의 파괴는 인간의 권한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땅에 흘려진 피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생명의 주님께 항의한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형

10) 서인석 교수를 이런 의미에서 성서는 약자의 권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인간은 약자를 지켜야 한다. 형은 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강한 자는 약자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한다. 그리고 오리발을 내민다. 하나님은 이것을 침묵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신다.

엘리아데¹¹⁾는 아벨은 ‘양치기’, 카인은 ‘대장장이’라는 뜻이다. 성서의 전통은 유목민을 단순하고 순수한 존재로 이상화하고, 농경인을 경계해야 할 존재로 낮추며,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는 불을 다루므로, 이상한 마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 성서는 카인을 살인자로 묘사한다고 보았다. 성서에 엘리아데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많이 있다.

총신대 김정우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설명한다. “세월이 지나 카인은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으며, 그의 첫 아들을 "에녹"으로 이름 짓는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 하여 에녹이라 하니라"(4:17, 개역개정). 아마 가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성을 세운 후, 그것을 봉헌한다는 뜻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으로 지은 것 같다. "방랑자"가 "성"을 세운 것은 아이러니이다. 아마 자신을 은폐하기 위하여, 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세울 결심을 한 것 같다. 가인의 "성"은 열린 성으로서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성으로 세워진 듯하다. 가인의 도시에 문화가 꽃피며 농사는 야밭로(20절), 음악과 예술은 유밭로(21절), 기계는 두밭-가인으로(22절), 법은 라멕(23-24)으로

11)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 1907년 3월 9일, 부쿠레슈티 ~ 1986년 4월 22일, 시카고)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비교종교학자이자 작가였다.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바로 타 문화와의 숙명적 만남을 서구학자들에게 일깨우고, 동양과 원시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현대의 [다원적 세계 문화 읽기]의 새 패턴을 구축하였다. 종교사에 대한 그의 작업 가운데, 샤머니즘과 요가, 우주적 신화에 대한 글이 주로 평가받고 있다. 엘리아데의 폭넓은 문화와 종교 인식은 동양학자 막스 뮐러(1823~ 1900)와 인류학자 프레이저(1854~1951)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뮐러는 동양 종교의 경전들을 서양에 처음 소개한 인물이며 프레이저는 저서 "황금가지"를 통해 세계의 문화 현상들을 과감하게 한데 묶어 놓은 인물이다. 엘리아데 자신 "뮐러와 프레이저의 저서를 읽으려고 영어 공부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엘리아데는 또 1950년 심리학자 칼 융(1875~1961)을 만나 그로부터 인간의 상징과 상상을 내용적으로 규정하는 "원형(archetypes)"개념을 받아들인다. 또 그가 종교 자체의 독자성-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스러운 것"(the sacred)"이란 용어는 기독교의 신 개념을 넘어 타종교의 신앙 대상까지 포함하는 "거룩한 것"(the holy)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종교사학자 루돌프오토(1869~1937)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엘리아데는 이 선배 학자들의 업적과 그 자신의 연구-체험을 종합, 인류의 삶에 나타나는 종교 현상의 본질을 "성스러움의 나타남(히에로파니 hierophany)"이란 개념으로 밝히려 했다. 중요 저서로는 영원회귀의 신화, 성과 속, 종교형태론, 샤머니즘 등이 있다.

발전하고 있다. 라멕의 세 아들인 야발, 유발, 두발-가인은 다 비슷한 이름으로서 모두 "야발" 즉 "생산하다, 가져오다, 이끌다, 인도하다"라는 어근에서 나왔다.¹²⁾

성서에는 도시문화, 농경문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홍수 신화 이후에 나오는 바벨과 그 탑 사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바벨이란 도시는 유목 생활과 반대로 인구가 집중하는 농경 생활을 상징하고 탑을 세우는 것은 신에 대한 농경인의 도전을 의미 한다. 따라서 신이 도시와 탑의 건설을 막는 것도 유목인(약자)을 이상화하는 전통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왜 구약 신화는 농경인을 낮추고 유목인을 높일까? 농경은 비옥한 땅과 사람의 힘을 믿고 교만한 사람들을 만들고, 유목은 거칠고 가혹한 자연 앞에서 신에게 겸손하게 순응하는 사람을 만든다. 생존을 자연에 더 의존하는 유목인이 농경인에 비해서 신을 잊기가 더 어렵다. 신을 기억하는 것과 잊는 것은 사람의 의식에 큰 차이를 낳는다. 사람은 신을 기억 할수록 공동체의 강화를 지향하고 신을 잊을수록 개인의 발달을 지향하기 때문이다.¹³⁾

역사적으로 유목인은 늘 농경 문화인에게 고통을 당했다. 야곱 때에도 애굽에서 더불어 살다가 노예가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경문화의 중심지 바벨론에게 끌려가 고통을 당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기로 작정을 하셨다.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이 세운 성에는 농업과 목축과 음악과 예술과 각종 산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 문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에덴의 동쪽, 살인자의 땅, 창시자가 "여호와와 앞을 떠나" 세운 것이므로(4:16), 생명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가 없고 교만이 넘쳤다. 결국 바벨탑을 쌓을 생각을 하게 된다.

다. 신화¹⁴⁾와 핵심감정의 원형¹⁵⁾으로서 이해

12) 총신대 김정우 교수의 '에덴의 동쪽 마을 이야기 II' 에서 인용

13) 문화와 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동녘

14) 신화와 설화라는 용어는 분명히 구분되는 용어지만 이 논문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것이다. 책을 인

신화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현상이나 어떤 문화질서를 설명하는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다. 신화는 전승집단 즉 그 사회 구성원들의 존재론적이며 문화론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으로써 오늘날 세계와 삶에 스며있다. 그러기에 신화는 과거형, 그것도 가장 오래된 과거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신화의 본질은 항상 ‘진행형’인 것이다.

“신화의 제1의 성격은 시간의 통합기능이다. 그것은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설명하고, 현재에 의해서 미래를 설명하는 어떤 질서가 영구히 계속됨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레비-스트로스의 유명한 명제에서도 신화의 유구한 역사성이 증명된다. 이러한 신화의 진행형적인 성격은 이미 여러 신화학자들에 의해서 언급되었다. 엘리아데는 “신화적 형태는 전형적 유형의 반복 그리고 세속적 시간의 파기와 원형적 시간의 통합이 신화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말한바 있다

뒤랑(Gilbert Durand)은 신화의 특성을 ‘반복되는 동사’에서 찾을 것을 주문하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동사는 신화나 제의를 통해서 계속 반복, 기념, 재생되는 가치 있는 행위에 주목하라는 의미’이다. 신화에 대한 연구는 이야기 차원에서 벗어나 그 이야기 속에서 찾은 단서로 문화적 가치 체계 - 현재의 세계에 여전히 유효한 - 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6) 신화는 선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나 자신의 내적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을 때 문자 뒤에 숨어 있는 의미가 되살아나고 신성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신화는 반드시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17)

용할 때에 각각 원문을 그대로 옮겨야하기 때문이며, 또한 교회 안에서 설화나 신화라는 용어가 용납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겠다. 다만 연구하고자 하는 창세기 본문이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역사 기록 이전의 원역사라는 점에서 이 두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신화는 허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화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는 독특한 장르로 역사 기록 이전에 구전으로 전해진 하나의 문학 형태라는 것이다.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며, 기록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신화 연구에 관한 책에서 무수히 다루었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15) Nakazawa Shinichi,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김옥희 역, 서울: 동아아시아, 2001.

16) 신화와 제의적 관점에서 본 세익스피어 극에서의 죽음과 재생의 모티프 - 희생양을 통한 정신적 재생 - 박사 학위 논문. 이광준, 서울시립대학교, 2007

17) Joseph Campbell, *신화와 함께 하는 삶*, 이은희 역, 서울: 한숲, 2004, p 43.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살인’의 신화적 원형¹⁸⁾이다. 인간의 무의식의 깊은 곳에 시기와 질투로 인한 살인의 충동이 있다. ‘살인의 추억’, ‘살인의 흔적’이 남아 있다가 같은 상황이 오면 현실로 스멀스멀 밀고 올라온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실제 살인이 있어왔다. 이러한 인간의 집단 무의식¹⁹⁾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오늘도 되풀이 되는 살인 원형이다. 엘리야데는 신화가 이야기 하고 있는 내용이 세계이자 우주의 처음이고, 인간의 처음이고, 또 다른 모든 것의 처음이기 때문에 신화는 모든 것의 원형이라고 말한다.²⁰⁾

2. 핵심감정 연구

-
- 18) Jung은 처음에 콤플렉스가 어린 시절의 외상적인 사건에 의해 생긴다고 믿었지만 나중에는 종의 진화사에서 어떤 경험 즉, 유전 기제를 통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느꼈다. 원형(archetype)이란 단어는 “근원적 흔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 단어들의 조합이다. 또한 보편적인 경험들(유사한 경험들)은 우리 내부의 심상으로서 나타내거나 표현되는데, Jung은 이를 원형(archetypes)이라 불렀다. 즉 원형들은 인간 경험들이 그린 청사진이며 각인의 조상의 과거 경험의 흔적이 모여 형성되어 내려온 잠재적 경험의 침전물이다. 이것이 현재의 우리들의 지혜의 원천이 된다고 융은 생각했다. 집단 무의식의 구조적 요소들을 《원형(原型 Archetypes)》라고 불렀다. Jung의 정의에 따르면, 원형이란 어떠한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기본 모형(틀)이다. 의식이란 보편적 원리들로서 이를 중심으로서 정서적으로 충전된 관념들, 기억들, 꿈들, 느낌들, 그리고 경험들을 모아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보편적인 진화 경험의 저장소인 집단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은 성격의 가장 접촉하기 어려운 가장 깊은 수준에 존재하며 한 개인의 성격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여러 개의 원형 중에 몇몇 원형은 매우 발달이 되어 있고 세력도 강한데 그 중에는 페르조나(persona), 아니마(anima), 아니무스(animus), 그림자(shadow)와 자기(self)가 포함된다. 집단 무의식은 원형들의 영역이다. 융은 현대적 근원에 국한해서 원형의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신화; 연금술; 종교; 점성술 등에서 이를 찾으려 했다. 그는 이러한 분야에서 원형에 대한 상징성을 찾으려 했고 또 꿈에서도 이를 찾으려 해서 꿈에 관한 연구도 많이 했다.
- 19)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카를 융이창안한 용어로 전인류에 공통되며 뇌의 선천적 구조에서 비롯되는 무의식(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기억과 충동을 포함하는 정신의 일부)의 한 형태이다. 집단무의식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개인적 무의식과는 구별되며, 원형(原型), 즉 보편적인 원초적 상(像)과 관념을 내포한다.
- 20) 김지옥, 신화의 교육적 의의-엘리아데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가. 핵심감정의 정의

1) 핵심감정이란(Nuclear Feelings)

가) ‘핵심감정’이라는 용어의 역사적 배경

‘핵심감정’²¹⁾이라는 용어는 1970년에 발표한 “한국인 정신치료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도정신치료가 이동식이 처음으로 사용해 문헌상에 등장하였다.²²⁾ 이동식은 “핵심감정이라는 개념은 약1,000년 전에 중국(中國) 송대(宋代)의 대혜선사(大慧禪師)가 지배계층이었던 사대부들을 선의 세계로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그들과 주고받은 편지(대개는 보낸 편지)들을 모아 엮은 책 서장(書狀)에서 ‘애응지물(碍膺之物) 기제각(既除覺)’이라는 기술이 보인다. 그런데 애응지물은 ‘가슴에 거리끼는 물건’을 의미하고 이것을 없애면 깨닫게 된다(既除覺)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애응지물의 배후에 있는 것이 핵심감정이다. 그 느낌 자체를 핵심감정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며,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 전부 사랑과 미움으로 귀착한다. 사람마다 구체적인 경험은 다 다르다. 핵심감정은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인데 그 느낌을 말로 할 수 있거나 느껴야 한다. 그런데 상담에서 말하는 핵심감정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다.”²³⁾라고 설명 했다.

동서심리상담연구소소장 김경민은 “핵심감정이란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 감정 이다. 핵심감정은 본인에게 자주 걸리고 자연스럽게 못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감정 이다. 핵심감정은 외부자극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여지는 마음상태이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주로 일어나는 감정이다.”²⁴⁾라고 설명했다.

21) 본 논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이동식의 핵심감정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의미한다.

22) 첫 면담과 핵심 감정, 한국 정신치료학회 제6회 전공의를 위한 정신치료 워크숍, 2004년 5월 29일, 서울대학교병원 치과 병원 8층 대강단, 정신치료학회,

23) 소암 이 동식, *도정신치료 입문(프로이드와 용을 넘어서)*, 서울: 한강수. 2008. p. 27.

24) 김경민, *이제는 부모 자격증 시대*. 서울: 동서심리상담연구소. 2006. p.138.

서양치료의 중심 역동이 객관적 이해, 이성적, 지적 추구의 결과로 자연과학적 방법론으로 주객분리라고 한다면, 동양 치료에서의 도정신치료의 핵심감정은 공감적 이해, 주관적 경험과 정황, 배경의 의미를 파악해서 정신과학적 방법론으로 주객일치, 즉 주체적으로 느끼는 감정 자체를 말한다.²⁵⁾ 이를 종합해 볼 때에 핵심감정은 정신분석이나 정신 역동치료에 있어서 융의 콤플렉스, 중심 갈등, Leon J. Saul의 아동기 정서적 패턴, 중심역동, 핵심역동, 주동기, 핵심감정군(nuclear emotional constellation), 또 최근에 말하는 중핵감정(core emotion)이라는 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²⁶⁾

이와 같이 핵심감정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정서로 해결되지 않은 욕구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핵심감정은 언어화하기 이전에 느끼는 감정의 형태이다. 그래서 밑바닥에 감정이 남아 있고, 패턴이 있다. 핵심감정은 증상에 가해지는 다양한 힘들의 흐름이며, 유동적이며, 영향력이 있다. 0-6세에서 결정되어진 감정양식이며, 그 감정양식이 현재의 정서생활과 문제, 꿈, 전이에서 나타난다. 감정양식의 공통점은 압박요인으로부터 도피, 또는 감소하려는 시도로 퇴행경향성, 적개심, 파괴성으로 나타난다. 핵심감정은 임신기부터 시작하여 평생을 좌우하는 강력한 감정이다.

나) 핵심감정(nuclear feelings)의 형성 배경

핵심감정은 관계의 경험에서 공감의 실패에 의하여 생기고, 공감의 실패에 의하여 은폐(억압)되고, 공감적 이해에 의하여 드러나고(파악), 공감적 응답에 의해서 사라진다고 했다.²⁷⁾ 이동식이 주장하는 핵심감정의 배경은 개인적 경험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성장 배경, 집안 내력과 사회적, 학습 경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역사, 주변 인물과의 교류, 서양과의 교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감정을 뜻한다고 했다.²⁸⁾ 모든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주로 부모, 특히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미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5) 한국 정신치료학회 제6회 전공의를 위한 정신치료 워크숍 참고.

26) 이동식, *도정신치료 입문*, p.29.

27) 제6회 전공의를 위한 정신치료 워크숍, “첫 면담과 핵심감정,” 한국 정신치료학회, 2004, p. 7.

28) Ibid, p. 6.

Leon J saul은 핵심적인 아동기 감정양식은 초기단계에서 발달된 정서적 왜곡으로, 이는 정서적 장애의 핵심이 되는데, 이것은 아동기의 경험과 정서적 영향에 대한 선천적, 신체적, 사회적인 다른 요소들과 관계된 영향을 항상 포함한 반응에서 생긴다고 했다. 달리 말하면 아이들은 제각기 유전자 속에 반응과 발달을 위한 모든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 정서적, 신체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특정한 삶의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²⁹⁾ 작고 미숙한 유기체에게 여러 강력한 힘들이 부딪혀 오는데, 즉 가정의 물리적 조건, 가정의 경제적, 감정적 안정도, 형제자매가 있는가, 어린이가 딸이인가 막내인가, 아니면 중간인가, 특히 중요한 점은 부모의 성격으로써, 부모의 성격이 사랑을 주고 이해하고, 지지적인가, 무관심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신체적으로 학대하는가(Horney, 1937: Alexander, 1940, 1961)이다.³⁰⁾

Freud도 아동기의 양식 또는 핵심적인 감정적 결성은 출생 당시부터 어린이는 선천적인 본능적 충동과 반응에 따라 그를 양육하고 그 곁에 가까이 있는 인물이거나 어린이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과의 감정적 상호작용하여 0-6세 사이에서 형성되며, 6-7세에 이르러 그 기초가 어느 정도 고정되는 개인의 독특성을 만들어낸다고 했다.³¹⁾

김경민은 핵심감정의 형성배경에 대해서 “핵심감정은 어려서의 대인관계 특히 부모, 형제, 또는 그와 같은 의미 있고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던 사람과의 관계경험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핵심감정은 주로 아동기 때에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쉽다.”³²⁾고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핵심감정이 태아기 때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핵심감정의 작용에 대해서는 "나의 모든 사고, 행동들은 핵심감

29) Leon J saul, *The Childhood Emotional Pattern And Maturity*, *아동기 감정 양식과 성숙*, 천성문, 이영순, 박순득, 정봉희, 장문선, 김수령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6. pp. 270-273.

30) Leon J saul. *The Childhood Emotional Pattern. The Key to Personaloty It's Disorders and Therapy. 인격형성에 미치는 아동기 감정양식*. 이근후, 박영숙, 문홍세 공역. 서울: 하나의학사. 1998. p.36.

31) Leon J saul, *lbidy*. pp. 28-29.

32) 김경민, p.140.

정에 의해서 결정되며, 핵심감정과 관련된, 즉 핵심감정의 뿌리를 중심으로 파생된 가지들이 있다. 핵심감정은 매 순간마다 작용하고 있다. 핵심감정은 나의 아킬레스건이다. 핵심감정은 나를 미치게 한다. 핵심감정은 나를 돌게 한다. 핵심감정은 내가 친 거미줄이다. 핵심감정은 가짜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만든 감정이다. 핵심감정도 그때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반복한다."고 설명하였다.³³⁾

이를 종합해 볼 때 핵심감정은 어린 시절 역기능적 가정에서 성장 할 때 형성되는데 주로 부모나 보호자의 배척, 박탈, 과잉보호, 유혹, 죄의식, 수치감을 유도하는 정신적 취급이나 신체적 위협 및 학대, 태만이나 과실에 의한 잘못된 양육방식과 억압, 소외 등으로 기본적인 욕구가 박탈, 거절되거나 좌절 될 때 형성되어 일생동안 지속 된다고 볼 수 있다.

다) ‘핵심감정(nuclear feelings)’의 파악

서양치료의 역동적 진단과 치료적 관계형성의 기초로 치료 초점을 결정하는 것에 해당되는데, 첫 면담부터 핵심감정의 파악을 강조한다. 그런데 핵심감정은 무의식에 갇혀 있어서 파악하기 어렵다. 인간은 “일거수일투족”에 핵심감정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감정의 파악을 위한 자료로는 역동적 진단을 위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다.

Leon J Saul은 분석가는 첫 회 면담부터 곧 바로 환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실제로 초기 몇 회 면담은 환자의 진단과 주요 역동, 특히 환자의 고통과 증상을 야기 시킨 정신병리적 역동, 중심 역동에 초점을 맞추어 역동적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0-6세 사이에 아동기 정서적 패턴이 형성되는데 0-6세의 인생의 특징, 가장 중요했던 인물과의 관계, 최초의 기억, 아동기와 그 이후의 꿈 특히 반복되는 꿈을 살펴봄으로 핵심감정에 근접한 아동기 감정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³⁴⁾

33) Ibid, p.138.

34) Leon J saul, *아동기 감정 양식*, pp. 45-46.

Leon J Saul이 핵심감정에 근접한 아동기 감정 양식을 발견하는 방식은 임상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환자가 털어놓는 주된 문제점을 알고, 발현시기, 경과, 그 당시의 주변 환경, 그리고 유발 환경을 확실히 밝힌다. 둘째 환자의 현재의 감정양식, 환자의 생활 방식을 포함한 직업, 취미에 대한 주요한 리비도의 투자, 그리고 전형적인 하루 일과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환자의 일반적인 내용으로부터 특수한 내용으로 진행해 가면서 출생 후 6세나 7세까지의 생활에서 주요한 감정 특징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 기억한다면 대략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출생 후 6세 정도까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사람, 또는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가족전체 뿐만 아니라 가족 개개인들, 어머니, 아버지, 모든 형제자매에 대해, 그리고 다른 구성원, 아주머니나 아저씨, 조부모, 유모, 또는 다른 조력자, 심지어는 애완동물에 대해서 까지 질문한다. 이에 따라서 최초의 기억(earliest memories)은 규칙적이거나 지속적인 기억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2세나 3세, 또는 그 이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소하고도 불확실한 기억의 흔적과 단편에 대해 묻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이후에는, 꿈에 대한 질문, 특히 반복되는 꿈, 아동기의 꿈,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되는 꿈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고 했다.³⁵⁾

이동식은 다음 같이 핵심감정을 파악 할 수 있다고 했다. 주소 및 증상의 시작, 전형적인 24시간의 습관, 수태로부터 현재까지의 정서적 대인관계 및 의학적 병력을 포함하는 기억 가능한 자료들, 과거와 현재의 대인관계의 특성 (타인에 대한 태도), 자화상, 미래관, 통상적인 정신 상태와 인격 내의 주된 정서적 힘과 긍정적인면 등을 포함하는 의식적인 정서적 태도, 초기 기억, 아동기의 반복된 꿈, 치료 시작 전의 꿈, 공상, 백일몽, 무의식적 연상 자료이다.³⁶⁾

김경민은 핵심감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는 지름길이며, 나아가 나를 지금 여기에서 살

35) Ibid, pp. 45-48.

36) 제6회 전공의를 위한 정신치료 워크숍, "첫 면담과 핵심감정," 한국 정신치료학회, 2004, p. 5.

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현재 나의 삶에 충실하도록 해주는 실마리가 되는 핵심감정 발견을 위한 방법 몇 가지를 제시했다.

첫 째: 최초 기억 및 초기 기억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 최초 기억은 한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 중에서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을 일컫는다. 가장 첫 번째로 기억되는 만큼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의 상황과 주요 인물이나 그 밖의 대상들과 더불어 그 때의 느낌과 정서를 잘 살펴보아야한다. 또한 생애 초기에 일어난 여러 사건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것들과 그 상황들을 떠올려 그 때의 느낌과 그러한 상황을 떠올렸을 때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아동기 때부터 반복되는 꿈을 기억해 보는 것이다. 한 사람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바와 그렇지 못했을 때 형성되는 정서와 사고들이 표현되지 못한 채 미해결된 과제로 남아 무의식적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복되는 꿈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건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정서를 담고 있다. 반복되는 꿈에 나타나는 정서야말로 그 사람의 핵심감정이거나 그것을 발견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관련 정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좋아하는 노래 살펴보기다. 노래는 사람들이 정서를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노래는 그 가락과 함께 노랫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대변하게 된다. 자신이 주로 부르는 노래, 흔히 말하는 18번이나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 등을 잘 검토해 보면 그 노래 가락에 담겨 있는 정서와 노래 가사의 내용이 크게 한 가지로 모아지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자신의 취미활동과 직업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의미를 두거나 무엇인가에 흥미를 느끼고 취미로 하는 일은, 그 일을 할 때 느끼는 정서와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잘 살펴보면 거기서 자

신의 핵심감정이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거나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37)

이와 같이 핵심감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 최초의 기억들, 반복되는 꿈, 그리고 가족관계 등 환경, 넓게는 속해 있는 문화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론가들의 견해가 일치 한다.

라) 핵심감정의 진단

이동식은 핵심감정은 치료자를 쳐다보는 눈, 태도에 나타나 있으며 첫 기억, 반복되는 꿈, 일거수일투족에 드러나지만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속에 핵심감정이 있다고 했다.³⁸⁾ 핵심감정의 진단은 현재의 정서생활과 과거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의 감정적 패턴과 어떤 관련이 있나를 이해해야 한다. 핵심감정은 치료 장면에서 발견하게 되며 치료적인 목표와 관계가 있다. 핵심감정은 내담자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감정양식은 세상 전반에 걸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고, 자기실현의 에너지와 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애를 걷어냄으로써 자존감 회복과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한다.

나. 핵심감정과 정신역동의 비교 연구

핵심감정과 유사한 개념이 정신분석학자들의 이론에서 발견되는데 핵심 감정 이해를 위해서 몇 명의 정신분석가의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암 이동식은 "서양정신치료에서는 개념적인 사고에 갇혀 현실을 보지 못하고, 관찰자로서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이론을 말하지만, 도정신치료에서의 핵심감정은 개념을 통해서 현실을 보고, 주관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 느낌 자체를 말한다. 핵심감정과 같은 개념의 정신역동, 핵심역동, 주동기, 융의 콤플렉스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나온 말들이지만, 이런 것들의 배후, 밑바닥

37) 김경민, *이제는 부모자격증 시대*. pp.147-150.

38) 이동식, *도정신치료입문*, p. 133.

에는 핵심감정이 있다. 이동식은 이 중에서 소울의 주동기가 가장 핵심감정에 가깝다" 고 했다.³⁹⁾

1) 프로이드의 정신역동과 핵심감정

감정의 상호작용이 프로이드에 의해 정신 역동으로 불리고,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개념도 부모에 대한 초기 양식이 성인생활에서 타인에게 전이되고, 초기 아동기 동안 중요한 인물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된 핵심감정에 가장 가까운 리비도 이론과 에디프스 콤플렉스를 통해 감정을 이해해보려고 한다. 사울은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개념은 신경증이 갈등과 방어라는 그의 진술과 결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이 모든 개념들은 신경증과 여러 심인적 정신증의 핵심적 역동에 대한 간결하고 단일한 공식화로 압축될 수 있다⁴⁰⁾고 했다. 핵심감정은 무의식에 내재한 욕망이 리비도의 총동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겠다.

가) 리비도(libido)와 총동

프로이드는 초기 이론에서 성적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 '리비도(libido)'라는 용어를 썼다. 그러나 동기 이론을 수정하면서 '리비도(libido)'란 모든 생명의 본능이 갖는 에너지라고 정의했다. ⁴¹⁾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모든 병리적 원인의 근본을 유아기적 성에서 찾고자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에서 리비도란 '인간과 동물이 성적 욕구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은 생물학에서 배고픔, 즉 섭취 본능과 유사한 성적본능이라는 가설로 표현된다. 일상 언어에서는 성적 본능에서 배고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지만, 정신분석에서는 그에 맞는 리비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⁴²⁾

총동은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싶은 욕구를 느끼게 하는 마음속의 자극이다. 내적 욕구에 의해 생겨난 총동은 내적변화 혹은 심정의 표현

39) Ibid, pp.137-159.

40) Leon J saul, *인격형성에 미치는 아동기 감정양식*. p.28.

41) Calvin. S. Hall, *프로이드의 심리학입문*, 지경자 옮김, 서울: 홍신문화사, 1993, p.79.

42) Sigmund Freud, *성욕에 관한 에세이*. 김정일 역. 서울: 열린책들. 2004. p.19.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운동성으로 배출될 길을 찾는다. 배고픈 아이는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울부짖으며 발버둥 친다. 그런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내적 욕구에서 출발한 충동은 순간적으로 발견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힘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로를 통해, 아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내적 자극을 종식시키는 충족 체험을 겪은 다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⁴³⁾ 충동은 무의식과 관계가 깊다. 무의식의 소원들은 의식에서 유래한 충동과 결합하여 자신의 높은 강도를 후자의 더욱 미미한 강도에 전이시킬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표현 가능한 활성화된 소원들이다.⁴⁴⁾

충동을 유보시키는 경우 완고함, 히스테리, 강박증, 정신병이 나타난다. 프로이드는 충동을 억압하고자 하며 자신이 의식적으로 표현을 못 하도록 막았을 때 우회로가 있는데 이것이 신체적 행동으로 억압 -즉 신경 경련, 마비, 신경성, 기침, 수축, 환각- 된 것이 표출되는 것이 히스테리가 되고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강박증이며 이도 아니며 현실과 벽이 없어지는 것이 정신병이라는 논리를 피력했다.⁴⁵⁾

프로이드의 리비도 이론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생활의 많은 부분이 기본적 신체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이드는 구강적, 항문적, 성기적 성욕 문제와, 성격 특성의 문제는 어린이의 양육, 대변 훈련, 성적 표명에 책임이 있는 인물과의 문제를 시사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아동과 아동주변에서 양육을 맡고 있는 인물과의 정서양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양식은 지나친 허용이나 억압, 태만, 오용된 위탁으로부터 발전될 수 있다고 한다. 프로이트의 최종적인 리비도이론은 성욕 발달에 관한 이론이다.

나) 리비도와 에디프스 콤플렉스

43) Sigmund Freud, 꿈의 해석. 김인순 역. 서울: 열린책들. 2002. p.664.

44) Ibid. p. 641.

45) 서부희, "리비도 충동의 역동성 -초현식주의 이상의 소설(지주회사)-". "한중인문학 연구, 2009. vol. 60.(재인용)

프로이드는 성적 충동을 리비도라 부르면서 성욕으로써 쾌락의 원리, 배고픔과 마찬가지로 충족을 필요로 하는 욕구라고 했다. 영혼의 삶에서 리비도가 적절히 극복되지 못할 경우 심한 죄의식으로 시달리게 되고, 종교, 윤리 등의 궁극적 원천인 죄의식은 에디프스 콤플렉스에서 생긴다고 했다.⁴⁶⁾ 남자 아이가 모친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부친을 살해하고자 하지만 부친의 존재가 막강하기 때문에 부친살해의 의도를 억압하여야 하는 것이 에디프스 콤플렉스다. 성충동은 곧 리비도를 거부할 때 자아의 전개과정에서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노이로제나 정신질환이 발생한다. 정신장애의 증세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히스테리나 강박 노이로제의 경우 성충동이 자아 충동에 의해서 거부당함으로써 생긴다.⁴⁷⁾

에디프스 콤플렉스는 아동기 감정양식의 하나이며, 그 세부적 형태는 0-6세 까지의 모든 생활환경과 개인차에 따라 달라지는, 극히 개인적인 감정양식이라고 한다. 에디프스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중요한지, 그의 어머니가 유혹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한지,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에디프스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지, 왜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지(Freud, 1924)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데, 임상 관찰에 의하면 에디프스 콤플렉스의 강도, 그 해결의 정도는 부모의 성격과 행동, 예를 들면 어머니의 신체적 유혹, 아버지의 강함과 약함, 아버지의 부재, 형제자매의 유무, 잠자리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한다.⁴⁸⁾ 에디프스 콤플렉스가 핵심감정에 가까운 아동기 정서양식처럼 어머니, 아버지와 상호작용하는 아동의 본능적 성욕에 의해서, 그리고 아동의 성욕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리비도, 에디프스 콤플렉스와 핵심감정

프로이트의 리비도 이론과 에디프스 콤플렉스를 만들어 내는 정신역동에 대한 이해는 아동기 감정양식이나 핵심감정에 가까운 이론 이라고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프로이트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인간 역동적 이

46) Sigmund Freud, *성욕에 관한 에세이*, 김정일 역, 서울: 열린책들, 2004, p. 344.

47) 강영계, “충동과 힘에의 의지.” *인문과학논총* 제34집, 2000, pp.127-128.

48) Leon J saul, *인격형성에 미치는 아동기 감정양식*. pp.17-21.

해로 보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의 외상적 요인을 인정하는 것과 신체적으로 성기기 이전의 활동이 기본적 정서의 토대가 되고, 프로이드가 밝힌 바와 같이 "분석 경험에 의하면 심리적으로 아동은 인간의 아버지이며, 생애 초기 몇 년간의 사건은 이후 이어지는 삶에서 영원히 중요하다"는 평범한 주장이 완전한 진리임을 확신하게 된다(Freud 1940)."는 주장이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Leon J. Saul에 의해 리비도와 에디프스 콤플렉스에 대한 정의가 핵심 감정과 가깝다는 넓은 의미를 갖게 해주었다. Saul은 에디프스 콤플렉스는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나 혹은 부모에 대한 아동의 다른 욕구를 간과할 정도로 성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상황에 적용한다고 했다. 영아와 어린 아동의 가장 큰 욕구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보호와 애정이기에 이들 욕구는 기본적인 것인데 성적인 요소는 이 기본적인 의존적 사랑의 욕구가 위장된 것이다'고 했다. 물론 억압적인 부모 태도 및 문화적 규범과 성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이러한 성적 갈등이 반항과 죄책감, 신경증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힘이라는, 의심할 바 없이 타당한 주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 이외의 기능 역시 부모의 위협과 처벌을 유발하며, 흔히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성격문제 때문에 아이를 처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아이의 적개심과 두려움을 자극한다.'⁴⁹⁾ 는 설명이 훨씬 프로이드의 리비도와 에디프스 콤플렉스가 핵심감정에 가까운 이론임을 뒷받침 해주었다.

왜곡된 아동기 감정 양식이나 핵심 감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리비도적 충동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정신병리를 수정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 혼란을 주고 심각한 부정적 치료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욕장애는 불충분한 아동양육과 불충분한 정서적인 인간관계의 결과다. 문제의 실마리는 정서적으로 중요한 사람에 대한 아동의 감정이라는 것이다. 인격형성에 있어서 성애적인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성애적 욕구만으로는 인격이 이해될 수 없으며, 주요한 정서적 힘과 그 상호작용을 평가함으로써, 즉 주요 역동을 통해서 이해가 가능할 뿐이다.

49) Leon J. Saul, *정신역동적 정신치료*, pp. 69-74.

프로이드의 인간심리학 연구영역 가운데 하나가 아동기 동안 받았던 해로운 감정 영향이 평생동안 지속된다는 아동기 영향과 무의식의 역동과의 연관성이 핵심감정의 형성과 같은 의미임을 볼 수 있다. 핵심역동과 핵심감정의 차이를 보면 핵심역동은 관계성을 의미하고, 핵심감정은 상태를 말한다.

2) 칼 융의 콤플렉스(Komplex, Complex)와 핵심감정

융은 인간심리 연구의 초기에 실시했던 실험적 단어연상검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콤플렉스(Komplex, Complex)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콤플렉스는 분석심리학의 최초의 기초적인 개념과 정신분열증의 심리적 이해와 이에 대한 정신치료를 처음으로 시도 했다고 한다.

가) 콤플렉스의 정의

개인 무의식의 흥미 있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일군의 내용이 모여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융은 그것을 ‘콤플렉스’ 라고 부르게 되었다.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무엇인가에 크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 다른 것은 거의 생각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현대 어법으로 말한다면 ‘무엇인가에 골몰하고 있다’ 는 말이다. 강한 콤플렉스는 본인은 잘 알아차리지 못해도 남은 곧 알아차린다⁵⁰⁾ 고 했다.

콤플렉스는 단순히 정신의 원동력이며, 정신에 추진력, 충동, 활력을 주는 별개의 핵 센터와 같거나, 단순한 정신적 에너지 센터이다. 인간에게 콤플렉스가 전혀 없다면 죽은 것과 같다⁵¹⁾고 했다. 분석 심리학자 이부영은 “콤플렉스란 우리의 사고의 흐름을 휘방 놓고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거나 화를 내게 하거나 또는 우리의 가슴을 찢러 목메게 하는 마음속의 어

50) C. S. Hall, 융 심리학 입문. 최현 옮김, 서울: 범우사, 1985. pp. 46-47.

51) Fraser Boa, The Way of The Dream. 박현순, 이창인 공역. 융학파의 꿈해석, 서울: 학지사, 2004, p.39.

떤 것들이라고 한다. 콤플렉스는 잘 통합된 의식의 질서를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간 교란하고, 이때 사람들은 대개 얼굴이 굳어진다든가 창백해지거나 벌겋게 상기된다든가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문이 막히거나 더듬거리거나 갑자기 횡설수설하는 등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징후를 나타내고, 혹은 나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별안간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성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 어떤 것을 바로 “콤플렉스”라 부르고, 콤플렉스는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흥분하게 되는 이유는 ‘아픈 데를 찔렸거나, 약점을 찔렸다’고 하는 바로 그 ‘아픈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⁵²⁾ 위의 설명은 핵심감정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현상, 즉 느낌 자체를 언어로 잘 설명해주고 있어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부영은 “콤플렉스는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며 무수히 많은 체험이 무수히 많은 콤플렉스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의식을 자극할 때 대개 불쾌한 감정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작용을 일으킨다. 또 다양한 감동을 일으키게 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⁵³⁾”고 했다. ‘콤플렉스란 감정적으로 강조된 심리적 내용 또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심적 요소의 어떤 일정한 군집을 말한다’고 응은 정의한다.⁵⁴⁾

감정적으로 강조된 콤플렉스란 어떤 일정한 정신적 상황의 상이며, 이것은 강렬한 정동을 가지고 있고 일상적인 의식상황이나 의식적 태도와 상용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상은 강한 내적 폐쇄성을 갖추고 있고 그 고유의 전체성을 유지 하는데다가 비교적 고도의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의식적 성향에 거의 지배받지 않으며, 마치 의식계에 살아 있는 생동하는 이물체처럼 움직인다.⁵⁵⁾

52) 이부영, 분석심리학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1978. pp,49-50.

53) 이부영, 분석심리학, -C.G.Jung의 인간심성론-, p.50.

54) (C.G.Jung, Über psychische Enerfetik und das Wesen der Traume,Rascher Zurich,1948,p.131(G.W.Bd.8. Walter Verlag,Oiten).이부영, 분석심리학,-C.G.Jung의 인간심성론,. p. 50.에서 인용.

55)Ibid. p.53.에서 인용.

나) 콤플렉스의 형성

칼 융은 “콤플렉스의 형성은 인간 본성 중의 아동기 초기의 체험보다 훨씬 깊은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콤플렉스는 하나의 핵 요소(Kernelement)를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이 핵 요소는 강한 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정감은 핵 요소가 무의식 속에 있어 자아가 그것을 인식할 수 없으면 그 정감의 정도는 주관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이 핵 요소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인과적으로 환경과 결부된 체험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이며, 다른 하나는 소인적인 성질을 띠고, 그 개체의 성격에 내재하는 조건이다. 핵 요소는 강한 정감이라는 심적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심리적인 여러 요소에 영향을 주어 많은 심리적 내용 가운데서 그 정감의 성격에 맞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선택하여 핵 요소와 결부시킨다. 이와 같이 핵 요소 주변에 여러 심리적 내용을 집결시키고 연결시키는 힘을 핵 요소의 배열력(konstellierende Kraft)이라고 하고 이런 현상을 배열(konstellation)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여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된다.” 56) 고 했다.

융은 콤플렉스의 형성이 프로이드의 무의식적 억압설과 같은 생각을 하였지만, 콤플렉스에는 무의식의 내용에서나 마찬가지로 억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고 한다. 프로이드의 억압설은 무의식 자료에서 나온 고도의 에너지를 지닌 내용을 고려해 놓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의식화가 되지 않거나 큰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의식화되는 것들이라고 분석심리학자 이부영은 융의 이론을 인용했다. 그러므로 콤플렉스는 의식되기 쉬운 것의 억압된 것이거나 아직은 의식되기 어려운 이질적 내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57)

다) 콤플렉스와 핵심감정과의 관계

콤플렉스도 핵심감정의 형성처럼 아동기 초기의 외상성 체험 보다 훨씬

56) (C.G.Jung, Über psychische Enerfetik und das Wesen der Traume, Rascher Zurich, 1948, p.131(G.W.Bd.8. Walter Verlag, Olten). 이부영. 분석심리학, -C.G.Jung의 인간심성론-. p.50-51.에서 인용.

57) 이부영, 분석심리학, -C.G.Jung의 인간심성론-. p.52-53.

싼 깊은 그 무엇으로부터 생기는 같은 개념이다. 콤플렉스의 특징 중에 감정적으로 강조된 심리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심적 요소의 일정한 군집, 또는 하나의 핵 요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강한 정감을 설명한 부분에서 핵심 감정과 관계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정감은 핵 요소가 무의식 속에 있어 자아가 그것을 인식할 수 없으면 그 정감의 정도는 주관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특수한 심리학적 방법으로 파악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핵 요소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인과적으로 환경과 결부된 체험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이며, 다른 하나는 소인적인 성질을 띤, 그 개체의 성격에 내재하는 조건이다. 핵 요소는 강한 정감이라는 심적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심리적인 여러 요소에 영향을 주어 많은 심리적 내용 가운데서 그 정감의 성격에 맞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선택하여 핵 요소와 결부시킨다.

융의 콤플렉스는 핵심 감정과 연결되는 중요한 개념이며 핵심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정리해 본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보면 핵심 감정이 콤플렉스 보다 형성 시기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고, 더 깊이 깔려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Leon J. Saul⁵⁸⁾의 아동기 감정양식과 핵심 감정

Leon J. Saul은 진정한 분석가란 환자의 증상과 인격의 장점과 취약점을 만들어내는 감정적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사람이며, 정신분석이란, 가장 중요한 성격 형성기인 아동기 동안 발달을 왜곡시켰던 부정적 영향들이 성격에 미친 결과를 교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⁵⁹⁾ 아동기 감정양식의 지배는 항상 선택범위의 제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소암 이 동식은 서양 치료에서의 표현 중 핵심 감정에 제일 가까운 것이 Leon J. Saul의 핵심적인 감정 군(nuclear emotional constellation) 이라고 했다. Leon J. Saul 핵심적인 감정군(nuclear emotional constellatio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핵심

58)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Saul 또는 L. Saul은 Leon J. Saul을 지칭한다.

59) Leon J. Saul, *Psychodynamically Based Psychotherapy*. . 정신역동적 정신치료, p.43.

적인 감정 군을 아동기 감정양식(The Childhood Emotional Pattern)으로 정의하고, 아동기 감정양식(The Childhood Emotional Pattern)은 운명과도 같아, 이 운명적인 힘이 삶 전체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다.

Saul이 말하는 아동기 감정양식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아동기 감정양식의 형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아동기 감정 양식과 핵심감정과 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가) 아동기 감정양식의 요소들

Leon J. Saul은 정서 문제 발생의 6 가지 주요 요소들(아동기의 생태적 욕구, 아동기의 타인과의 관계, 에디프스의 형제자매 상황, 아동에 대한 조건화의 영향, 정상적 욕구의 왜곡, 핵심적 양식과 성인기의 경험)은 모두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 동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이 5-6세 될 무렵이면 그 핵심 요소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전제한다고 했다.⁶⁰⁾

(1) 아동기의 생태적 욕구

Saul은 “아동은 특정한 선천적인 욕구, 충동, 반응성향을 갖고 태어나며,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욕구들도 발달한다. 유기체가 필요로 하는 요소로써는 어머니의 사랑, 애정의 표현, 어머니로부터 받는 안정감, 그리고 어머니와 환경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 아동의 욕동과 욕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체적 의존, 사랑에 대한 투쟁-도피 반응, 활동 지향적 충동, 감각적 충족, 호기심, 그리고 동일시 능력을 들 수 있다”⁶¹⁾ 고 했다.

(2) 아동의 타인과의 관계

Saul은 아동의 욕동, 욕구, 반응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부모, 형제, 자매, 이들의 대리인, 아동에게 책임이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

60) Ibid. p.44.

61) Ibid. pp.44-45.

재한다. 신생아에 있어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최초의 관계이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서, 전 생애를 통하여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린 시절의 어머니다. 임신, 분만, 수유과정을 통한 어머니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이다. 이는 또한 아버지나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형성시키고 발달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⁶²⁾고 했다.

(3) 에디프스와 형제자매 상황

Saul은 욕구, 욕동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반응에 따라 어린이는 어떤 전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것은 문화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전형적으로 형제간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에서는 형제들 사이에서 동기의 상호교환(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이 일어난다. 젖을 빨며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관계를 맺는 전 에디프스 시기와 2,3세에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는 에디프스기에는 색정적 성격을 띤 애착, 갈망, 경쟁, 적대감들이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은 욕동의 본질상,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린이의 애착의 결과로 불가피한 상황이다. 어린이는 어머니에게 애착을 느끼고 어머니의 사랑을 원하므로 주변 사람들 모두가 경쟁자로 보이게 되고, 그 결과 투쟁-도피 반응이 야기된다. 이때는 애착을 갖는 사람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즉, 어머니까지도 경쟁자가 될 수 있다⁶³⁾고 말한다.

(4) 아동에 대한 조건화의 영향

Saul은 정서문제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는 어린이가 취급받는 방식(조건화의 영향, 외상적인 힘)이 있다. 어린이의 모든 소망과 욕구가 충족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의 안정감의 욕구는 채워지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심각할 정도로 결핍될 수도 있다. 부모가 원하던 성별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관심, 방임, 지나치게 지배당하거나, 버림받음, 냉대, 학대, 작은 인간으로 존중 받지 못함, 과잉보호, 보호결여, 지배, 미

62) Ibid. p.46.

63) Ibid. pp. 46-47.

사회화나 과잉 사회화 등의 조건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궁극적으로 해로운 것은 매우 어린 시절에 겪는 지속적인 정서적 외상이다. 부모가 경쟁자인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고, 어린이를 너무 품에 끼고 있어서 애착감을 조장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아동의 특성과 부모, 형제자매들과의 애착 및 경쟁의 정서적 문제를 잘못 이해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⁶⁴⁾라고 말한다.

(5) 정상적 욕구의 왜곡

Leon J. Saul은 정상적인 욕구의 왜곡은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일생동안 지속되는 타인에 대한 태도와 감정양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 아동이 다루어지고 조건화되는 방식에 따라 개인의 초자아가 형성된다. 아동기에 정서적으로 중요했던 인물들의 인상이 일생동안 마음속에 남게 된다. 이러한 인상을 타인에게 투사시킨다. 어린 시절 대인관계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전 일생동안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계속된다⁶⁵⁾고 주장한다.

(6) 핵심적 양식과 성인기의 경험

각각의 개인은 깊이 자리 잡은 동기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일관성 있는 것으로서 타인과 구별된다. 이렇게 밑바탕에 내재된 기본양식을 성격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 핵심적 양식은 동기에 대해 수용자, 통합자, 중재자, 행정자 역할을 하는 자아가 개입한 결과 원본능과 초자아로부터 형성된다. 전체적 핵심양식은 방어기제, 보상, 승화, 그리고 정신병리적, 유아적인 것을 통제하고 극복하려는 노력 등 성숙한 동기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⁶⁶⁾

Saul은 정신역동적 공식을 두 가지요소, 즉 적절한 성숙, 적절한 적응을 내포한다고 했다. 감정적 성숙이란 부모에게 의지하는 유아적인 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나 상대적으로 독립해 나아가는 상대적인 발달의 성취이며,

64) Ibid. pp. 47-48.

65) Ibid, p.48.

66) Ibid.

성숙이란 사랑에 대한 어린이의 강력한 욕구로부터 벗어나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는 것이며 극단적인 자아도취와 경쟁심으로부터 벗어나 대상에게 관심을 베풀고, 아버지, 어머니와의 동일시, 형제자매와의 동일시에 의해 서로 의지해 가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현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확한 지각이 생기고, 지나친 좌절 없이, 지나친 투쟁-도피 반응으로 인한 부당한 적개심과 퇴행 없이, 현실과 조화롭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융통성이 생기게 된다고 했다.⁶⁷⁾

나) 아동기 감정양식의 형성

인간에 있어서 일생동안 지속되는 감정양식이 어릴 때 성격이 조형되는 시기 동안에 형성된다는 사실은 민속 속담과, 철학자와 소설가, 시인들에 의해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아동기의 감정 양식은 어머니, 아버지와 상호작용하는 아동의 본능적 성욕에 의해서, 그리고 아동의 성욕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동기 감정양식의 하나이며, 그 세부적 형태는 0-6세 까지의 모든 생활환경과 개인차에 따라 달라지는, 극히 개인적인 감정양식이라는 것도 여러 이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들이다.

L Saul은 아동기 감정 양식 또는 핵심적인 감정적 결정은 어린이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과의 감정적 상호교류 양식이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해야하는데, 이러한 아동기양식은 특히 0-6세 사이에서 형성된다⁶⁸⁾고 했다. "감정 양식(Emotional Pattern)"이란 에이디프스기 양식 또는 전에디프스기 양식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는 적절한 용어이며, 이 용어는 프로이드가 강조한 본능을 다루는 자아의 어려움과 다른 분석가들이 강조한 신경증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환경의 영향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론에 동조한다.

아동기에 형성된 부정적 감정 양식은 그 이후 만나게 되는 환경을 그

67) Leon J Saul, *인격형성에 미치는 아동기 감정양식*, pp. 24-26.

68) Leon J. Saul, *인격형성에 미치는 아동기 감정양식*, p.28. (Saul, 1971, pp.186-1890 재인용)

감정 양식의 틀로 바라보며 그렇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진 환경은 본능적 힘을 강화시킴으로써 자아는 약해지고, 약한 자아는 후기에 나타날 정신병리, 즉, 핵심적 정신병리 없이는 본능적 힘을 조절할 수 없게 된다. 이거서 말하는 양식이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어떤 평형상태에서의 역동적인 감정 세력의 균형이다. 일종의 원형에 가까운 힘을 갖는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특히 아동기 감정 양식이 틀을 형성하는 6세 이전의 배척, 박탈, 과잉보호, 유혹, 죄의식, 수치감을 유도하는 정신적 취급은 아동의 자아를 약하게 만들어 자아가 발달하지 못한다. 신체적 위협 및 학대, 또는 이러한 점들의 혼합, 그리고 또 다른 태만이나 과실에 의한 잘못된 양육방식이 신경증적 감정세력의 상호작용 양식을 만들고 이러한 양식은 일생동안 지속되는데 어린이의 약한 자아는 이러한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아동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하기 못하기 때문에 더욱 단단한 감정 양식으로 자리 잡는다.

L. Saul은 임신기부터 성장하는 유기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출생 당시부터 어린이는 선천적인 본능적 충동과 반응에 따라 그를 양육하고 그 곁에 가까이 있는 인물과도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6-7세에 이르러 그 기초가 어느 정도 고정되는 양식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개인에게 독특한 것이다. 초기 생활에서 형성된, 타인과의 상호작용 양식은 나머지 생활동안 그 핵심이 변화되지 않고 지속된다. 만약 이러한 양식에 문제가 되는 인간관계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면, 이러한 양식은 정신병리의 핵심을 이루고, 양식이 바람직한 경우라면 성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성인 행동에 영향을 준다. 아동기의 가장 중요했던 인물에 대한 감정양식은 인생과정에서 다른 개인에게 전이된다⁶⁹⁾고 말한다.

“아동기 감정 양식 형성의 세부적 과정(학습, 조건화, 이마고)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본적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며, 조건화, 학습, 또는 정신분석 구조론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아동기 감정 양식의 형성은 세부적 과

69) Ibid, pp. 27-30.

정의 경험이 기초가 되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핵심은 '건강한 이미지'의 형성이다. 어린이는 감정적으로 중요했던 인물이 그를 취급한 양식에 어떤 방식으로든 적응하며, 무의식적으로 동일한 양식을 항상 유지시킨다.” 70)

다) 아동기 감정양식의 발달과 발견

(1) 아동기 양식을 발견하는 시기

Leon Saul은 초기의 첫 회 면담에서 환자의 진단과 주요 역동, 특히 환자의 고통과 증상을 야기 시킨 정신병리적 역동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화되어야 역동적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2) 아동기 양식을 발견하는 방식

L. Saul은 환자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면서 주된 문제의 발현시기, 경과, 그 당시의 주변 환경, 그리고 가능한 유발 환경을 확실히 밝혀간다. 환자의 현재의 감정양식, 환자의 “생활 방식”을 포함한 직업, 취미에 대한 주요한 리비도의 투자, 그리고 전형적인 하루 일과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환자에게 아동기 감정 배경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잠시 동안 그의 이야기를 중단시켜야 되겠다고 부드럽게 이야기 한다. “출생 후 6세나 7세까지의 생활에서 당신의 주요한 감정 특징은 무엇인가? 감정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나?” 질문한다. 또한 최초의 기억과 꿈(반복되는 꿈, 아동기의 꿈, 현재까지 계속되는 꿈)에 대한 질문도 자연스럽게 뒤따른다고 한다.

아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첫 단계는 적절한 시기에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 같은 애착을 유지하기 위해 어머니 또는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

70) Ibid. p. 34.

대한 반응을 학습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사랑과 따스한 보살핌을 베푼다면 아기는 어머니의 이미지(이마고)를 사랑이 넘치고 자신을 돌보아주는 상으로 형성하고 그 관계에 대해 기쁨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박탈감을 안겨주고 애정이 없는데다 엄하기까지 하다면, 아기는 위협적이고 좌절감으로 가득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갖게 되고 갈등에 빠지고 만다. 아기는 어머니의 보호와 사랑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아기의 욕구는 억누를 수가 없다. 그런데 어머니의 존재가 심신의 고통을 야기한다면 아기는 위축되고 분노한다(투쟁과 도피의 충동으로 반응한다). 이 같은 이미지와 반응양식은 한번 형성되면 아이의 나머지 성격이 얼마나 제대로 발달하였는가와는 무관하게 일생 동안 유지된다. 이러한 반응과정의 발달은 학습 즉 일종의 조건화의 형식을 취한다. 사랑과 기쁨을 유지하고 거부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어린이는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반응양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내 영구적으로 되어 버린다.

아동기 감정양식(The Childhood Emotional Pattern)은 성격 핵심에 있는 동기와 반응의 복합체는 여섯 살에서 일곱 살 정도에 거의 모습을 갖추게 되며, 출생 후 몇 시간, 며칠, 몇 주, 몇 개월 내에 최초의 각인(애착의 전문 용어와 비슷한 의미)이 이루어지고 난 후, 처음 6년간(즉, 갓 태어나서 6세까지)은 결정적인 시기가 된다. 아이의 성격성장을 위해 이 시기에 받은 사랑, 안정감, 존중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이들, 또는 실제적으로 유해한 대우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성격의 나머지 부분이 아무리 잘 성숙되었다 하더라도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 일생 동안 잘못된 감정양식을 가지게 된다.

모든 성격은 그 핵심을 간단하게 기술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격렬한 감정들이 뒤얽혀 있으나, 이들 핵심적인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다양하지는 않으며, 다만 너무나 다양한 결합을 통해 개개인의 성격을 독특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정서적 문제에는 여섯 가지 정도의 힘이 내재하거나 또는 두드러지게 관찰되는데, 즉 의존 대 독립, 사랑 받으려는 욕구 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열등감 대 이기주의, 경쟁심과 권력욕 대 이상과 양심, 적개심과 폭력 대 현실 파악, 성욕 등이 그것이다.⁷¹⁾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들 주된 정서적 힘들은 흔히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의존과 사랑에 대한 욕구는 서로 중복되어 양자 모두 성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허용심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열등감-자기애-경쟁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사랑 받으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사람들은 또한 지배-복종의 문제에 휩싸인다. 이리하여 모든 좌절은 투쟁-도피 반응을 야기하게 된다. 작고 약하고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모든 어린이들이 앞서 말한 힘들과 함께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또 다른 힘들, 자존심에 대한 욕구 같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의존적 사랑의 욕구는 성인이 되어서 수치심과 분노를 가져오게 된다. 의존적 사랑의 욕구가 좌절되었다면 더욱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하여 엄청난 경쟁과 그 밖의 여러 가지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⁷²⁾

라) 아동기 감정양식과 핵심감정과의 관계

Saul의 아동기 감정양식은 핵심감정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연구과정이 되었다. 아동기 감정양식의 6가지 요소들과 형성 배경은 핵심감정을 연구하는데 더 깊이 있고 넓게 연구하는 자료가 되었으며, 다만 명명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아동기 감정 패턴이 핵심감정, 즉 느낌 자체를 말로 설명할 수 있게 하고 자각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본다. 마음에 거리끼는 것으로 인한 그 느낌 자체를 설명하기 힘들 때 아동기 감정패턴을 파악하는 작업을 집중하다 보면 핵심감정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서로 협력 관계가 되는 것이다.⁷³⁾ Saul이 설명하

71) Leon J. Saul Emotional Maturity. 3rd., Philadelphia: Lippincott. 1971.

72) The Childhood Emotional Pattern in Marriage번역 p.12.

73) Saul은 다음과 같이 치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병리역동적 아동기 양식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며 이러한 양식은 생활속의 감정 사고, 행동면에서 그리고 전이에서 (1)어떤 방식으로 (2) 얼마나 집중적으로, 또는 확산적으로 전체 인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역동내에서 투쟁-도피반응, 적개심과 의존, 퇴행 경향성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며 어떻게 이러한 양식이 환자의 증상과 고통을 야기시키는가? 이러한 역동진단 공식화는 지남력, 이해, 치료에 유용하고, 장기 분석 동안 재검토 면담시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일부 환자들은 이러한 진단방식을 치료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들 자신의 정신역동을 공식화하는 지침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될 수 있다. 아동기 양식을 형성하는 세부적 과정이 무엇이든지간에, 기본적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며, 조건화, 학습, 또는 정신분석 구조론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핵심은 건강한 “이미지”의 형성이다. 어린이는 그에게 감정적으로 중요했던 인물이 그를 취급한 양식에 어떤

고 있는 아동기 감정 양식은 핵심감정을 설명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 폭넓고 깊이 있는 탄탄한 이론으로 뒷 받침해주고 있다고 본다.

4) 소암 이 동식⁷⁴⁾의 도정신치료와 핵심감정

도정신치료는 바로 핵심감정을 치료하는 이론이다. 본론 전문에서 설명한 핵심감정에 대한 이론은 도정신치료에서 나온 것이다. 소암 이동식이 개발한 도정신치료에 관한 연구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도정신치료⁷⁵⁾는 치료자의 인격으로써 얼은 땅에서 떨고 있는 환자에게 봄을 가져다주는 것이며, 동양의 도와 서양의 정신치료를 융합한 정신치료로서 소암 이 동식 선생이 주창했다. 도정신치료의 뿌리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감정 처리 여하에 달렸고, 자기를 비하하고 말살하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주체성을 회복하는 데 달렸다고 했다. 도정신치료는 애응지물의 배후에 있는 핵심감정을 마음에서 덜어냄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했으며, 치료의 세 가지 키워드는 핵심감정, 정심(핵심감정의 제거), 자비심(공감)이다.⁷⁶⁾

이 장은 서양의 정신치료를 배움으로써 도정신치료를 더 잘 이해하듯이, 기독교 정신역동 치료는 두 정신치료 융합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은총인 창조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료개입을 연구하는데 있다.

가) 도정신치료의 핵심

(1) 감정

방식으로든 적응하며, 무의식적으로 동일한 양식을 항상 유지시킨다.

74) 일제 때 대구의전을 거쳐 미국에서 정신분석을 공부해 박사 학위를 딴 우리나라 정신의학계의 1세대이다. 그러나 동양의 전통이 서양의 정신분석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깨닫고 60년대부터 승산, 월운 스님 등에게서 불교를 배우는 것을 비롯해 유교, 도가 등 동양 전통을 공부했다. 이를 임상에 적용해 '도정신치료'를 정리한 그는 79년 한국정신치료학회를 창립해 후학들을 기르고 이를 세계에 알려왔다

75) 도정신치료란 명칭은 2001년 4월1일 한국정신치료학회에서 '도 정신치료 소개' 라는 강좌를 개설 공식적으로 '도정신치료' 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2002년 8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세계정신의학회에서 '도정신치료' 란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이동식, *도정신치료 입문 -프로이드와 융을 넘어서*. p. 554.)

76) 이동식, *도정신치료 입문*. pp.17-28.

이동식은 도정신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며, 치료자의 감정이 환자의 감정을 치료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감정(정서)에 관한 것은 똑같이 서양정신치료에서도 강조되지만, 서양의 치료자들은 정신 장애를 ‘정서 장애’ 즉 감정의 장애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환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주의 깊게 다루지 않는 것 같다고 했으며, 감정을 다루는 경우에도 지적으로 감정을 다루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도정신치료와 서양 정신치료가 감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프로이드, Leon J. Saul⁷⁷⁾이나 Walter Bonime,⁷⁸⁾ Marianne H. Eckhardt⁷⁹⁾ 처럼 감정을 중요시하는 서양정신치료자들도 도정신치료와 나아가는 방향이 같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동식은 주장하기를, 감정을 중요시하는 도정신치료의 원리는 신경증이나 정신병이나 정신신체 질환 등 모든 종류의 정신 장애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한다. 단지 고려되어야 할 점은 인격의 발달 단계상 어느 시점에 정서적 상처를 입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점은 서양 정신치료에서도 함께 강조되어지고 있는 ‘자아 강도’의 정도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 환자를 치료를 할 때를 이다 라는 것이다. 도정신치료에서는 모든 정신 장애 환자에게 공히, 환자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아무리 심한 정신병 환자라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을 자각하는 순간,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이동식은 강조한다.⁸⁰⁾

(2) 핵심감정과 중심역동

‘서양분석이나 정신치료에 있어서 콤플렉스(용), 중심 갈등, 중심적 문제, 중심역동, 핵심역동, 주동기, 핵심감정군(nuclear emotional cinstellation), 소아기 정서적 패턴, 중핵감정 등은 수많은 개념을 말하고

77) Leon J. Saul, Childhood Emotional Pattern: The Key to Personality, Its Disorders and Therapy.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1977.

78) Walter Bonime. The Clinical Use of Dreams. New York. Basic Books;1962.

79) Marianne H. Eckhardt.Intuition and Psychoanalysis: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Forum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oanalysis;1992.

80) 이동식, *도정신치료 이론*, pp.554-555.

객관적인 기술이지만, 핵심감정은 주관적 또는 주체적으로 느끼는 감정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동식은 1970년 학술 잡지 ‘최신의학’ 제 13권 9호에 발표한 논문, ‘한국인 정신치료에 관한 연구’에서 환자의 일생에 걸쳐 매 순간마다 그의 마음과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하고 있는 환자의 ‘핵심감정’을 파악하고 극복하는 것이 정신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동식은 말하기를 핵심감정은 대혜선사가 말한 애응지물, 즉 ‘마음에 거리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서양치료자들이 말하는 용어는 객관적인 관찰과 설명에 따른 개념들인 반면에 이동식이 주장하는 ‘핵심감정’은 치료자가 주객일치 상태의 성숙한 인격을 통한 치료자의 완벽한 공감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환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환자의 주관적인 핵심감정을 치료자가 공감해서 극복하는 정신치료 과정을 참선 수행 시에 깨달음의 과정을 전통적으로 묘사한 십우도와 대비해서 설명하였는데, 이동식은 핵심감정이 바로 참선 수행과정을 묘사한 십우도(十牛圖⁸¹⁾의 소와 같다'고 주장한다.⁸²⁾

(3) 도정신치료에서 자비심

도정신치료에서 최고의 치료자의 핵심은 자비慈悲라는 붓이며, 유교에서는 인仁이라고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도정신치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 한 가지는 '정신치료자가 어떻게 하면 환자의 핵심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치료자가 환자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정신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며, 서양치료에 비해 도정신치료에서 매우 강조되고 대조되어지는 점이다. 치료자는 자비심이 있어야 하며, 환자를 자비심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자비심은 현존재분석에서 말하는 "존재에 대한 관심, 즉, 만나는 모든 존재에 대한 보살핌"에 해당하는

81) 십우도(十牛圖)란 참선의 과정을 말한다.(이동식, 도정신치료 입문, p.34. 참조)

82) 이동식, 도정신치료 입문, pp.555-556.

다. 또한 그것은 페루의 정신치료자 Seguin이 말하는 '정신치료적 에로스'와 제롬 프랑크가 말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진정한 마음'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도정신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는 점 중의 하나가 '정신치료자가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비심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달리 말하면, 치료자가 어떻게 하면 환자의 감정을 완전히 공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치료자는 정심淨心을 통하여 자신의 핵심감정을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되어지는 점이다.⁸³⁾

나) 도정신치료와 서양 정신치료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동식은 그의 논문, “도, 정신분석 그리고 실존사상”에서 동양의 도와 정신분석 그리고 실존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동양의 도와 서양 정신치료/정신분석의 목표를 비교했는데, 그 목표는 같으나 단지 그 수준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선생은 정신분석과 참선 수행의 과정을 비교하였는데, 어느 지점까지는 그 과정이 같다고 했다.⁸⁴⁾

소크라테스가 죽고 플라톤 이후 서양의 전통은, 마음의 정화(catharsis)를 지적인 추구(이론 구성)로 하려고 했고, 반면에 동양에서는 도를 닦음으로써 마음을 정화하려고 노력해왔다. 여기서 동과 서가 완전히 갈라서게 된 것이다. 동양에서는 도를 닦는 전통으로 나아가고 (현실 지향적), 서양에서는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전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점이 동서 전통의 근본적인 차이다 라고 했다.

동서양의 전통 즉, 이론과 현실에 관한 견해를 보면, 플라톤의 대화의 '파이돈'에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했다. 육체는 감각, 쾌락과 감정이고 이것은 착각을 일으키는 육체의 족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진리(지혜, 현실 등)에 이르려면 죽어야 하며, 죽음으로써 진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죽는다.⁸⁵⁾

83) Ibid, pp.556-557.

84) Ibid, pp.557-558.

85) 밝은 정신과 허찬희 박사 논문, 동정신치료와 서양정신치료 국제포럼, 2004. 8. 21. 발표

(1) 전이와 핵심감정

전이와 핵심감정을 보면 정신분석에서는 환자의 전이 감정에 대한 이해와 해결이 가장 중요한데, 도 정신치료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다시 말하면, 전이를 어떻게 다루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동식은 주장하기를, 도 정신치료에서는 말 그대로 전이감정 중에도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감정을 공감하고 해결한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전이란 핵심감정을 전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전이나 핵심감정은 둘 다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도 정신치료에서는 그 핵심 되는 감정에 보다 확실하게 초점을 둔다. 이것이 바로 도 정신치료와 서양 정신치료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⁸⁶⁾

(2) 해석과 직지인심(直指人心)

해석과 직지인심(直指人心) 서양 정신분석에서 ‘해석은 고통스런 내용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환자에게 공감하고 관심과 사랑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가장 이상적인 해석은, 환자의 의식 가까이와 있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해석이라는 견해 즉, 환자가 거의 자각하고 있지만 환자가 보고하지 않은 것을 해석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 정신치료에서도 해석은 보고하지 않은 환자의 마음을 바로 지적해주는 것이고(直指人心), 치료자가 주객일치 상태에서의 완벽한 공감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⁸⁷⁾

강석현은⁸⁸⁾ (1996) 그의 논문, “동서양 정신치료의 통합: 이동식의 경우” 에서 이 선생의 정신치료에서 해석의 특징에 대해 몇 가지 설명하였다. 그는 기술하기를, 이 선생의 해석은 ‘살활殺活’ 이 있으며 환자를 ‘죽였다가 살리는 방법’ 이라고 했다. 살활殺活의 방법은 선사禪師들이 제

86) Ibid, p.558.

87) Ibid. pp.558-559.

88) Kang SH.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Psychotherapy; Professor Rhee Dongshick's Case. Paper Presented to First Meeting of the Asia Pacific Association of Psychotherapy;1996 Oct 27; Bali, Indonesia.

자들의 망상이나 분별심을 끊어 주기 위해 보통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이 선생의 해석의 특징을 지적하기를, 선생이 해석은 환자의 의중심과 적개심의 뿌리를 다루고 해결한다고 했으며, 또는 내담자에게 편안하게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자극을 준다고도 했다.

(3) 중립성과 저항

중립성과 저항에서도 프로이드는 실제로 ‘중립성’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으나 Strachey가 독어 *indifferenz*를 그렇게 번역했다. 프로이트는 다른 동료들이 치료자 자신의 문제를 역전이하거나, 치료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분석 상황을 잘못 이용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를 해서 이러한 개념을 사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정신치료와 정신분석은 비슷하다. 프로이트에게 분석 받은 사람들이나 그의 저서를 통해서 볼 때, 프로이트 자신의 인격이 분석과정에서 매우 깊숙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듯이, 이 선생의 도정신치료에서도 치료자의 성숙한 인격의 적극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신분석에서의 ‘저항’이란 개념에 대해서 이 선생은 주장하기를, 그 개념은 치료자의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치료자-중심 개념이라고 한다. 단지 환자의 주관적이고 내적인 경험만이 치료자가 고려해야 할 유일한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89)

89) 이동식, *도정신치료 입문*, p.559.

3. 핵심감정(nuclear feelings)의 종류와 가인에게 나타나는 핵심감정

창세기 연구에서 주요 인물인 가인의 이야기는 처음으로 창조된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린 내용과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제사를 드린 가인의 반응, 그리고 살인,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활동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성서적 자료가 빈약하다. 특히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제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 이후 가인의 모습과 그 모습을 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인의 동생 살해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지는데 가인의 살해 동기를 밝혀낼 만한 성서 자료가 없다. 지금까지 가인의 살해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렇지만 대부분 신학적인 답을 찾는데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제물의 열납에 관한 것은 4:4b-5에 나오는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리고 그의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는 구절이 유일한 단서다. 이곳에서 성서 기자는 제물에 앞서 아벨과 가인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 즉 단순히 땅의 소출이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든 제물이 열납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부분은 문서설에 따르면 J 기자의 글로 분류되는데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같이 언급함으로써 J 기자의 신학을 엿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을 먼저 받으신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제물보다 드리는 자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⁹⁰⁾

즉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가인의 인격이 제물을 바치기에 부적합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4:7a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구절을 통해서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암시를 하는 듯 하다. 예수께서 마 5장 23-24절에 제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가 네게 원한을 품은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나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 한 후에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다. 예수

90) 성문경, “원역사에 나타난 J기자의 신학: 창조, 죄의 침입과 증대에 대한 본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2, p.41.

께서 제물이 아니라 제물 드리는 자의 삶이 먼저라는 말씀이다.

그런데 성서에 가인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 몇 가지 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성서 기록과 인간의 원형으로써 가인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핵심감정을 살펴보고 한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배경과 그리고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따른 가인의 반응이 연구의 주제인 핵심감정이라 하겠다.

가. 제사와 가인의 핵심욕구

가인은 왜 제사를 드렸는가? 누가 가인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가? 가인의 제사에는 이 두 가지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가인의 제사는 성서에 제사법이 주어지기 이전으로 자발적 행위로 보인다. 그럼 가인은 왜 제사를 지냈을까? 제사의 기원에 대한 명백한 선언이 문자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인은 제사를 드렸다. 왜 가인이 제사 충동을 느꼈는지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일반적인 제사의 기원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영국의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베네트 타일러는 제사는 본래 신들의 총애를 받고 신들의 적대감을 줄이기 위해 신들에게 바치던 선물이었다는 데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신에 대한 존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⁹¹⁾ 여기서는 제사와 종교의 기원을 간단하게 다룸으로 가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핵심감정의 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다.

이 두 사람이 드린 제사는 똑같이 히브리어 ‘미느하’로 표현되고 있다. ‘미느하’는 ‘선물’이라는 뜻과 ‘소제’ (소제, cereal offering)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다.⁹²⁾ 그럼 왜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지냈을까?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서의 제사 제도와 주변 문화를 볼 때에 다음과 같이 분류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유지하고 정결하

91) 이영자, “구약 제사의 희생 제물과 그리스도와의 연관성,” 안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p.4.

92) 강성렬, “설교자를 위한 창세기 강해: 처음 살인과 아담의 후손,” 그말씀, 1993 5월호, p.89.

게 하기 위해서 행해졌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계약에서 제도화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통합하는 수단으로 존재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제사란 속죄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인간이 제사라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거나 제사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이스라엘인들 실생활과 매우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 다른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은 틀림없다.⁹³⁾ 제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개념은 ‘하나님께로 가는 수단’ 이라고 할 수 있다. 레위기는 제사장이 주관하는 제사제도를 통해 우리를 이끌고 있다.⁹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⁹⁵⁾ 물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제사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1) 죄책감으로서의 제사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은 속죄제, 속건제의 추가가 포로기 시대의 죄의식과 제의를 통한 죄씻음의 소망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보아, 제 2 성전 시기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속죄제와 속건제가 포로기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었다고 하였으나 왕하 12:17, 호 4:8 등에 이미 언급되었으며, 정결제사는 근동지역(특히 히타이트 -후리, 시리아)신전에서 일반적이었다는 점들을 들어 바인펠트는 벨하우젠의 입장을 반대하였다. 시기는 달리 하지만 두 학자는 제사를 드린 의미가 죄의 씻음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⁹⁶⁾

창세기 3장 2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이 범죄 후 맨 처음 은혜를 입은 내용인데 가죽옷은 짐승이 죽지 않고는 만들 수 없는 것으로 동물에서 가죽을 얻으려면 동물의 생명을 앗아가야 한다. 여기서 가죽 옷은 ‘속죄’ 라는 말의 어근과 같은 ‘가리우다’ 또는 ‘덮는다’ 는 뜻으로 구약제

93) Th. C. Vriezen, *구약신학 개요*, 노항규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p. 326.

94) 전인호, “구약에 나타난 제사 제도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논문, 안양대학교 신학 대학원, 1999, p. 8.

95) 배제민, *새로운 형태의 구약 연구*, 서울: 총신대, 1982, p.166.

96) 이원식, “모세오경의 문서가설에 관한 연구, ” 대구: 영남신학대학교, 1993. p. 25.

사의 핵심인 성막의 ‘속죄소’ 라는 말이 여기에 기원하고 있다.⁹⁷⁾

그러나 가인과 아벨이 특별한 죄를 지었다는 언급이 없고, 또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타고난 원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설정은 무리가 있다. 가인이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타락한 이후 있어야 하는데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소득을 얻은 후에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아 가인의 제사는 죄 씻음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인다.

2) 감사의 제사

일반적으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물로 드렸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레위기에 나타난 어떤 의미의 제사보다 감사제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제사가 오늘날 추수감사제처럼 일정한 시기에 국한된 제사로 보기는 어렵다.⁹⁸⁾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수확을 한 후에 음식을 주신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낸 것이 발견된다. 스코틀랜드 썸족학자인 로버트슨 스미스(W. Robertson Smith, 1912-1955)는 제사는 수렵과 채취로 음식을 자연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 음식을 제공자인 신에게 채취한 식물을 존경과 감사의 선물로 드리는 것이 본래적 기원이었다고 하였다.⁹⁹⁾ 가인과 아벨이 각자 얻은 소득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으로 보아 감사제의 성격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성서의 감사제는 이제껏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3)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Jamla Wam Jansla은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믿으려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으려는 의지와 구약 성서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상통

97) 박철수, *성경의 제사*, 서울:풍만, 1988, p. 77.

98) 윤용진,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 소소, 개혁신학, Vol. 12, 장로회 신학대학교 세계 선교 연구원, 2002, p. 11.

99) Encyclopedia Britannica, "Eseph Henninger Sacrifice" p. 29.

하며, 이 믿으려는 마음의 충동에 의해 인간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겨 왔다고 말했다.¹⁰⁰⁾ 인간이란 본래부터 바깥 세계인 우주와 동시에 안에 있는 자기라는 세계를 향하여 '안팎으로 열려진 존재'이다.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우주와 자기를 감싸 안고 조화시키고 있는 영원하고 무한한 지혜와 사랑에 마음을 열고 그곳으로 향하고자 한다. 인간이 자기 본성에 들어 있는 가능성을 건전하게 실현하여 진실한 자기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궁극적 실재의 영원한 지혜와 사랑의 작용에 자신을 송두리째 맡기고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류의 장(場)이 진실한 자기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종교성이다.¹⁰¹⁾

본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제사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가인은 제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을 수 있고, 사랑받고 싶었지만 거절당하자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비교 대상이 된 아벨에 대한 시기심, 경쟁심, 적개심이 생겼으며 결국 공격성이 나타났다. 인간은 사랑받고 싶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이 욕망이 거절당할 때에 인간의 핵심감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나. 핵심감정의 기본 욕구

이동식이 주장하는 핵심감정 즉 엄밀히 말하면 핵심감정은 주관적 입장에서 느끼는 무의식 수준의 부정적 감정인데 이 느낌을 객관적 입장으로 개념을 기술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동식이 인정한 서양 치료의 표현 중 핵심감정에 제일 가까운 Leon J Saul의 핵심적인 감정군(nuclear emotional constellation)¹⁰²⁾의 표현을 조사하여 핵심감정의 종류를 기술하려고 한다.

의존욕구, 애정욕구, 집착, 애응지물, 사적인욕구 이런 것들의 밑에

100) 송흥국, *기독교와 세계 종교*, 서울: 한국 문서선교회, 1987, p. 14.

101) 박일영, "종교의 기원," 학술지 *인간연구*, 호3,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2.

102) 이동식, *도정신치료입문*, p. 49.

깔린 느낌 자체가 다 핵심감정 이라고 할 수 있다. Leon J Saul은 다음과 같이 아동기의 감정패턴 즉 이동식이 말하는 핵심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구분 한 것으로 기술하려고 한다.

1) 독립심과 의존욕구에 나타나는 핵심감정

가) 일반론

프로이드와 Franz Alexander¹⁰³⁾가 강조해 온 것처럼 인간의 발달과정은 기생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 태아기에서부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책임감을 지닌 독립된 부모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한다. 태아는 모체에 기생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수유기 또한 거의 기생해서 산다. 걷고, 말하고, 움직임을 조절하고, 현실을 인식하고, 사고를 발달시켜 나가는 동안에 태아는 모체로부터 점차 독립해 간다.

(1) 수태에서부터 독립에 이르기까지

L. Saul은 모든 생명체는 모체로부터 물려받은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하여 태아일 때는 보호, 온기, 영양, 호흡, 순환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을 모체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기생적 존재로 태어난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최초의 크나큰 정서적 외상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탄생의 울음소리는 자궁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받아오던 온기, 어둠, 부드러움, 양수로부터의 보호, 영양과 차단되어 낯설고도 새로운 세상에 내던져지기를 거부하는 외침을 의미한다. 또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기는 스스로의 힘으로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면서 두렵거나 그 밖에 강렬한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섭

103) Franz Alexander는 물리학의 경우 기계적 요소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전혀 다른 형태로 보이는 에너지 개념으로까지 발달되었음을 주목하였다고 한다. 물리학자들은 이런 결과로 장이론에 도달하였고, 에너지의 양을 더 이상 고립된 체계로서 다루지 않고 그 대신 복잡하게 상호관련된 상황 속에서 살펴보게 된 것과 같이 자아심리학에서는 에너지들 간에, 그리고 바로 에너지와 환경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빚어지는 개인의 성향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Franz Alexander는 이론적 추상개념 대신에 구체적인 심리적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환자를 이해하려는 Horney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자신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론으로 대치시키려 하였다. Leon J. Saul. 정신역동적 정신치료. p. 64.

취하거나 배설을 할 때면 언제나 정서적으로 민감해진다. 독립해 가는 과정에서 이 시기는 아주 조금밖에 독립하지 못한 불완전한 독립단계라서, 출생 후 처음 1년은 아직까지 여리고 극도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기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시기이다. 아기는 끊임없는 보살핌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

아기는 사물의 움직임에 스스로 눈을 조절하고, 치아가 나면 젖을 떼게 되면서 독립을 향한 과정을 겪는다. 스스로 기어 다니거나, 호기심 있게 관찰하기 시작하고, 처음 자신의 즉각적인 요구를 넘어서 외부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의사소통하고, 아장아장 걷고, 말하고, 즉 현실감각, 외부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키우면서 서서히 발달되어간다. 그러면서 가족구성원간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복잡하고도 혼란스러운 행동과 감정에 대한 것도 배우고, 사랑, 엄격함, 질투, 비판, 기대등과 같은 감정이 노출되면서 점차 정서적인 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아이에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것을 강조하면서, 아이의 지적 능력이나 관찰력,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른들이 자신의 문제와 감정에 대해서 너무 열중한 나머지 타인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발달과 퇴행

의존심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발달도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과정이다. 임신과 성장, 치아가 나는 시기, 사춘기, 성욕, 갱년기, 죽음, 이 모든 순환과 일련의 사건들은 인간이 동물이기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감정, 사고, 관념, 대화, 그리고 그 밖에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더 진보할수록 환경적, 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Leon J. Saul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생물학적인 힘, 밀접한 대인관계, 문화적이고 비인간적인 환경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생물학적인 힘은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경험과 영향에 의해서 촉진되기도 하고 방해받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한다” 고 했다.¹⁰⁴⁾

(가) 아동기 욕구의 지속

퇴행이란 모든 종류의 유아기적 반응을 지속하려는 욕구인데, 아동기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정서적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의존하고 그 속에서 만족하려 한다는 것, 아동기 욕구를 만족하고자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라는 것, 즉 성인이 되면 정서적 균형을 위해서 변할 뿐 기본적인 아동기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랑 받으려 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내면으로 깊숙이 숨어버리면 욕구가 너무 강해지고, 거부당하거나 냉대 받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거나 사랑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 복수하려는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불안과 혼돈을 느끼고 신경증적인 증상을 표출한다.

Leon J. Saul은 “수동적-수용적-의존적(Passive, Receptive, Dependent:PRD)이라는 용어는 사랑받고, 보호받고, 지지받고자 했던 아동기의 욕구를 잘 묘사하고 있다.” 고 했다.¹⁰⁵⁾ 성인의 반응은 아동기부터 지속되던 감정에 촉발된 것이며, 아무리 뿌리치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쉽게 극복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동기의 정서이다. 어딘가에 의존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고 나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늘 긴장 하고, 예민하며, 행복하지 않고, 약간 우울하면서 두통과 위통을 갖는다. 독립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자존심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겠지만, 그 이면에는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걱정에서 벗어나 어린아이처럼 의존하고 보호받으면서 단순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자신의 감정이 의미하는 것을 무시하며 살지만, 긴장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현재보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로 퇴행하고 싶은 욕구는 점차 강렬해지지만, 불안, 긴장과 걱정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으면서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행복하지 않은 느낌을 갖게 되고 두통과 위통을 겪는다.

104) Leon J. Saul, 아동기 감정 양식과 성숙, p. 35.

105) Ibid, p. 39.

2) 애정 욕구 (수동적-수용적-의존적 Passive-Receptive-Dependent: PRD)에 나타나는 핵심감정

가) 일반론

애정 욕구는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태아는 모든 것을 제공받아야 하고, 유아는 저절로 주어지는 공기와 음식을 제공받지만, 아동이 되면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부분이 감소한다. 만약 아동이 정서적으로 박탈당하거나 응석받이로 자라게 되면, 받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주는 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하거나, 주는 것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여 결국 혼돈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Leon J. Saul은 “적절히 놀 줄 아는 것, 의존심, 받는 것, 독립심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기, 책임감, 주는 것을 즐기는 능력은 성숙을 구성하는 표준적인 요소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주고받는 것, 일하고 놀고 쉬는 것, 이것이 정서생활의 기초이다.”¹⁰⁶⁾라고 했다.

(1)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원인과 강도

인간에게 있어 사랑을 갈구하는 근본 에너지와 강렬함은 어린아이가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이 바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에게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안전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어머니)의 사랑이다. 부모(어머니)와 형성한 사랑의 감정은 친구를 사귀거나, 사랑의 이성을 찾거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감정의 핵심을 형성하는 뿌리가 된다. 애정의 욕구가 표출 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칭찬받고자 하거나 인정받고자 할 수도 있고, 명성을 얻으려고 애쓰거나,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쓴다거나, 우월감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성적으로 심취함으로써 만족을 구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 애정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아동이 부모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않거나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좌절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106) Leon J. Saul, *아동기 감정 양식과 성숙*, p. 9.

될 수도 있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할 수도 있으며,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 저항하는 방어기제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애정욕구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낄 때마다 내면에서는 의존적 사랑욕구가 강력하게 움직이기도 한다.

(2) 좌절감과 다양한 욕구의 형태

애정욕구에서 정서적 외상적 경험이란 응석받이로 자라거나, 부모의 손에서 박탈당하거나 거부당했던 경험을 뜻하며, 이런 아이들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커져서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쉽게 상처 받을까봐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방어하게 되며,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화를 내게 된다. 분노로 인하여 더 좌절감을 일으키며 나아가 죄책감,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정서적 악순환을 이루게 된다. 사랑 받고 싶은 욕구가 강렬한 만큼 동시에 사랑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느낌만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거부, 박탈, 무시되면, Leon J. Saul은 “자존심 상하고 자신감 상실, 공격적이고 요구하는 태도와 사랑받고자 하는 수용욕구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지고, 좌절감과 질투심으로 인한 분노와 적개심, 분노와 적개심으로 인한 죄책감과 불안감의 네 가지 중요한 반응을 보여 준다.”¹⁰⁷⁾고 했다.

3) 광의적 나르시시즘(자기애)에 나타나는 핵심감정

가) 일반론

프로이드는 인간의 자아란 자기 나름의 세상을 재는 척도라고 하면서, 인간의 이기적 리비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사랑했던 신화 속의 인물 나르시스를 의미하는 ‘나르시시즘’이란 용어를 도

107) Leon J. Saul, *아동기 감정 양식과 성숙*. p. 75.

입했다.

자기 심리학자 하인즈 코헛은 “자기애적 감정의 경험은 아기가 아주 행복한 상태에 있다가, 어머니가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야기된 상한 감정에서 시작 된다”¹⁰⁸⁾라고 했다. 좋고 유쾌하고 완전한 것은 모두 자신의 내면에 속한 것으로, 나쁜 것은 모두 외부에 속해 있는 것으로 경험되는 초기의 자기애적 핵심감정은 시기심, 이기심, 경쟁심, 열등감, 적개심으로 느껴지게 하는, 부모에게 표현하면 보살핌과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 할까 봐 억압 시키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다 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만성적 감정으로 마음속에 응어리 맺히게 하는 핵심감정 형성의 원천적인 뿌리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 최초의 근친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형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인의 연구는 그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죄를 지었다는 차원의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문제는 신학 분야보다 문화 인류학자들이나 신화학자들에 의해서 더 많이 연구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인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물려받아 동생을 죽였다고 간단히 설명하기에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다. 욕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과 결핍된 인간

지금까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은 타락 이전에 욕망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욕망하는 존재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¹⁰⁹⁾, 신

108) Allen M. Siegel, *The Analysis of the Self*, 이재훈 옮김. *하인즈 코헛과 자기심리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p. 99.

109) 라캉은 사람들이 출생 시 어머니의 태로부터 분리될 때 그의 태반과 탯줄을 잃어버리면서 근본적인 결핍

학적 이해, 철학적 이해 등 다양한데 이곳에서는 몇 학자를 통해서 인간을 욕망의 존재, 혹은 결핍된 존재로서 인간 이해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1)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

성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기독교 인간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 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보다 인간 이해에 대한 몇 학자의 이론을 통해서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이해¹¹⁰⁾와 결핍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 삼위일체는 세 신적 인격 곧 삼위(三位)의 한 몸 됨을 말한다. 기독교는 단 하나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고 성령의 세 신적 인격을 믿는다. 세 신적 인격은 각각 인격의 주체성과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서로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서로 혼합되지도 않고 한 몸을 이룬다. 그의 세 위격이 온전히 다른 사역을 하면서도 온전한 일치로 이룬다. 몰트만은 그의 책 *The Trinity and the Kingdom of God*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회적 관계(The Trinity on a community vision)로 이해하였다.¹¹¹⁾ Leonardo Boff는 그의 책 *Trinity and Society*에서 삼위일체를 'The perichoresis'¹¹²⁾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번역하자면 온전한 순환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 하면서 사회적 관계로 이해하였는데 이 관계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다.

상태에 처하게 되며, 그 결핍은 사람들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자궁 안에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었던 살 중의 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되찾으려는 무의식적 욕망에 사로잡혀 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대상들인 물질, 권력, 명예, 등을 추구 하지만 그것들을 얻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본래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님을 발견하고 다시 허기에 빠진다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과 기독교 복음, 프랑스와 돌토, 한국심리치료연구소, 김성민 역에서 역자 주, 2000, p. 251)

110) 김균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해석,” 신학논단 vol. 19, 1991.

111) J. Montma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of God*, London and New York, 1981, pp. 50-58.

112) Leonardo Boff, *Trinity and Society, Orbis*, 1986, p.137.

삼위 하나님은 서로 서로 구분되지만 나누어지지 않고 언제나 함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곳에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있고,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있으며, 성령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서로 구분되지만 나누어지지 않고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성령도 한 몸을 이루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모든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 창조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아들의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다.(요일4:8, 16)¹¹³⁾

즉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으로 순환하는 존재이듯이 인간은 온전히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창조 되었다는 것이다.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고, 상대방은 온전히 용납하고, 모든 것은 온전히 함께하고(창조행위), 온전히 함께 기뻐하고(창조의 기쁨), 함께 슬퍼하고(십자가의 슬픔)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사랑이듯이 사랑은 자기와 구분되는 자들과 사랑 가운데서 한 몸을 이루며 그들의 운명을 함께 나누는 상태를 의미 하는데 이는 온전히 예수 안에서 실현되었다. 인간은 예수 안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순환 관계로 지음 받았고, 그 상태가 가장 온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

몰트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삼신론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삼위일체적으로 서로 혼돈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구분되지 않은 삼위일체적 나라인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도 개방되어 있다. 아버지의 나라는 미래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세계의 창조와 이세계의 유지, 그리고 영광의 나라의 미래에 대한 개방성이 있다¹¹⁴⁾고 한다. 그 것은 태초의 창조

113) 김균진, p. 79.

는 지속적인 창조와 새로운 창조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이 시작
이요, 참된 미래를 열어 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써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와의 사귄 속에서 인간은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인도하는 나라이고 영광의 종
말론적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로 특권과 억압이 없는 새로운 사귄이 자유로
운 공동체가 성령 가운데 미리 앞당겨져 영광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다. 115)

몰트만의 삼위일체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적 사
귄을 의미 하는 사회적 삼위일체를 이야기 한다. 그의 교회론 역시 삼위일
체 하나님의 사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온전한 사귄이 있는 곳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
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삼위일체와 그 안의 이 사귄은 우리 공동체에 이미
주어진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의 영원한 사랑과 상호성의 사귄의
실천이 된다. 삼위일체와 사귄 안에서 지배나 종속의 질서가 없는 인간의
사귄과 사랑에 의한 사람들의 사귄이 일어난다.

2)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계 개방성¹¹⁶⁾과 관계적 존재

가) 쉘러의 인간 이해와 세계 개방성

쉘러의 인간 이해는 인간 내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부터 시작함을 상기시키며, 동시에 생명조차도 외부에 있음을 강조한다. 다
시 말해서 철학적 인간학으로 출발하는 그의 관점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특징으로부터가 아닌, 보편적인 생명 현상으로서, 외부적인 생명의 관계로
부터 설명하고 있다. 117)

그는 인간과 동물은 동일하게 대상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상세계

114) 위르겐 몰트만,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김근진 역,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p. 243-245.

115) 라일락, "Jurgen Moltman의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이해," 석사 논문. 협성대학교 대학원, p. 79.

116) 최영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이해-칼빈과 판넨베르크를 중심으로-" 신학 석사학위 논문, 영남신
학대학교, 2004.

117) M. 쉘러, *인간의地位*, 최재희 역, 서울: 박영사, 1996, p. 57.

와 어떻게 관계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인간이 동물로부터 구별 된다고 보았다. 118) 즉 동물은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에 반해 인간은 그 대상세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성(內城)이라고 불리는 기능을 소유함으로써 자신과 관계한 세계를 벗어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한다고 말한다. 쉐러(M. Scheler)의 이론에서는 인간의 개방성은 인간 안에서 형성되어 가는 신(神) 자신의 개방성이다. 그래서 인간은 잠재적인 가능성 안에 있는 신과 함께 완전한 신성의 실현을 향한 인간을 무한히 '열려 있는' 존재로써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그의 '세계개방적 존재로써의 인간이해'는 앞 장에서 설명한 '진화론적 인간이해'와 '과정신학적 인간이해'와 함께 '열려 있는 인간'을 지원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인간이해를 지원한다.

인간은 주변 세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세계개방적이라 언제나 새로운 종류의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지각된 현실에 대해 응답하는 가능성들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변화된다. 인간은 대상에 종속되지 않고 대상을 벗어난다. 더 나아가 대상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기도 한다. 쉐러는 이러한 인간의 기능을 내성(內省)이라고 부른다. 119) 쉐러에게 있어서 인간은 외부와 관계적 상태에 따라 인간 존재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나) 판넨베르크의 인간과 세계 개방성

판넨베르크는 인간이 처음 상태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미숙하게 미완성으로 창조되었음을 말한다. 이러한 불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충만하게 완성되었다. 인간의 운명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 충만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례 개방성과 연관 된다고 말한다. 판넨베르크는 “인간의 운명, 즉 인간의 목표인 하나님과의 친교는 창조적 관점에서가 아닌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120) 고 주장한다. 그는 과정 중에

118) *ibid.*, p. 62.

119) M. Scheler, *인간의 위치*, 서울: 전영사, 1983, p. 64.

120) W. Pannenberg, *인간학* 1, p. 220.

있는 인간 이해를 헤르더의 ‘하나님 형상’ (Bildung)에서 찾았다. 헤르더는 인간의 특징을 결함과 결핍으로 규정하지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이성과 자유를 통한 자기의 완성을 향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성과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헤르더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기능을 인간다움의 미숙한 단계 안에서 찾았다. 즉 미숙함(*Unfertigkeit*)¹²¹⁾이란 단지 이러저러한 능력의 부족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고유성이 본성의 출발선상에서부터 애당초 완성되지 못함을 의미 한다고 보았다. 그는 본능이 동물들의 행동 양식을 유도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이끌어 간다고 보았다. 인간의 ‘영혼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태도 안에 있어서 목표가 되는 개념(*Zielbegriff*)과 척도(*Richtmaß*)로 그 역할을 하며, 인간이 처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성, 인간성 그리고 종교성을 지향하려 하는 성향'(Anlage, disposition)' 즉 조각품의 윤곽뿐이며, 이것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 진다고 보았다. 여기서 신적인 예정의 효력을 통해서 인간 목표의 종착점으로써 그 최종형태인 “신을 닮은 인간의 모습에 도달됨을, 심지어 전혀 다른 현존재로 도달됨”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판넨베르크는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간은 세계를 가지는 반면 짐승들은 유전적으로 고정된 일정한 주변 세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의하면 짐승들은 우리에게 보이는 풍부한 그 주변을 인지하지 못한다. 인간은 주변 세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세계 개방적이다. 인간은 언제나 새롭고 새로운 종류의 경험들을 할 수 있으며, 지각된 현실에 대해 대답하는 그의 가능성들은 거의 무제한하게 변천할 수 있다. 이것은 세부적인 것들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신체의 특수성과 상응한다. 122)

판넨베르크는 인간을 자신에게 열려 있는 모든 시계를 넘어서 계속

121) Ibid, p. 62.

122) W. 판넨베르크, *인간학*, 왜관. 서울: 분도, 1996. pp. 4-6.

질문 할 수 있으며 이 물음은 세계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그리고 인간을 통해 결정된다는 저항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의 절박한 심정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정확한 의미에서 “세계 개방성”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²³⁾

따라서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¹²⁴⁾ 즉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의 친밀성과 관련짓는다.¹²⁵⁾ 하나님의 형상으로써 인간은 판넨베르크에 있어서 세계개방성이었다. 이 개방성은 단순히 대상세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개방성이기도 하였다. 대상세계를 향한 개방성은 신뢰를 근거로 이웃을 만나고, 대상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으로, 신을 향한 개방성은 이성을 근거로 보편사로서의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은 세계 개방성의 원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대상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3) 희망 하는 존재로써의 결핍¹²⁶⁾

무신론 철학자 독일의 Ernst Bloch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¹²⁷⁾ 정신분석학이나 기존 인간 이해가 대부분 과거로부터 시작한다. 인간은 과거에 억압된 것이 현재를 지배한다고 보았다. 과거의 죄가 현재의 인간을 지배한다고 이해하였으나 Ernst Bloch는 이들 이론을 거부하고 거꾸로 인간은 미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았다. 즉 인간을 희망적인 존재로 본 것이다.

123) W. 판넨베르크, *인간이란 무엇인가*, 서울: 성광문화사, 1981, p. 8.

124) 김중선. “판넨베르크의 인간 이해, -하나님 형상과 세계 개방성을 중심으로-” 신학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 p. 23.

125) W. 판넨데르크, p. 219.

126) 이 부분은 임양택의 박사 학위 논문 *Ecclesiogenesis: An Ecocommunity Building with Aged Korean-Americans in the Post Industrial Society*,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1996, 에서 주로 인용했음

127) Ernst Bloch. tr. *The Principle of Hope*. by Neville Plaice, Stephen & Paul Knight, Cambridge: The MIT Press, 1995, p. 4.

가) Ernst Bloch의 유토피아 사상과 결핍된 존재로써 인간

Ernst Bloch의 「희망의 원리」는 그의 독특한 유토피아론에서 전개하였다. 먼저 어원적 정의로 ‘유토피아’ (utopia)는 ‘u’와 ‘topia’ (장소)의 합성어로 그리스어에서 ‘u’는 ‘없다’ (ou)는 뜻과 ‘좋다’ (eu)는 뜻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한다. 유토피아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마스 모어인데 그는 <국가 중 가장 좋은 국가와 유토피아라는 새로운 섬에 관하여> (*De optimo republicae statu, deque nova insula utopia*)라는 책의 서사에서 유토피아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numquam) 그곳은 ‘좋은 곳’ (eutopia)이라고 말했다.¹²⁸⁾ 즉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는 곳’ (utopia)을 뜻하지만 동시에 ‘좋은 곳’을 뜻하기도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따라서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 ‘없는 곳’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면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이지만 ‘좋은 곳’이라는 점에 비중을 두면, 유토피아는 역사의 시작과 함께 인간이 도달하고자 쉼 없이 찾아 달려온 이상향, 또는 직접 실현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온 이상 사회(국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유토피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지금’, ‘여기’에 없다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¹²⁹⁾ 그런데 이러한 끝없는 소망이 결국 인간에게 결핍감으로 남는다. 즉 소망은 결핍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E. Bloch는 바로 이점러한 미래적 관점에 주목한다. 유토피아는 ‘아직 없는 것’ (noch-nicht), 즉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완성의 현실태(現實態)일 뿐이다.¹³⁰⁾ E. Bloch는 ‘지금’, ‘여기’에 살면서 미래를 선택하여 그의 철학을 발전시켰다. E. Bloch는 S. Freud의 심리학을 부르조아적, 과거 지향적 이론이라고 배격하였다.¹³¹⁾ 그는 인간의 욕망과 충동은

128) Thomas More, *Utopia*, tr., P. Turner (London: 1965), p. 27.

129) 김영한, 임지현 편. “유토피아.” *서양사의 지적 운동*. 서울: 지식산업사, 1994, p. 6.

130) Ernst Bloch, tr. by, N. Plaice et al. *The Principle of Hope* vol. 1. p. 116 ff.

131) E. Bloch에게 있어서 유토피아적 사고는 과거에 존재한 무엇(Ge-Wesenheit)을 본질(Wesenheit)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무엇을 미래 지향적으로 추적하는 데서 획득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Ernst Bloch, *희망의 원리*, p. 19.

무의식이 아닌 궁핍/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바로 이 궁핍과 필요야말로 인간의 자기 보존과 자기 발전의 원동력이며 나아가 유토피아 정신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아직 없음’ (noch nicht)으로 인하여 인간은 기다림과 희망을 갖게 되는, 그 기다림은 인간을 미래지향적 존재가 된다고 E. Bloch는 말한다.¹³²⁾ 인간의 본질(Wesen)은 결코 과거 (Ge-Wesenheit) 속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유토피아 의식은 동시대에 현실의 구속 조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해방 정신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 것은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고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추구한다.¹³³⁾ 이러한 추구는 다른 표현으로 결핍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E. Bloch의 希望의 原理: 아직-아님의 存在와 결핍

E. Bloch에게 역사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것이며, 심지어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동인을 기다리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 역사 역시 언제나 질적으로 새것에 대해 개방되어 있고, 미래에 있을 모든 현실성의 형태를 경향성과 잠재성으로 탐지하고 있으며, 그 스스로에서 유래하는 역동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전의식이거나 무의식¹³⁴⁾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 의식은 물질 그 자체에 대한 반성으로서 아직-아니-존재하는 자요, 아직-아니-완성된 자의 가능성 여지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개방되어 있는 물질은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어서 사변적인 동적 유물론에서 그 모상을 형성하여 나가는 것이다. 이로써 E. Bloch는 물질의

132) Ernst Bloch, *The princile of Hope*, I. ch. 15.

133) Ernst Bloch, , *희망의 원리*. 박설호 역. vol. 1. 서울: 솔, 1995, p. 279.

134) E. Bloch에게 있어서 무의식은 정신 분석 학자들이 쓰는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정신 분석학에서는 ‘의식의 저변에 위치하며, 의식 아래로 가라앉은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다. E. Bloch는 정신분석학의 무의식을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의식’ 즉 ‘더 이상 의식되지 않는 것(das Nicht-Mehr-Bewu ß te)’ 에 국한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E. Bloch에게 정신 분석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은 전의식(前意識)이다. E. Bloch가 쓰는 무의식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즉 인간의 존재가 가지는 의식으로 ‘아직 의식되지 않은 것’ 과 ‘더 이상 의식되지 않는 것’ 을 모두 포함한다. 정신 분석학은 후자만을 말한다고 E. Bloch는 비판한다.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무의식은 B. Bloch의 전의식에 해당하지만 정신 분석 학자들의 무의식(프로이트의 무의식적인 것은 오로지 망각된 것 혹은 억압된 것 일 뿐 이다.)은 심리적으로 억압된 무엇을 지칭한다. 그러나 E. Bloch의 전의식은 제반 의식되지 않은 것을 지칭한다. 참조 E. Bloch, 박설호 역, *희망의 원리* vol. 1. pp. 216-220.

진정한 특성을 완전한 최종 목표가 실현되고 그 가능한 성과가 이제 비로소 잠재적인 ‘아직-아님(Noch-nicht)에 내재한다는 거기에서 찾았던 것이다. 모든 인간 의식은 물질 그 자체에 대한 반성으로서 아직 -아니-존재하는 자요, 아직-아니-완성된 자의 가능성 여지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아직-아님의 존재로 희망의 존재로 미래에 대하여 열려 있다. 즉 열린 존재로 인간을 보았다.

다) 인간의 근본 충동으로써의 굶주림

E. Bloch는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져야 하는 것을 갖지 못한 채 태어난다고 말한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그 자체가 곧 빈곤이다. 그러한 빈곤이란 굶주림의 사실이고, 끝없는 탐구의 사실이며, 동경의 힘이다. 이와 같이 아님으로써의 빈곤이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하게 하며, 기도하게 한다. 그러므로 인간학적 구조면에서도 인간이란 존재 내에 있는 아님 일함으로써 결핍 존재 내지는 비존재인 것이다. 이때의 비존재란 無가 아니고, 존재로 지양될 수 있는 존재 내의 아님이고, 아직-아님의 존재이다. 즉 인간이란 존재는 결핍과 빈곤의 존재로써 애쓰고 동경, 열망과 찾음에 근거한 <충동의 존재(Triebwesen)> 이다. ‘아직 의식되지 않은 것(das Noch-Nicht-Bewußte)’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das Noch-Nicht-Gewordene)’은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과 모든 존재의 지평을 가득 채우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로 이 희망은 모든 종결된 것(res finita)에 비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궁극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¹³⁵⁾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Bloch의 인간 이해는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개방된 존재로 관계적 존재로 태어났다. 즉 닫힌 존재가 아니라 열린 존재로 보았다는 것이 그의 공헌이라 하겠다. 그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완성에 대한 이해는 없었지만 인간을 열린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연구하려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존재라

135) 임양택, Ecclesiology: An Ecocommunity Building with Aged Korean-Americans in the Post Industrial Society, 목회학 박사 학위 논문,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1996.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관계적 첫 경험인 어머니와의 친밀감이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하겠다.

신학적 인간학은 철학적 인간학의 구조와 상관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전자는 후자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신앙에 기초하여 대답한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향해 열려진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인간은 이웃과 세계마저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는 존재라는 것을 복음은 말한다. 이런 점에서 판넨베르크의 견해는 옳다고 여겨진다. "인간의 무한한 의존성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다. 세계를 향한 인간의 무한한 개방성은 오로지 세계를 넘어서는 그의 운명으로부터만 귀결된다. 환경과 동물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같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구가 인식하고 그의 운명이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목표이다." 신학과 그리스도인은 원칙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에 대해 열려 있음으로써만,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존재의 속성으로 갖는'(E. Bloch) '희망의 하나님'(J. Moltmann)에 대한 신앙적 응답을 열린 사랑의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핍된 존재로서의 가인

흔히 에덴동산은 완벽하고 전혀 부족함도 욕망도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성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창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되어 있다. “간교한”이라는 단어는 영리한 이라고 해석되는 용어인데 간교하던 영리한 이미 이 단어에 비교급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에덴에 차등이 있었다는 점이다. 차등은 이미 결핍이 존재함을 의미 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에덴에 “금지”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금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금지’는 욕망의 제한이다. 또한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는 말 속에서 영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창3장 6절은 타락하기 이전 인간이 욕망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 준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이라는 용어에도 에덴에 결핍이 있고, 따라서 욕망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창 2:9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에덴동산을 만들고 그 한가운데에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W. Brueggemann은 이 나무는 아무런 특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단지 야웨 기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표현하기 위해 썼던 수단이었다는 것으로 본다.¹³⁶⁾ G. Wenham은 선악과가 과연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견해를 대략 요약하고 있다.¹³⁷⁾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은 C. Westermann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인간의 오만 즉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의 단절을 초래했던 인간의 지식 충족의 추구라고 본다.¹³⁸⁾ 결국 이들의 ‘충족’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핍된 공간이라는 뜻이다.

노회원은 에덴동산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즉 에덴동산은 흔히 막 걸쭉한 신혼부부가 걱정근심 없이 놀고 먹을 수 있는 동산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기에서도 역시 에덴동산이라는 보금자리를 열심히 경작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었던 것으로 해석했다.¹³⁹⁾

서인석은 에덴동산 설화의 의미를 다음같이 정의하였다. “에덴동산 안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설화는 에덴동산 밖에서 발생하는 인간적 존재들의 삶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바 <理論的인 한 모델>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모델은 어디 까지나 <形象的 모델>이다. 그 이유로 기원적 설화는 사료 편찬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¹⁴⁰⁾

136) 16 W Brueggemann Genesis, Interpretation, John Knox Press, Atlanta., · 1982. p. 45.

137) G. J. Wenham. Genesis 1-5, Word Biblical Commentary, Word Books.Texas. 1987. pp. 63f.

138) 19 C. Westermann. Genesis 1-11, A Continental Commentary. ET by J.J. Scullion, Fortress Press. Mineapolis, 1984. pp. 240-48.

139) 노회원, “에덴 동산의 삶의 정황,” 학술지명 현대와 신학. 권 23 호 1,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98.

140) 서인석, “에덴동산 안에서 인간의 모형,” 가톨릭 교육연수, vol 8, 1998.

즉 창세기 안에 나타는 욕망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원형으로써 가인에게도 그러한 욕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인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가인의 핵심감정 중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인의 이런 결핍 된 욕망이 사랑받고 싶은 욕망으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동생을 죽임으로써 다시 그 욕망은 좌절되고 말았다. 부모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터전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타는 목마름이 있어서 다시 일어날 희망을 갖는다. 가인은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욕망,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한 나라를 향한 욕망(제사의 열납에 대한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동생을 죽이고 만다. 가인 역시 그 욕망으로 인하여 다시 동생을 죽이고 살던 땅을 떠나야만 했다. “여호와 하나님에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가인이 여호와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늦 땅에 거하였더니...” 아담과 가인이 똑같은 길을 걷는다. 아담은 하나님이 내보냈지만 가인은 스스로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을 두려움과 상처가 있는 그대로 떠나보내지 않고 그의 상처 입은 핵심감정을 다독 거려 주시고 보호를 약속해준다.

라. 핵심감정의 종류와 가인의 핵심감정

이 장에서는 핵심감정의 종류 중에서 가인에게서 발견되는 핵심감정을 살펴보고 성서에 나타난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가인의 핵심감정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성서의 원역사에 해당하는 가인의 이야기 전승이 간단한 몇 마디로 처리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감정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다만 문화 인류학자, 사회 심리학자, 신화학자들의 이론을 동원하여 핵심감정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신화적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석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1) 시기심과 질투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가족, 친구, 동료, 특히 친밀감이 있는 사람에게 시기심을 느낀다. 시기심을 주제로 한 신화나 고대 문학작품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시기심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라 보인다.

가) 시기심의 일반 연구

국어사전에 시기심을 ‘남을 샘하는 마음’ 이라고 정의 하였다.¹⁴¹⁾ 시기심(猜忌心)은 시기할 시(猜), 꺼릴 기(忌)라는 한자로 이루어졌다. 즉 꺼려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영어 단어인 ‘envy’ 는 라틴어 ‘invidere’ 에서 유래하였는데 invidere는 ‘in’(안)과 ‘videre’(바라보다)라는 두 단어가 만나 이루어졌다. 즉 이 단어는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바라본다’ 는 뜻을 담고 있다. 왜 마음속으로 바라볼까? 마음 즉 감정이 실린 시선을 의미 한다.

شم멜(Solomon Schimmel)은 시기심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다른 이가 소유한 물건, 특성, 또는 지위를 인식했을 때에 느끼게 되는 고통”¹⁴²⁾이라고 하였다. 그는 시기심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면서 자아 정체감에 상처를 입게 되는 데에 따른 일종의 대처 방법이라고 하였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면서 나타나는 정서반응이다.

나) 시기심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

프로이트는 남근선망과 거세콤플렉스를 통해서 시기심을 설명하였다. 호니(Hony)는 시기심을 여성의 질과 젖가슴과 연관 시킨다.

프로이트는 "여자 아이들이 커가면서 스스로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다고 느낀다. 결핍을 느끼는 여자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페

141)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동아 새국어 사전 제 5판*, 서울: 두산동아, 2005. p.1435.

142) Solomon Schimmel, *The Seven Deadly Sin*, New York:Free Press, 1992, p. 57.

니스를 선망하게 된다. 자기에게 없는 남근을 가진 자신의 형제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성기가 남자형제들보다 작다는 사실에 굴욕감을 느낀다."¹⁴³⁾고 했다. 여자 아이들이 남근 선망을 갖는다면 남자 아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남근이 거세당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는다. 어린 아이들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일한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자 아이들은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가 자신과 다른 질이 있다는 사실을 놀라워한다. 이때에 남자 아이들은 자신도 페니스를 잃고서 여자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게 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인해 아동들은 자신과 같은 성의 부모를 추구하지만 자신과 반대 성을 가진 부모를 경쟁자로 삼는다. 즉 시기심을 갖게 된다.

호니(Hony)는 남근을 선망하는 소녀들과 같은 연령 때에 남자 아이들도 유방이나 어린애를 가지고 싶다는 욕구의 형태와 비슷한 감정을 가진다고 보았다. 남성들은 여성의 젖가슴뿐만 아니라 여성의 질에 시기심을 느낀다.¹⁴⁴⁾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신이 갖지 않은 신체적 구조로 인하여 시기심을 갖게 되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다) 대상관계이론에서 본 시기심

멜라니 클라인은 시기심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태고적인 감정이며 어머니의 젖가슴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멜라니 클라인은 시기심은 인간의 마음 밑바닥에 깔린 정서이며 뿌리 깊은 것이어서 살인을 저지를 만큼 강력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¹⁴⁵⁾고 했다. 시기심은 가장 원초적인 감정으로 유아가 어머니의 젖가슴을 통해 만족을 느끼지 못 할 때나 사랑과 보살핌이 좌절 될 때도 갖게 된다.¹⁴⁶⁾ 충분히 좋은 환경, 안아주기, 만족스런 모성적 돌봄이 유아에게 잘 제공되지 않을 경우,¹⁴⁷⁾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진 유아¹⁴⁸⁾는 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연약한 자아를 형성 시

143) 지그문트 프로이트,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김정일 역, 서울: 열린 책들, 1995, p. 55.

144) 카렌 호니, *여성 심리학*, 이근후, 이동원 공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1982, p.172-173.

145) H. Segal, *멜라니 클라인: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p.159.

146) Ibid, pp.159-160.

147) D. W. Winnicott.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pp. 67-74.

킨다¹⁴⁹⁾.

시기심은 일차적으로 엄마의 수유 습관이나 성장하면서 남근 선명, 형제와의 차별, 사회적 비교 등을 통해 더 강화된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자신도 갖고자 하는 바램과 다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생기는 용납할 수 없는 화나고 미운 감정을 일으킨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시기심이란 ‘타인이 가진 행복, 성공, 명성 등을 누리려는 사람에 대해 불쾌감과 악의를 느끼는 것’ 이라고 정의 되어있다. 심리적 배경에는 ‘상대방이 가진 것이 내게 결핍 되어 있다’ 고 느끼는 감정이다. 시기심은 자신과 무관한 사람, 일면시도 없는 사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느끼는 감정이다. 상대방의 행운에 대해서조차 수치심 없이 분노하는 마음, 그것이 시기심이다. 시기심은 순전히 사랑과 존경의 대상을 겨냥 하고, 시기심의 직접적인 목적은 대상의 속성을 파괴하는 것이다¹⁵⁰⁾ 라고 했다.

타인이 가진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하는 시기심에는 정당한 근거도 수치심도 없다. 그것은 현실적 소유의 감정이 아니어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 시기심 역시 무의식 저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시기심이 가장 소극적으로 표출될 때는 타인이 가진 것에 대한 부러움과 칭찬의 형태로 나타나고, 표출의 강도가 조금 더 심해지면 타인에 대한 헐뜯기, 헛소문, 집단 따돌림, 쇼핑 중독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시기심이 그보다 더 격렬해지면 소매치기나 강도처럼 남이 가진 것을 빼앗는 행위로 나타난다. 그 중 가장 불행한 형태는 자기보다 많이 가진 자의 소유물을 빼앗기 위해 타인을 살해하는 일이다.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시기심은 더 강해지고, 폭력이나 잔인성의 근본 에너지이기도 하다.

기독교 문화에서는 시기심을 엄격하게 다룬다. 성서에서 말하는 일곱 가지 대죄에도 시기심이 포함되어 있고, 십계명에도 ‘너는 이웃의 집을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너의 이웃의 아내와 노예들, 소든 당나귀든 이웃

148) Ibid, p. 55.

149) Ibid, p.73.

150) H. Segal, *멜라니 클라인: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p.161.

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는 말로 시기심을 경계하고 있다. 시기심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살인과 강도와 약탈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라) 시기심과 질투와의 관계

질투와 시기심은 같은 뜻을 가진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기심은 시기하는 사람과 시기를 받는 두 사람을 전제로 하고, 질투는 제 3자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외적 대상에 대해 자아가 갖는 시기심과 질투(jalousy)는 가시적 모습이 비슷할지라도 그 본질적 뿌리는 상이하다.

진화 심리학자 버스(David M. Buss)는 시기심이 질투와 달리 자기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탐욕, 악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감정이라고 보았다. 시기심은 질투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화된 감정이라고 보았다.¹⁵¹⁾

인간 본연의 내재적 정서로 자리하는 시기심과 달리 질투는 오이디푸스 구조로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산물이다. 시기심이 한 사람, 어머니와 젖가슴과의 가장 초기의 배타적 관계로 회귀하지만 질투심은 적어도 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다.¹⁵²⁾ 질투는 보편적 의미에서 제 3자의 개입으로 인한 좌절과 갈등의 산물이며 사회적 구조에서 생성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질투는 분노를 유발하면서 경쟁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질투심에 내재된 증오는 제3자와 관련하여 애정대상의 상실로부터 발생하며 증오의 대상은 대상의 선택이 아니라 대상의 상실이다. 반면 시기심에 내재된 증오는 좋은 것으로 느끼는 선택으로 향한다. 유아의 구순적 탐욕으로부터 시기심은 젖을 주는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처음 향하고 오이디

151) 데이비드 버스, *위험한 열정 질투*, 이상원 역, 서울: 추수밭, 2006, pp. 59-60.

152) 박선영, *멜라인 클라인의 아동정신분석: 이론 및 임상 체계의 비판적 재구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04, p.368.

푸스적 구조에 들어서면 여기에 질투심이 부과된다.¹⁵³⁾ 질투는 시기와 달리 자기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누군가 빼앗아 가버릴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는 감정이다. 질투는 현실, 또는 상상 속에서 자신의 경쟁 상대를 향한 감정이다. 반면에 시기심은 우리가 좋은 물건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것을 시샘하는 감정이다. 시기심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한다.

멜라니 클라인은 질투와 탐욕을 시기심과 구분하였다. 그녀는 시기심을 질투보다 더 원초적인 감정으로 여겼다. 이것은 대부분 대상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삼자관계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 그녀가 말하는 시기심은 순전이 파괴적이며 사랑과 존경의 대상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질투는 오이디푸스적 삼자 관계에 속한 좀 더 섬세한 감정으로서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경쟁자에 대한 증오가 욕망의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 작용한다.¹⁵⁴⁾

유아는 사랑하고 증오하게 되는 원초적으로 소중한 존재인 어머니의 젖가슴을 이상화 한다. 그러나 지나친 이상화는 현실 부인에 근거하므로 올바른 대상의 통합과 조화를 방해하고, 오히려 시기심을 더 자극하는 악순환을 초래 한다. 유아는 자신에게 영양분과 사랑을 주는 ‘좋은 젖가슴’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지탱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 ‘좋은 젖가슴’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양육에 감사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아는 박해와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로인해서 ‘나쁜 젖가슴’을 미워하게 되고 파괴적인 보복환상에 사로잡히게 된다.¹⁵⁵⁾

페어베언(W. Ronald D. Fairbairn)은 유아기 아이들이 부모 사이에 양가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아버지의 페니스와 어머니의 질에 대한 양가감정이 발달함으로서 원초적인 장면에 대한 가학적 개념을 반영한다. 이 시기에 부모를 향한 유아의 질투가 발달하게 된다. 이는 생물학적 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부모와 맺고 있는 정서적 관계와 연관되어 결정되는

153) Ibid, p.370.

154) 한나 시겔, *멜라이 클라인: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p. 161.

155) 스테판 밋첼, 마가렛 블랙, *프로이트 이후: 현대정신분석학*, 이재훈, 이해리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pp. 168-169.

것이다. 156)

그러나 시기심에는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질투 역시 시기심과 같이 긍정적인 면도 있다. 삼각관계에서 보통 나타나는 질투라는 감정은 소원했던 사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질투할 때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누군가 빼앗아 가버릴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또 질투라는 감정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157) 신데렐라 이야기를 통해 심리학과 신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시기심을 설명한 율라노프는 시기심의 주된 원인은 선함에 대한 갈망 혹은 허기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158) 시기심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배우며, 시기하는 감정이 스스로에게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시기심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어 시기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고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시기심이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경쟁심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심리로 자기 가족 간의 상호작용 즉 형제자매 간에는 아주 분명하고 강한 경쟁관계가 형성된다. 대개의 경우 형제자매 간의 경쟁심보다 부모와의 경쟁이 더 깊이 숨어 있는데, 부모 중에서도 남자는 아버지에게, 여자는 어머니에게 더 많은 경쟁심을 느낀다. 사랑 받고 싶고, 주목 받고 싶고, 보호 받고 싶은 욕구가 끝없이 채워지지 않고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으로 표현하지 못한 불만이나 화나도록 자극하는 감정을 억압함으로 느끼는 핵심감정 이다.

마) 성서에 나타난 시기심

성서에는 가인의 시기심으로 인한 최초의 살인 사건을 출발로 많은 시기심에 대한 기록이 있다. 창세기 22장에 “그가 양 떼와 소 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156) 로날드 페어베언,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학 연구*, 이재훈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3, p.p27-228.

157) 하늘, "시기심에 관한 목회상담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8, p.10.

158) 앤 & 베리 율라노프, *신데렐라와 그 자매들: 인간의 시기심*,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p.30.

거부가 된 이삭을 블레셋 사람이 시기한 사건이다.

라헬이 아이를 낳은 언니 레아를 시기하는 모습이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창세기 37장에 “그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라는 구절에서 형들의 시기심을 볼 수 있다.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비롯하여 시기로 비롯된 많은 사건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성서는 시기심을 언급할 뿐 아니라 시기심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언급한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기 5:2) 성서에 시기한 자들이 말로가 아름답지 못했다.

바) 가인의 시기심과 질투

시기심은 초기 기독교에서 ‘죄’의 측면을 가진 감정이라고 성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시기심을 뜻하는 히브리어 ‘키나(qin' ah)는 ‘불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서 오는 슬픔으로 인해서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뜻한다.¹⁵⁹⁾ 얼굴색이 변한다는 내용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도 등장한다.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을 알고 그의 형 카인의 ‘얼굴색이 변하다’라는 말은 카인이 자신의 제물과 자신을 거절한 일에 대해, 그리고 아벨에 대해서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기심은 시기의 대상이 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결정을 감행하도록 부추긴다.

가인의 시기심과 질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추측할 만한 자료를 성서에서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상관계나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가인의 시기심과 질투는 시기심과 질투의 원형으로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시기심에 휩싸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면서 다른 이들이 자신을 한없이 취약한 사람으로 느낄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

159) Ibid, p. 128.

들은 수치심과 열등감이 점점 더 고조된다.¹⁶⁰⁾

시기심은 수치심과 열등감을 넘어 파괴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시기심의 특징인 파괴성의 분열은 선함을 침몰 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다. 인간 안에 있는 파괴성을 선함으로부터 분열시키는 것은 정치적 및 사회적 영역에서 우리-그들이라는 태도를 만들어낸다. 우리-그들이라는 태도는 모든 것을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를 만들어 인간으로 하여금 편견을 가지게 한다. 인간은 완벽한 선함을 따라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함 그 자체를 공격하게 된다.¹⁶¹⁾ 이때에 선함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서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나타난다. 가인의 시기심은 수치심과 열등감, 폭력성으로 나타난다.

2) 수치심과 죄책감

수치심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었다. 본 장에서는 정신분석학적 입장, 대상관계이론의 견해, 사회 심리학자 Erickson 의 입장, 자기 심리학자의 입장을 살펴보고 수치심이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에서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주로 ‘양심’에 의해 느껴지는 내면의 죄의식(guilt)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경우 수치심은 내면적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특성의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 생기게 되는 정서로 이해되기 때문에 수치심과 죄의식 간의 기본적인 차이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¹⁶²⁾ 그러나 최근에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구분하는 쪽으로 개념을 새롭게 하고 있다. 즉 수치심이란 선-악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도덕 원칙인 “양심”에 의해서 뿐 아니라 그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자아관“(self-conception)에 의해서 느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 자아관 “이란 각 개인의 ” 행동 혹은 행위 “의 선-악 혹은 정당성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으로써의 ” 양심 “ 뿐 아니라 각 개인의 가치 혹은 존재의 의미

160) 앤 윌라노프, *영성과 심리치료*, 이재훈 역, 서울: 심리치려연구소, 2005, p. 45.

161) Ibid.

162) *The Encyclopedic Dictionary of Psychology*, eds. Rom Harre and Roger Lamb(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83), p. 261.

까지를 포괄하여 의식하게 될 때 형성되는 차원의 심리적 기능을 지칭한다.¹⁶³⁾ 즉 수치심은 내적인 자아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부족이나 결핍, 혹은 부적절함에 관한 자아의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스러운 감정(emotion)의 한 형태다.

수치심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서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으로부터 분리된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에, 혹은 그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인정할 때에 생기는 감정이다.¹⁶⁴⁾ 이에 반하여 죄의식이란 수치심과의 상대적 비교에서 볼 때, 자기 자신에 관한 총체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자신에 의해 행해진 행동이 내면적 판단기준인 원칙(principle)과 다를 경우 혹은 그 같은 원칙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후회 감정이다. 즉 죄의식이란 주로 자신의 행동에 관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평가로 인해서 생겨나는 정서로서, 그 자신의 가치나 존재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정서이다. 즉 도덕적으로 잘 못된 행동을 한 어떤 사람의 경우, 비록 자신의 행동 자체의 잘못됨에 관해서는 죄의식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이 같은 의식이나 감정이 필연적으로 그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평가하는 수치심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¹⁶⁵⁾

수치심은 죄책감과 함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수치심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치심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자신을 합리화 하거나 도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수치심으로 인하여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은 우울증, 인격장애, 불안, 각종 중독 등과 같이 잘 드러나지 않고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감추거나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정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수치심은 중독, 자기애적 장애, 낮은 자존감, 열등감, 정체성의 문제, 우울증의 중심부에 관여하여 개인의 인성 속에 숨겨져 있다.¹⁶⁶⁾

본장에서는 가인에 나타난 수치심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학적, 심리학

163) 강희천, "수치심의 재개념화와 기독교적 정서교육," 연세교육과학, 제 46집, 1998, pp.11-112.

164)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ed. Mircea Elide(New York:Macmillan, 1987) Vol. 13, p. 223.

165) 강희천, p.113.

166) 김지아, "수치심에 대한 목회상담적 이해," 목회상담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2002, p. 1.

적, 사회 문화적 이해를 통해서 가인의 수치심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 한다. 모습을 감춘 수치심은 무의식적인 분노와 감정적 인격 장애로 자신의 몸에게 해를 끼치며 공격성이 타인과 사회로 돌려져 폭력적 현상까지 나타난다. 수치심으로 인한 종교적 중독은 완벽주의 신앙으로 강조되어지기도 하며, 사회에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상적인 대인관계, 체면 눈치 보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¹⁶⁷⁾

가) 수치심에 대한 일반 연구

시기심에 대한 자아의 대립은 우울적 위치와 함께 죄의식을 동반한다. 종종 조숙한 죄의식은 어머니의 젖가슴에 대한 과도한 원초적 시기심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식을 자아가 견디지 못한다면 죄의식은 박해로 느껴지고, 대상은 박해자로 변한다.¹⁶⁸⁾ 시기심은 수치심으로 이어진다.

나) 수치심에 대한 신학적 이해

‘수치’란 말은 주로 ‘부끄럽다’는 말로 표현되는데 ‘부끄럽다’라는 말의 국어사전의 정의는 “자기 잘못이나 결점 따위를 강하게 의식하여 남을 대하기가 떳떳하지 못하다. 대할 낮이 없다”이다.¹⁶⁹⁾ 성서에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구분하여 표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성서에 나타난 수치심

수치심의 기원은 구약성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의 타락’ 사건에서 비롯된다. 표준 새번역성경 창 2:25절에 “남자와 그 아내가 벌거벗

167) 수치심이 한 사람의 정체성이 되면 남들에게 알려지고 싶은 이상화된 공적인 자기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상화된 공적가지가 자신 혹은 타인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경우가 수치심이며, 자기의 얼굴에 손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체면을 중요시 여긴다. John Bradshaw, *Healing the Shame That Blind You*, (FI: Health Communications Inc, 1988), pp. 82-83.

168) 박선영, "멜라니 클라인의 아동정신분석: 이론 및 임상 체계의 비판적 재구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p. 374-375.

169) 이기문 감수, *동아새국어사전*.

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는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¹⁷⁰⁾로 되어 있다. 벌거벗음과 수치를 알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죄를 지은 후에 나타나는 결과로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몸을 가리고 숨겼으며, 죄를 인정하기 보다는 감추기에 급급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창세기에 나타난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본다. “그들은 눈이 밝아졌다.” (창3:7)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소외된 자기 자신을 깨닫는다. 인간은 스스로 벗은 것을 인식한다. 하나님과 다른 인간의 비호도 옹호도 없이 벗은 채로 서 있는 자아를 발견한다. 수치가 생긴다. 그것은 인간이 근원으로부터 분열된 것에 대한 인간의 씻어버릴 수 없는 회상이며, 분열에 대한 고통이고,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무력한 열망이다. 인간은 자기의 근원적인 본질과 전체에 예속되는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치를 느낀다. ... “그들은 무화과나무를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창3:7) 수치는 분열의 극복으로서 덮을 것을 찾는다. 그러나 그 덮을 것은 동시에 분열에 대한 명확한 증거며, 따라서 상처에 대한 치유는 되지 못한다. 인간은 인간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덮고 숨긴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치를 생각하게 하고 따라서 근원으로부터의 분열을 회상시키기 때문이며, 특히 인간이 분열된 자로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숨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¹⁷¹⁾

본회퍼는 수치심은 ‘근원으로부터 분열된 것에 대한 씻어버릴 수 없는 회상’ 곧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상기이며 따라서 ‘와’ 근원적인 너 ‘와의 관계가 단절될 때 생긴다고 본 것이다.

(2) 죄로써의 수치심 이해

170) 대한 성서 공회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p. 3.

171) 이재은 편저, 「기독교문장대백과사전」 제 11권, (서울: 성서연구소, 1993)Dietrich Bonhoeffer, “수치의 극복” 항목에서 재인용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적 죄의 문제는 심리적 죄책감과 함께 계승되어 왔으며 20세기 초 프로이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죄책감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다. 선지자들은 수치심보다 죄책감을 가진 신성의 인간으로 옮겨가는 시도를 하였으며 예언자들의 의례와 정화에 대한 개념이 도덕적인 개념으로 바뀌었고, 죄책감과 책임이 더 강조되었다.¹⁷²⁾ 구약 성서는 수치심을 강조하여 죄책감이 적게 발견되지만 신약성서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어 진다. 구약의 사회에서는 사회의 통제 수단으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사용되었으며, 신약 사회에서는 죄책감이 사회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장이다.¹⁷³⁾ 그런데 현대의 자기애적 문화는 자기실현과 자기애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전통신학의 원조인 케리그마는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공유할 수 없는 죄 개념이 되어버렸고 인간의 죄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모순과 부조리한 상황을 설명하기에 역부족이 되었다.¹⁷⁴⁾ 즉 죄책감으로써의 죄가 아니라 수치심으로써의 죄로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 정신분석학적 입장

최근 수치심에 대한 연구는 정신분석학 쪽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수치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쪽에 관심을 갖는다. 정신분석학은 수치심을 하나의 단순한 현상이기 보다는 하나의 증상(symptom)으로 본다. 따라서 수치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이 무엇을 뒤에 숨기고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1) 본능적 욕구 충족에 대한 억제작용으로써의 수치심

수치심에 대한 Freud는 다른 감정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Freud가 1905년에 발표한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에서 수치심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그는 수치심이 타고난 감정으로 부분본능과 같은 것이

172) May Jo Medow, Richard D. Kahoe, *종교심리학*, 최준식 역, 서울:민족사, 1992, p. 74.

173) Thomas J. Scheff, Suzanne M. Retzinger, *Emotions and Violence: Shame and Range in Destructive Conflicts*, (Santa Barbara, Lexington Books, 1991), p. 5.

174) 김광식, *인간과학과 신학: 생물학 심리학 및 의학과 대화를 위하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p. 185.

었다. 175) 1930년에 그가 발표한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에서 Freud는 수치심은 인류가 진화과정에서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진화되면서 드디어 일어서 두 발로 걷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사람이 두 발로 걷기 전에 생식기가 가려져 있다가 일어서면서 노출되어 밖으로 보이게 되자 어떤 보호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남자에게 수치심이 생긴 것인데 이것은 본능적 욕구 충족에 대해 외적으로 억제작용으로 생겨나는 정동이라고 했던 그의 견해를 바꾼 것이다. 176)

1933년 Freud는 *New Introductory Lecture on Psychoanalysis*에서 다시 한 번 전에 말한 생각을 수정한다. 수치심이 생식기를 가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생식기의 어떤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감추려는 반응의 감정이라고 설명을 했다. 또한 여자의 수치심은 여자들이 남자와 동등하게 우월해지기 위해 시기와 열등의식에서 오는 수치심으로 이것이 여성의 특징이라며 남성 우월적 사상을 보이기도 했다. 177)

(2) 이상적 자기의 실패로 인한 수치심

Helen B. Lewis는 죄책감, 수치심, 정체성, 그리고 초자아 사이의 관계성을 탐구하고, 계속해서 정신분석학적 통찰을 통해 그것들을 연구하고 있다. 죄책감은 위협하는 부모를 정체성화 함으로써 발생되고, 그 다음에 내면화된 위협을 만들어낸다. 반면 사랑받거나 존경받는 자아 이상(ego ideal)을 정체성화하면 자부심과 승리감이 자극 받게 되는데 이 내면화된 이상적 이마고(imago)에 따라 사는 것을 실패하면 수치심이 자극된다고 보았다. 178)

Andrew P. Morrison 역시 Freud의 수치심에 대한 직관적인 견해를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다. 그는 정신치료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수치심을 핵심감정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의 전통에서 이 감정이 다루

175) Sigmund Freud.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London: Hogarth, Press, 1953, pp. 125-243.

176) Sigmund Freud,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London: Hogarth, Press, 1961, pp. 57-146.

177) Sigmund Freud, *New Introductory Lecture on Psychoanalysis*. London: Hogarth, Press, 1964, p.132.

178) Gershen Kaufman, *The psychology of Shame*,(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1996), p. 11.

어지지 않은 점을 절감하고 수치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는 정신분석가로서 어떤 이론 체계를 따를 것인가에 대해 자문하고 있는데 수치심에 관한 그는 Kohut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흔히 환자치료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어떤 유용함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¹⁷⁹⁾ Shame: Underside of Narcissism 이라는 그의 책 이름이 말하듯이 Andrew P. Morrison은 수치심이 자기애의 아래쪽, 저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자기애에 대한 개념정리 후에 수치심에 접근하고 있다. 먼저 Freud와 같이 유아기의 자기애가 실종된 것을 찾기 위한 시도로 자아이상(ego ideal)이란 정신구조를 인정하고, 자아이상이 부끄러움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월등하다고 생각하였다. 초자아와 이상의 동일시나 내면화를 통한 한 개인의 이상적 지침으로 된 것이 자아이상이며, 여기에서 어긋나거나 미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압력으로 작용하여 수치심을 느낀다. 그리고 초자아나 자아를 찾는 것은 수치심을 이해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수치심은 처벌보다 사랑과 존경심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¹⁸⁰⁾

라) 대상관계론에서의 수치심 이해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은 정신분석학에서 뺀어 나온 지류로서 프로이드의 전통 정신분석학이 선천적인 본능과 욕동에 관심을 두었다면, 대상관계 이론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분화되는 심리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내적 구조물들이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대상관계이론에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해한다. ¹⁸¹⁾

대상관계이론은 수치심이 자기를 비롯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며 수치심의 내면화 과정에 깊은 영향을 주는 ‘유아와 양육자의 관계’가 중

179) 김성애, “수치심 이해와 치료에 관한 연구-기독교 상담적 관점으로-.” 석사학위 논문, 국제신학대학, p. 24.

180) Andrew P. Morrison, Shame: Underside of Narcissism(Hillsdale, NJ The analytic Press. 1989. pp.31-32.

181) Sheldon Cashdan, Object Relations Therapy: Using the Relationship(New York: W.W. Norton Professional Book, 1988), pp. 81-82.

요하고, 수치심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건강한 양육자의 중요성’ 과 수치심이 결국 관계의 질과 연관이 된다.¹⁸²⁾ 즉, 사람들이 생애 초기에 가졌던 대인관계 경험, 특히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며, 이런 내면화된 표상들이 개인의 성격 형성과 이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조명하는 이론이다.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 즉,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양육자를 ‘대상’ 이라고 부르며 인간이 출생 직후부터 가지게 되는 대상과의 관계를 대상관계라 한다.

아이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아이는 자폐적 단계(Autism), 공생단계(Symbiosis)를 거쳐 분리-개별화단계(Separation-Individuation)에 들어간다. 36개월까지 이며 이 시기의 유아는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분리개별화의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양육자는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으므로 유아의 자기는 욕구 좌절과 실망 속에서 자기와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별개임을 깨닫게 된다. 즉 자기와 비자기의 구별이 생기기 시작한다.¹⁸³⁾ 어머니는 심리적으로 자녀를 떼어 놓을 준비가 안 되었는데 자녀는 혼자가 되어 보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대립관계에 빠지게 된다. 성장 욕구에 따라 스스로 해보고 싶기는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던 애정을 철회하거나 앓을까 하여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유아의 심리적 현상을 ‘유기불안’ 이라고 하며 이 시기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가 유기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분리개별화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상관계 이론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단계가 이 단계인데 ‘자기- 대상의 구별화 ‘과정에서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점과 그에 따른 이후의 정신건강을 추적하는 것이다.

유아시절 즉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어머니와의 심리적 분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어린이들은 사춘기가 되어 자아 정체감의 욕구가 생기면서 유아 시절에 경험했던 유기불안이 다시 생기고 사춘기의 신체적 성장에 따른 불안까지 가세하여 유아기 때보다 훨씬 격렬한 형태를 보인다.

182) 김성애. p. 26.

183) 임종렬, *대상중심 경계선 가족치료*. 서울: 한국가족 복지 연구소, 2001, p.16.

이 시기에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떨어진 나를 이루고 싶다’, ‘어머니로부터 확실하고도 절대적인 애정을 확인받고 싶다’, 즉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할 거라는 확신을 받고 싶다’ 라는 두 욕구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 역시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는 확신을 가지고 분리 개별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시기를 제 2분리 개별화단계라고 한다.

마) Erikson의 수치심 이해

Erikson 은 성격발달과정을 연구하면서 수치심을 항문기에 생기는 특정한 감정이라고 하였다. 항문기에는 자기 통제와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발달과업을 놓고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벌어지는 훈련과정이 있다. 에릭슨은 성공적으로 항문기의 과제를 극복했을 때와 아직도 미숙한 실수를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긍지, 수치심, 죄책감 등이라고 하였다. 즉 이 시기에 아이가 자신의 배설기는 조절이 안 되어서 자율성과 성취감에 손상을 받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 능력을 회의하게 되는데 여기서 느끼는 항문기의 특징적 정서가 수치심이라는 것이다.¹⁸⁴⁾

바) 자기 심리학에서 수치심 이해

자기 심리학(Self psychology)은 Kohut를 중심으로 발전시킨 정신분석학이론으로 특히 자기애와 자기 개념이 중심을 이룬다. 1950년대 말 수치심 문제에 대하여 뛰어난 저작을 보인 H. Lynd는 수치심을 자기의 개념으로 정의 하였다.¹⁸⁵⁾

(1) 수치심과 자기애

Kohut은 양육 초기 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돌봄과 반영이 부족해 자기애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아이의 요구에 양육자가 잘 대응하지 못하면 아

184) 정형수, “수치심을 지각하는 정도, 비난의 방향 및 대처방식과 우울증과의 관계,”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2008, Vol. 28, p. 3.

185) H. Lynd, *On Shame and Search for Identity*, New York L Harcourt, Brace & World, 1958, pp. 24-25.

이는 무가치 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애적인 취약성과 수치심에 대한 민감성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대인 불안이 있는 부모는 양육시 아동에게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수치심, 실수에 대한 염려를 강조하며 정서적 지지가 적거나 거부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⁸⁶⁾ 수치심과 자기애의 관련성은 발달 초기의 양육환경의 영향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Kohut은 수치심을 비이성적인 본능이나 비현실적인 초자아의 방어활동인 죄의식과 관련시킨 프로이트의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Kohut은 수치심이 인간 정신 안의 구조적 갈등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애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방어활동은 기본적인 전능한 과대 자기의 영역에 결함이 생길 때 수치심에 의해 동기화되는 것이지만, 무의식적으로 금지된 성적 혹은 공격적 충동에 대한 죄의식에 의해 동기화되지 않는다.¹⁸⁷⁾

(2) 수치심이 유발되는 비공감적 환경

코헛은 아이가 생존하기 위해서 부모의 공감적이고 반응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한다.¹⁸⁸⁾ 아이는 자기 대상의 자신을 반응해주기를 바란다. 아이는 자기의 욕구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주는가에 따라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수용 받거나 거절 받는 느낌을 갖게 된다.¹⁸⁹⁾ 아이들은 부모의 공감능력 장애로 인하여 과대자기와 이상화자기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아이의 자기는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면 자기애적 장애¹⁹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장애를 갖게 된다.¹⁹¹⁾

유아는 자라면서 좌절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186) 김성애, p. 31.

187) H. Kohut, *Thoughts on Narcissism and Narcissistic Rage, in Self Psychology and the Humanities*, 1972/1985. p.147.

188) H.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이재훈 역, *자기 회복*,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6, p. 91.

189) *Ibid*, p. 83.

190) *Ibid*, p.185.

191) *Ibid*, p.132.

것을 깨닫고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기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유아는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생존에 책임 있는 부모를 이상화하기 시작한다. 이때에 부모가 아이의 이상화를 피하지 않고 아이의 이상화를 공감해주고 받아준다면 아이는 자신이 그 대상에게 소속되었다는 소속감과 함께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내적으로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부모가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하지 못해서 과대적 자기에 고착된 상태로 자기의 과시적 욕구와 분리되어 있다면 부모는 아이의 이상화에 당혹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아이를 편안하게 받아줄 수 없다. 더 나아가 부모는 자신의 불안으로 인해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아이의 이상화를 외면해 버리게 되고, 이로 인해 아이는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느낌, 즉 자기(the self)와 관련된 수치심과 자신의 생존에 관하여 외상적인 불안을 겪게 된다. 부모의 정서적 장애로 아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주지 못할 때에 아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인 수치심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아이는 수치심이 내면화된 상태로 자라게 된다. 수치심을 내면화 하는 방식들은 다음과 같다.

(가) 부모의 엄격한 통제의 양육 방식과 수치심

이것은 수치심의 자극이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이며¹⁹²⁾ 부모의 수치심으로 인해 자신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통제하려 시도한다. 은폐의 그물망이 드러나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하며, 방심하면 노출 될 것이라는 압박감으로 자녀들을 통제한다. 자녀들은 자기 부모의 방식으로 엄격한 사고와 통제에 대한 “영웅과 악당”, “완벽한 아이”, “희생양의 모습”으로 살아간다.¹⁹³⁾

(나) 역기능적 가정과 수치심

기능장애 가정은 알코올중독, 상습적 외도, 출생의 문제, 집안의 폭

192) Kaufman, Gerhen, *Shame: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NY, Springer Pub Co. 1989, p.35-37.

193) Bradshaw, John, *Brashow on-the family: a revolutionary way of self-discovery* Florida Health Communications, Inc. 1988, 임옥희 역, *가족*, 서울: 중앙미디어, 1996, p.114.

력 같은 가족의 비밀을 통해 수치심이 내재화된다. 비밀의 “발설금지”와 “부인”이라는 규칙으로 자리잡는다. 객관적으로 비밀을 남들이 알아도 충분한 납득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장애 가족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은 문제를 과장하고 비밀을 지키는데 “협력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런 역할은 기능장애 가족에서는 생존의 방식인 것이다. 가족구성원들의 거짓 유대관계를 가지고 폐쇄적으로 유지되도록 자기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은 자기가 거짓을 폭로하면 가족을 파괴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가족의 비밀이라는 최면에 너무나 오랫동안 매몰되면 진정한 자기는 가족의 역할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¹⁹⁴⁾

(다) 가족 내의 완벽 주의

수치심은 언제나 완벽한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 이 규칙에는 경쟁적인 측면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 규칙은 수치심의 은폐를 위해 항상 남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런 체계의 구성원들은 잘못된 것, 나쁜 것 혹은 열등한 것을 피하려는 긴장된 노력을 한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자기와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내부검열체계를 열심히 가동시키며 내/외부적인 규범에 맞추어 자아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측정하고 저울질 한다.

(라) 정서적 신체적 학대

코헛은 아이가 자기를 형성하는 데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이 두 번의 기회는 공감적인 반응과 함께 융합해주고, 반영해주며, 인정해주는 자기 대상과 관계를 통해 얻는 아이의 응집적인 과대적, 과시적 자기의 확립과, 다른 한편으로는 공감적인 반응과 함께 아이의 이상화 및 융합 욕구를 허용해주고 즐거워하는 자기대상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의 응집적인 이상화 부모-원상의 확립이다.¹⁹⁵⁾ 하지만 부모의 정서적 무능력, 역기능적 아이는 자기 발달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 특히 가족

194) Charles L. Whitfield, *Healing The Child Within*, Health Communicatins, 1987. 김용교 이인출 역,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 서울: 글샘, 1995. p.80-115.

195) Heinz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이채훈 역, *자기의 회복*,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6. p. 183.

내에서 학대는 스스로 무력함을 느끼며 수치심을 만들어 낸다. 학대는 꼭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며 성적, 정서적 언어적 혹은 영적 학대가 모두 포함된다. 학대받는 아이는 내가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경우 아이의 내면은 부모로부터 자신의 이상과 야망 중 어느 쪽도 반영을 받지 못한 좌절로 인해 수치심으로 얼룩지게 된다. 결국 이 아이의 핵심감정은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수치심이 된다. 196)

기능 장애가족(역기능적 가정)의 자녀들은 항상 자신의 요구와 감정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자신이 자랑스러운 일을 했을 때에도 행운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긴다. 아이는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분이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197) 수치심은 부정적인 자기 확립에 중심요인으로 작용하며, 수치심은 건강한 자기애를 갖지 못한 부모와 그들의 자녀 양육 방식에서 개인에게 내재화의 과정을 거쳐 가족 구성원의 정체성으로 형성된다.

사) 수치심의 역기능적 요소

수치심은 사람의 행동에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준다. 수치심이 핵심감정으로 자리 잡을 때에 다음과 같은 역기능적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

(1) 수치심이 주는 거짓 메시지들 198)

수치심은 자신이 존재의 완벽하지 못함을 슬퍼하며 존재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는 성향이다. 따라서 수치심은 부족과 허약한 본성, 그리고 존재에 대한 우울을 갖게 하며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잔인한 형태로 개인에게 공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196) 조미숙,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모-자녀의 관계에 대한 자기 심리학적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서울 여자 대학교, 2009, p. 32.

197) 권혜정, *수줍음도 지나치면 병*. 서울: 학지사, 1998, p. 49.

198) 박은주,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자녀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연구 Vol. 18. No.1 2008, 총신대학교출판부, p. 215.

멀어지게 만들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간 본연의 절대적 가치를 포기하게 된다.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수치감으로 인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가하며 또 다른 종류의 학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가) 나는 부족하다. 나를 만든 하나님도 부족하다!

인간은 유한하고 부족하다. 그런데 수치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짓 메시지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나는 원래 이것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비취진 이 모습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만족한 모습을 찾아 의존한다는 점이다. 즉 나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에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방법과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해야 한다.¹⁹⁹⁾

(나) 다른 것은 나쁜 것이다.

수치심은 다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왜곡되게 만든다.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진리에 비추어 해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해석이며,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해석인 것이다. 남과 다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며, 만약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은 불쌍한 인간처럼 보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남보다 더 낫지 못할 거라면 적어도 남들과 같은 정도가 되어야 한다며 다른 것은 나쁜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옹호할 것이다.²⁰⁰⁾

199) 마리 파워스, *천밀감의 적 수치심*, 서울: YWAC 출판사, 2005, p. 41.

200) *Ibid.*, p. 77.

사) 수치심과 투사

수치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자신에 대해 광범위한 평가절하가 일어난 결과 개인은 움츠러들고, 작아지고,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그리하여 자신이 바보 같고, 유치하고 어리 석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며, 종종 모욕감과 분노감이 수반된다. 따라서 수치심은 타인의 시각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경험되므로 수치심은 전반적인 인지 양식과 관련되고, 종종 숨거나 사라지고 싶어 하는 회피 행동을 동기화 시킨다. 또한 수치심은 모욕감과 노여움, 분노감을 수반하므로, 방어적으로 타인에게 잘못을 투사하고 비난하는 경향성을 낳기도 하며,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행동방식을 동기화시키는 한편 우울이나 불안, 적개심, 복수심, 짜증,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성, 자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복종적 행동 등 각종 성격구성개념 및 정신병리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²⁰¹⁾

자) 수치심과 우울

어머니의 젓가슴을 향한 끊임없는 유아들의 열망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다. 유아에게 어머니의 젓가슴은 그를 만족 시키는 동시에 자신에게 내재된 파괴하고 싶은 충동욕구와 박해하고 싶어 하는 열망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클라인은 유아에게 경험의 유형을 통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유아는 완전히 좋은 대상과 완전히 나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대상이 때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이가 타자를 좋고 나쁜 것으로 분리하는 대신 하나의 전체로 경험하게 됨으로 많은 이익이 얻어진다. 아이는 자기의 고통과 좌절이 순수한 적의와 악에 의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류와 불일치에 의해서 생긴 것임을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로 편집적 불안이 줄어든다. 박해의 위협이 감소함에 따라 분열의 필요성도 줄어든다. 유아는 자신이 외부나 내부의 힘들에 의해 파멸되거나

201) 박미란, 이지연. “또래애착이 초기 청소년기 우정관계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자존감과 수치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청소년 연구, 2007, Vol. No 2. p. 83.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 편집-분열적 자리를 벗어나게 되자 새로운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클라인에 의하면, 생의 주된 문제는 공격성을 안전하게 담아내고 통제하는 것이다. 편집-분열적 자리에서 공격성은 나쁜 젓가슴과의 증오스런 관계에만 제한된다. 공격성은 좋은 젓가슴과의 사랑하는 관계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어있다. 유아가 좋거나 나쁜 경험들을 전체대상과의 양가적인 관계로 한데 묶기 시작하면서 편집-분열적 자리가 제공했던 평정은 깨어지게 된다. 이제 유아의 적대적 환상 속에서 파괴되는 것은 유아를 잘 돌보지 못함으로써 유아를 갈망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분리시키는 전체대상으로서의 어머니이다. 유아의 적대적인 환상 안에서 파괴되는 전체대상은 좌절의 공급자일 뿐 아니라 유일한 선(goodness)의 공급자이다. 자신을 좌절시키는 전체대상을 파괴함으로써 유아는 보호자와 피난처를 함께 제거해버린다. 그럼으로써 유아의 외부세계는 황폐해지고 내면세계는 멸절되어 버린다. 클라인은 자신의 공격성이 사랑하는 대상을 파괴했다는 유아의 강렬한 공포와 죄책감을 우울 불안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유아가 전체대상을 향하여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느끼는 경험조직을 우울적 자리라고 명명하였다.

우울적 자리에서 심각한 문제는 유아가 의존하고 있는 전체 대상(어머니)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아이는 우울 불안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조적 방어(manic defense)를 형성한다. 이제 아이는 사랑하는 대상이 유일하다는 것과 자신이 그 대상에게 의존해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자신이 무기력하게 대상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또 그 대상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또 그 대상들에 대한 통제력을 얻기 위하여 아이는 타자의 개성들을 일반화시켜버리고 일시적으로나마 환각에서 위로를 얻는다.

사랑과 미움은 모두 경험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울 불안은 항상 존재하는 인간의 중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커다란 상실과 거부, 좌절을 경험한 뒤에는 불가피하게 분열과 조적 방

어를 통해 안전을 제공해주는 편집-분열적 자리로 후퇴하게 된다. 편집-분열적 자리의 박해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 분열은 한 줌의 사랑과 안정을 유지시킬 유일한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편집-분열적 자리의 사랑은 순수하지만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다. 우울적 자리에서의 사랑은 파괴적인 증오와 회복의 순환으로 얼룩져있지만 보다 깊고 실제적이며 유연하다. 그러나 편집-분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러움이 생명의 가능성을 매장하지 않고 그것을 촉진시킨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넷째, 우울적 자리이다. 만 5-6개월 사이에 해당되며, 인지능력이 성장한 후이다. 이는 편집-분열 입장에서 진일보한 입장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통합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즉, 현실 감각이 만들어져 엄마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가 하나로 인식된다. 현실과 환상을 통합하고 구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입장이다. 왜 우울 입장이라고 부르는가? 어머니가 좋은 대상이면서 동시에 증오의 대상도 되는 것을 알게 된 아이는 자기 속에 있는 공격적 충동이 어머니를 공격해서 없애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진다. 아이는, 사랑하는 엄마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나쁜 성질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우울해 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편집-분열의 입장에 섰을 때와 우울 입장에 섰을 때는 지배적 감정이 달라진다. 편집-분열 입장에 섰을 때의 지배적 감정은 박해(피해)불안이지만, 우울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걱정(우울)이다. 클라인은 편집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는 일단 설정이 되고나면 남은 생애 전반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성격특성이 된다고 보았다. 편집적 자리를 벗어나 완벽하게 우울적 위치로 진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성인이 되어서 두 자리 사이를 왕복한다는 것이다.

차) 가인의 수치심

인간과 동물의 감정을 관찰 했던 Charles Darwin은 인간이나 동물 모두 수치심, 부끄러움, 혹은 수줍음을 느낄 경우 얼굴이 붉어진다는 신체적 특징을 발견했고 이 같은 특징을 가리켜 그들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자아평가라고 서술했다.²⁰²⁾ James W. Fowler는 다음의 네 가지를 수치심의 특징

으로 밝히고 있다. 첫째, 수치심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대면적 관계의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정서이다. 둘째, 수치심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흥미나 기쁨을 느끼려 했던 어떤 사람이 오히려 그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하는 상황과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부가적 혹은 부수적 정서이다. 이렇게 볼 때에 셋째, 수치심이란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양으로 진행되는 타인과의 경험 속에서 자신 혹은 자신의 과거 행위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정서이다. 그 결과 넷째, 수치심은 자신에 관한 혼란, 죄의 무가치성을 포함하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정서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에 가인은 수치심에 사로 잡혀 있었던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가인은 인정받고 싶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안색이 변했고 낮을 들지 못하였다.

3) 열등감

열등감은 자존감이 부적절하게 낮고²⁰³⁾, 스스로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혹은 의식,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응어리 맺히는 것을 말한다²⁰⁴⁾. 아들러는 열등감이 생기는 근원을 세 가지 - 기관성 열등, 응석받이, 무시-로부터 비롯되며, 아무 탈없이 자연스럽게 삶을 헤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키워 가는 것이다²⁰⁵⁾ 라고 말했다. Leon J. Saul은 사랑받고, 보호받고, 지지받고자 했던 아동기의 욕구를 잘 묘사하고 있는 수동적-수용적-의존적(Passive, Receptive, Dependent:PRD)이라는 용어는 열등감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열등감은 신체적 결함이나 지능지체와 같은 발달장애로 인해 촉발되기도 하고, 죄책감 때문에 유발되기도 한다²⁰⁶⁾ 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모나 남들로부터 사랑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202) Charles Darwin,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 in Man and Anima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203) 유진소, “열등감과 열등의식”, 목회와 신학, 2001년 12월호, p.178.

204) 전경인, “TV프로그램이 인관관계 개선 및 열등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p.2.

205) A. 아들러/, 오글러. *아들러의 심리학 해설*, 설영환 역, 서울: 선영사, 1987, pp. 330-331.

206) Leon J saul, *아동기 감정 양식과 성숙*, p.110.

좌절된 생각과 그 결과 늘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늘 지배적 이면,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표현하지 못한 불만이나 화나도록 자극하는 감정을 억압함으로 느끼는 핵심감정이 도피, 왜곡, 투쟁, 공격, 비난 등을 표현한다.

인간은 누구나 가지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자기 형상(self-image)이라 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면서부터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한다. 이런 과정에서 사랑과 이해를 주고 받기도하지만 서로 간에 비교 경쟁, 기대 실망, 그리고 여러 가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하기도 한다. 자기 형상은 그가 관계를 맺고 살아오면서 주고받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한 자기 해석이나 자기 느낌이 주는 영상이라 하겠다. 이런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상대적 혹은 주관적인 열등감을 갖기도 한다.

열등감(Inferiority feeling)이란 '자기를 낮추어 경시하는 감정 또는 卑劣感²⁰⁷⁾을 의미 한다. 누구에게나 작용하는 보편적 인간감정인 열등감은 반드시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즉 열등감은 개인이 고립되어 있는 한에는 그에게 나타날 수 없고 반드시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타인과 자신이 비교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열등감은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가와 자기 자신의 특질을 독자적으로 느끼는 방법에 의해 발생하며 개인과 사회 집단의 평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의미를 가진다.²⁰⁸⁾ 열등감은 스스로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하여 느끼는 심리적 감정이라. 즉 자존감(Self-Esteem)이 부적절하게 낮은 것이다.²⁰⁹⁾ 또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결여될 때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을 열등감이라고 말한다.

가) 프로이트의 열등감 이해

207) 이승녕,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1981.

208) 김용성, "열등감과 적응," 논문집 제 14 집, 고신대학교. 1986, p.166.

209) 유진소, '열등감과 열등의식' "목회와 신학 2001년 12월 호, p.187.

프로이트는 그의 심리학에서 열등감을 이해하는 방식은 ‘성적’ 인 면에서 남성으로서의 우위와 여성으로서의 열등을 구분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적 동기를 성욕에서 연역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그는 본질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성기를 비교우위에 두고 있다고 보았다. 즉, 여성은 ‘남성 성기의 부재’에서 오는 감정으로, 모든 여성은 열등감에서 가로 잡혀 있다고 보았다. 여성은 자신의 성기가 작다는 이유로 남성들처럼 여성을 경멸하게 되고, 적어도 그러한 생각을 보리지 않는 한 남자처럼 행동하려 든다.²¹⁰⁾

나) 아德勒의 열등감 이해

오늘날 흔히 말하는 열등감이라는 용어는 아德勒로부터 비롯되었다. 아德勒는 인간의 심층심리에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을 모든 병리 현상의 일차적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이들 병리현상은 열등감에 대한 이차적 반응이라고 하여 열등감을 “정신병리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하였다.²¹¹⁾ 아德勒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열등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 존중감은(self-esteem)이란 개인의 자아 체계, 성격 및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심리적 개념으로써 자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이며 자신 스스로를 능력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이다. 아德勒에게 있어서 열등감은 하나의 문화를 창출해내는 원동력 같은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정신력에 있어서도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한계점이 있고 환경적 제약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 많이 받는 존재이기에 더 많은 열등감을 느낀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德勒는 인간이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작용으로 즉, 우월애로의 추구를 통해 발전을 이루어 가고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간다고 보았다. 인간의 완전과 안전으로 향하는 노력

210) Sigmund Freud,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전집 9권*. p.17.

211) 김춘경, "열등감과 교육, -Adler의 개인심리학을 중심으로-", *교육학 연구*, 아동기

은 인간 스스로가 불충분과 불안을 자각하는 가운데 일어난다고 보았다. 열등감이 부정적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로 이해되어졌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모든 진보는 자기 자신을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열등감은 인류가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 하는 모든 노력의 결과이다. 그런데 아德勒의 우월성 혹은 완전을 향한 추구는 천성적인 것이며, 삶 자체라고 보았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다 나은 다음 단계로 발전하려는 추구를 계속하며, 이러한 우월성을 향한 추구는 사람이 따라서 서로 다른 수천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²¹²⁾ 아德勒의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보다 나은 단계로 발전하려는 추구라는 측면에서 Erickson의 발달 단계와 비슷한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긍심이나 자기의 능력을 위하여 추구하는, 바꾸어 말하면 이기적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는 신경증 환자(neurotic person)를 제외하고,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의 목적을 위한 추구는 일차적으로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²¹³⁾

아德勒는 열등감이 생기는 근원을 세 가지 기관성 열등(organ inferiority, 응석받이, 무시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였다. 기관성 열등감은 기관의 손상으로 외부로부터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할 때에 심신 양면에 영향을 미친다. 응석받이는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다. 응석받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방해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응석을 부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게 되어 결국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자기가 의도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자아가 형성된다. 그런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받기만 할 줄 알며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남을 위해 베푼다는 것은 전혀 모르게 되는 것이다. 응석 받으며 자라난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성의 결핍은 그 성장과정에 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아이는 적응력 결여로 열등감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212) 이정미, “인지상당을 기초로 한 열등감 극복에 대한 연구, 성경인물을 중심으로,” 상담학 석사학위 논문, 한일장신대, 2005.

213) 윤정숙, “Adler와 Horney의 자아형에 관한 연구,” 신학지남, 1987, pp. 68-69.

무시인데 무시를 받으며 자라난 어린이들이 열등감에 빠지는 것을 쉽게 발견된다. 그들은 탈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키워간다.²¹⁴⁾ 아들러에 의하면 유년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강하게 형성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다) Erickson의 열등감 이해²¹⁵⁾

에릭슨의 중요한 이론은 자아의 성장(growth of the age)에 관한 것이다. 에릭슨은 인간발달의 전 생애에 대해 접근을 시도한 학자였다. 에릭슨은 아동의 자아가 형성되는 심리. 역사적 환경을 강조하였고, 자아발달은 인간의 전 생애를 총망라하고 있다. 에릭슨은 생활에서 오는 심리. 사회적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관심을 가졌다. 에릭슨은 인간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인생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 가, 그리고 초기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이것이 어떻게 그가 성장한 후 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는지를 앞으로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는 각 단계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요구가 따르고 이 요구는 하나의 위기로써, 이것의 해결 여부가 개인의 인생 전환점이 된다고 하였다.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사회발달 과업이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²¹⁶⁾ 그리고 에릭슨은 각 단계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대리임을 명시함으로써 그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에릭슨은 인간의 삶은 보편적으로 8단계의 공존하면서도 순차적으로 주도해나가는 역동들에 의해 사이클이 조성된다고 보았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해석은 ‘후성적 원리’ (epigenetic principle)²¹⁷⁾라는 생물학적인 용

214) A. 아들러/ H. 오글러, *아들러의 심리학 해설*, pp. 330-331,

215) 에릭슨은 인간 발달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함으로써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5단계를 확장하여 8단계이론을 정립하였다.

216) 김원형 외, *인간과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p.125.

217) Erik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second ed.* New York: W. W. North & Company, Inc, 1950, pp.

어를 사용하였다. DNA 구조 내에 잠재적이며 발현 가능한 인자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내부의 상호작용이나 외부의 자극에 의해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후성적 원리라는 생물학적 의미이다. 즉 에릭슨에 의하면 그이 8단계의 역동들은 태어나면서 삶을 움직여가는 힘으로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러다가 그가 제시한 각 시기 즈음에 사회 심리적 강등을 거치면서 하나씩 주도적으로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²¹⁸⁾

사회 심리적 생애주기 이론을 제시한 Erickson에 의하면 학동기 단계에서 아동이 학교에 다녀서 그 문화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근면감이 발달한다. 한편으로 이런 근면성을 형성하지 못할 때 열등감이나 무능력감이 발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자신의 기술이나 지위가 동료들에 비추어 열등하다고 보면 앞으로의 학습추구에 용기를 잃게 되며, 아동이 자신의 성, 종교,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기 자신의 기술이나 동기가 아닌- 자기의 인간적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열등감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다.²¹⁹⁾

이런 근거로 Erikson은 그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의 네 번째 단계에서 자아발달의 기본 갈등으로 근면성(undusty) 대 열등감(inferiority)을 들었다. 이 단계는 약 6세에서 11세에 해당하는 아동기이다. 이 단계 동안의 건강한 자아성숙은 근면감을 형성시켜 기본적인 문화기술과 유능성을 학습하는데 큰 토대를 이룬다. 그러나 학교에서 초기 좌절이나 실패 경험을 갖게 되면 자신에 대한 부적당감과 열등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근면감의 부족에서 생기는 자기의심과 무능감과 같은 낮은 자존심을 열등감으로 보고 있다. 학령기에는 자기의 성취하자하는 일에 따라 남들에게서 인정과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의해 근면한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중요한 사회적, 학업적 기술을 숙달해야만 한다.

269-271.

218) Erick H.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59, 1980, p. 54.

219) Ziegler, D. J, *성격심리학*, 이훈구 역, 서울: 법문사, 1991, p.

이 시기는 아동이 또래와 자신을 비교하는 시기이다. 만약 충분히 근면하다면, 아동은 자신 있게 느끼는 사회적, 학업적 기술을 획득한다. 이런 중요한 속성 획득의 실패는 열등감을 가져온다.²²⁰⁾

위와 같은 이론들을 종합할 때에 정신분석학자들은 열등감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인간의 필연적 감정이라고 말한다. 신체, 정신, 활동 능력에서 영아는 성인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아는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고, 이 열등감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열등감이 최기의 양육 상황에 따라서 강화되기도 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열등감은 가진 이들은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인정과 사랑을 못 받고 지내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그 결과 늘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²²¹⁾ 심리학자들이나 일반 성격심리학자들은 열등감의 원인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데 이 자아상은 그가 외부 세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²²²⁾

라) 가인의 열등감

(1) 형제 갈등과 열등감

형제 관계의 특성상 형제는 같은 부모, 같은 공간, 같은 자원을 공유한다. 이런 공유로 인하여 형제는 부모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자연스럽게 서로 경쟁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형제들은 서로 관심과 애정으로 서로 돌보며 지지하는 따스함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논쟁하고 싸우고 거부하는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²²³⁾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본 것과 못 본 것 등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열등감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열등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²²⁴⁾ 특히 형제 자매간에는 열등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형제자

220) David R. Shaffer, *발달심리학*, 송결연 역, 시그마프레스, 2005, p. 57.

221) 차준구, *열등감과 정신질환*, 서울: 두란노, 1993, p.77.

222) 이훈구, *열등감*, 서울: 두란노, 1990,

223) 박소라, '형제갈등의 해결과정과 어머니의 역할',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 논문, 2001, pp. 7-8.

224) 이진석, '열등감 치유를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98, p. 23.

매의 경쟁, 둘째는 부모의 차별 대우(편애) 셋째로 역할 기대의 차이 넷째는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등을 들 수가 있다.²²⁵⁾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여러 가지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표현한다. 방법적으로는 도피, 억압, 왜곡, 비하, 합리화, 거짓, 자포자기, 좌절, 은둔, 등 소극적인 방법과 투쟁, 공격, 흑평, 비난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표현 될 수도 있다.²²⁶⁾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인데 그는 외적인 조건은 다른 백성보다 열등할 것이 없었다.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삼상 9:1, 10:21).” 그러나 그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고하자 ‘가장 작은 지파와 가장 작은 가족임을 고백했고(삼상9:21) 행구 사이에 숨은(삼상10:22) 것으로 보아 열등감이 강했던 사람으로 보인다.²²⁷⁾ 그가 다윗과 비교 되자 열등감이 표면으로 드러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가인은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제사들 드린 아벨에 대하여 열등감을 보일 수밖에 없다. 가인은 자신의 열등감을 참을 수 없어서 동생 아벨을 공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장자 상속권과 가인의 열등감

고대로부터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을 특별하게 생각했는데²²⁸⁾ 땅에서 처음 난 것과²²⁹⁾ 가축의 처음 난 것처럼 여인의 몸에서 난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비로운 첫 선물로 여겼고,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장자는 장자권과 상속 상의 우선

225) 이은영, '형제자매간의 열등감에 대한 성경적 상담',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논문, 2007, pp. 28-29.

226) A. 아들러/H. 오글러 저, *아들러의 심리학 해설*, 설명환 역, 선영사, 1987, p. 85.

227) 이관직, “성경인물들이 품은 열등감의 특징과 그 극복,” 목회와 신학, 서울:도서출판 두란노, 1996년 2월호, p. 72.

228) 출13:2, 12, 13, 15, 22:28-29, 34:19.

229) 출23:19, 34:40-46, 레23:17.

권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법률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다(창43:33) 아버지 사후 장자는 다른 형제의 두 배를 상속하고 분배를 담당했다.(신명기 21:17)

가인이 태어났을 때에 아담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4:1) 고백한 것으로 보아 가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가인에 대한 아담의 기대를 반영한 말이기도 하다. 기대란 인간관계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내면화 하여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²³⁰⁾ 기대는 언어는 물론 몸짓으로 전달되며 어린이는 성인의 기대를 내면화 한다.²³¹⁾ 즉 가인은 부모의 기대를 내면화 하여 자신은 당연히 여호와로 인하여 득남하였기에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좋아했던 가인의 제사가 거부되었을 때에 가인은 장자권의 상실 같은 절망을 맛보았을 것이다. 결국 이 사실이 열등감을 부추겨 결국 살인을 가져왔다.

성서 본문에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성서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 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4:4하-6)라는 구절을 통해서 가인이 동생과 비교될 때에 열등감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것이 자이귀인(self-attribution)이다. 자이귀인이란 자신의 행위나 행위로 인해 생긴 결과를 관찰하고 이 현상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결국 자신의 성향에 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자신이 이룩한 일을 관찰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존경과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는데 중요한 반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적인 자기 존중감의 형성은 지속적인 자이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²³²⁾

230) 윤영애, '자녀의 출생순서에 따른 어머니의 기대수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p. 2.

231) 이동원, “현대사회 부모의 역할,” *부모교육 프로그램 탐색:유아지도교실 2*,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편: 서울: 창지사, 1986, p. 39.

232) 김명숙,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자기존중감과 열등감과 관계*,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바로 분노하고 있다. 즉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가인이 자아 존중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열납하지 않은 것을 관찰하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 그의 반응으로 그가 열등감에 사로 잡혔던 것으로 판단 내릴 수 있다.

Reasoner는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며, 타인과 자신의 능력을 잘 인식하고 주위 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소속감을 느낄 뿐 아니라, 문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여 성취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으면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알고 목적의식과 미래에 대한 이상으로 동기화되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위의 자료를 잘 이용한다.²³³⁾

이를 종합해볼 때에 가인은 자아 존중감이 낮았고 그로 인하여 열등감에 사로 잡혔다. 그렇기에 그의 삶과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과 제물을 열납하지 않았던 사건이 오히려 성숙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는 바로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다.

4) 적개심과 공격성

공격성 발달에 관한 이론은 크게 나누면 Freud와 Lorenz을 중심으로 한 본능이론과, Donald의 욕구-좌절이론과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Dodge의 사회정보처리 이론, 인지신연합이론을 들 수 있다. 첫째로 본능 이론을 주장한 Freud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본능(Thanatos)과 삶의 본능(eros), 성의 본능(libido)을 가지고 있고, 공격성은 이들에 의해 나타나는 본능적 행동이라 하였다. 파괴적인 죽음의 욕망이 내부로 지향될 때는 자기를 확대하고, 자살을 기도하며, 우울증을 유발하고, 외부로 지향될 때는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둘째로 욕구-좌절이론은 Donald에 의해서 제시되었는데, 본능이론의 내적인 접근방법과는 달리 개인에게 영향을

논문, 2003, p. 21.
233) Ibid, p. 35.

미치는 외적 조건을 공격성의 원인으로 보려는 이론이다. 여기서의 욕구 좌절은 목표 획득에 간섭을 받거나 방해 받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긴장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긴장 상태일 때, 사람들은 좌절을 가져오는 원천에 대해 직접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대신 공격하려 한다. 셋째로 사회학습이론은 인간의 많은 행동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학습될 수 있으며 강화를 받을수록 더욱 자주 일어난다. Bandura는 공격적 행동은 관찰이나 모방을 통하여 학습되며 반복을 통해 강화된다고 하였다. 넷째로 사회정보처리 이론은 사회인지 이론이라고도 하며 인간은 행동적 반응을 이끄는 일련의 정보처리단계의 과정과 그 내용을 밝히려는 Dodge가 주장한 이론이다. 공격적 특성을 지닌 아동은 모호한 상황에서의 타인의 의도를 공격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공격적인 대안을 더 선호한다. 개인이 외부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 그 자체가 중요한 개념이 된다. 다섯째로 인지신연합이론은 사회 인지적 과정(process)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개인적 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지적 평가과정이 그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본다. 불쾌한 사건이 이야기 하는 부정적 정서가 중요한 개념이다.²³⁴⁾

1) 적개심

(1) 일반론

적개심은 특히 어린 시절에 사랑과 인정과 대우 받으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 화, 분노, 폭력, 잔인함이나 그와 유사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충동 같은 것을 포함한 감정을 억압하였을 때 생긴다고 역동심리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적개심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행동 동기 이면서 가장 순화하기 어려운 힘 중의 하나이며 가장 큰 에너지라 하고, 공격성보다 더 정확한 개념이다²³⁵⁾.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내부를 향하고 자기와 같은 인간인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신경증적인 적개심은 인간의 불합리하고 병리적이며 적대적인 행동화(acting out)이다²³⁶⁾. 정신적,

234) 이명선, "위니콧의 공격성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고찰," 2008,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pp. 9-10.

235) Leon J saul, *아동기 감정 양식과 성숙*, p.,179.

정서적 삶의 정신역동에서도 온갖 종류의 마찰, 손상, 갈등이나 분노는 적개심을 낳고, 그 적개심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방식을 찾는다.

Leon J. saul과 이동식은 환자는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대상한테 적개심이 생겨 그 대상한테 사랑받지 못할까 봐 적개심을 표현하지 못해 억압하게 되어 불안이나, 우울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온다.²³⁷⁾ 고 했다. 지난 친 적개심은 유년기 동안의 정서적 외상의 결과이며, 핵심감정의 형성 배경처럼 어릴수록 정서적 외상은 생기기 쉽다는 것이다.

Saul은 적개심을 심리학적 상관물이면서, 또한 화를 내게 만드는 자극이나 위협에 대한 신체의 자동적, 생리적인 반응으로 적응과정 중 투쟁-도피 기제의 일부라고 보았다.²³⁸⁾ 어떤 형태의 위협이나 좌절도 도망치거나 파괴함으로써 그 위협을 제거하려는 충동을 야기한다. 야생상태라면 이러한 반응을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겠지만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인간에게는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사회는 일정한 사회화를 요구한다. 사회화는 일종의 사회 규범의 내면화이기에 내면화된 규범과 적개심이 충돌한다. 사회는 야생상태와는 전혀 다른 적응기제, 즉 사회적 협동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²³⁹⁾ 적개심은 외적인 위협과 좌절에 의해 즉각적으로 야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것 (수치심, 열등감, 상처 입은 자존심과 질투심, 주로 너무 강한 의존적 사랑의 욕구에 뿌리를 둔 것들)에 의해서도 쉽게 야기된다. 적개심은 죄의식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낳고 종종 자신에게 돌려져 자기 자신을 “자신의 가장 무서운 적(패배자)”으로 만들고 만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극점이 있는데 의존적 사랑의 욕구 그리고 거기에 내재한 모든 것과 그 결과들이며, 두 번째는 격렬한 적개심과 그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류의 적개심과 폭력의 성향 중 어느 정도가 인간 본성에 내재한 것

236) Ibid, p.180.

237) 이동식, *도정신치료입문*, p. 278.

238) Saul, 1976.

239) Allée, 1951, Lorenz 1966.

이고 얼마만큼이 초기의 조절에 의해 조건화된 것인가 하는 문제, 지구상의 한 식구가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인간이 왜 서로를 그리고 스스로를 고통에 몰아넣고 죽이기까지 하는가의 문제를 양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과연 얼마만큼이 자연적인 것이고 또 얼마만큼이 인위적인 것인지...적개심의 상당 부분이 어린 시절의 조건화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예방과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양육과정에서 광범위한 개선을 보이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프로이트는 적개심이 “사소한 차이점에 관한 자기애”에 기인한다고 하며(1914), 그 예로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들었다. 적개심은 아마도 유사성이나 사소한 차이의 영향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낮은 거에 접했을 때 그것이 친구인지 적인지 분명해지기 전까지 가지게 되는 모든 동물에서 볼 수 있는 “다른 것”에 대한 근원적이고 본능적인 혐오감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경우, 적어도 분석가가 진료실에서 보게 되는 적대적 공격과 폭력적 성향은 대부분 환자의 어린 시절의 학대(태만이나 과잉충족)로 생긴 병리적 아동기 양식의 결과이다. 그렇지만 공격성과 살인에까지 이르는 본능적인 적대적 충동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다. 적개심과 폭력성을 조절할 수 있는 정신역동적 기제는 프로이트가 기술한 자기애(Narcissism)이다. 자기애는 자기보존 본능의 일부를 스스로 또한 남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고 존중받으려는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타인에 대한 자아도취적 동일시가 약해지면 스스로에 대한 자기애의 보호도 사라지고 적대적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린다. 적개심의 원천은 본능적일 수도 있고 아동기 감정양식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지닌 적개심의 상태, 강도, 역할, 근원, 형태, 방향, 적개심에 대한 성격의 나머지 부분들의 반응, 적개심의 처리방식, 적개심의 억압방식, 적개심의 표현방식을 이해해야한다고 했다.²⁴⁰⁾ 사랑 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 되지 않으면 적개심이 생기고 그걸 억압해서 병이 생기는데 모든 감정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다.

240) Leon J saul, 적개심의 정신역동(1976). *아동기 감정 양식과 성숙*, p.188. 에서 인용,

인간의 이기심은 자기 보존적 성향, 즉 ‘본질적 자기애 (narcissism)’ 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성장과 발달에 모두 쏟고 정서적 관심이 가족에게 모두 집중되는 시기인 유년기에 이기적 성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²⁴¹⁾ 어른들로부터 관심이나 보상이 채워지지 않고 무시당했을 때 속에서 일어나는 불만스럽고 화나도록 자극하는 감정을 억압함으로 느끼는 핵심감정 이다.

나) 공격성

심리학자들은 공격성이 외부의 부정적이거나 불유쾌한 사건이 개인의 인지 능력, 정보 처리 능력과 만나 공격성이 유발된다고 주장하였고, 정신분석학자들은 공격성 근원을 자체에 관심을 두어 죽음 본능에서 공격성이 근원된다고 하였다. 심리학자들은 공격적 행위를 없애거나 공격성 유발에 원인이 되는 부정적인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정신분석학자들은 공격성이 본능이므로 분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공격성을 통제하거나 공격을 완화 하는데 집중한다.

그러나 위니콧은 이들과 달리 공격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공격성 그 자체에 근원이 있다는 본능성을 받아들이지만 죽음본능이 아니라 생명 본능에서 공격성이 근원된다고 주장한다. 공격성이 본능의 몸짓으로 인격이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때에 공격성을 활동성 (motility)과 같은 의미로 정의하였다. 또한 위니콧은 공격성이 발달 단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1) 공격성의 정의 및 유형, 공격성의 원인

(가) 공격성의 정의 및 유형

공격성의 정의는 국어사전에 ‘적으나 증오와 관계가 있는 모든 종류의 파괴적인 행동, 특히 육체적인 타격이나 악의를 품은 발언 등으로 상대

241) Leon J Saul, *아동기 감정 양식과 성숙*, pp. 107.

방에게 손상을 입히려는 행위와 그런 행동을 하려는 욕구 경향을 말한다. 242) 학자들은 좀 더 분류하여 ' 행동관점 '과 ' 동기관점 '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행동관점으로 공격성을 정의한 학자들은 결과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행동이론가인 부스(Arnold H. Buss)는 공격성을 대인간의 상호 작용 상황에서 유해한 자극을 나타내는 행동 '으로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행위를 강조하여 다른 유기체에게 불쾌한 자극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행동관점과는 달리 공격자의 의도나 동기를 중요시 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보이는 결과만으로는 충분하게 공격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위자의 의도를 포함하여 공격성을 정의 한다. 학자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르지만 공격성의 유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격하는 대상, 공격 수단, 공격 표현 방법, 공격 목적, 공격 의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나) 공격성의 원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심리학에서 공격성의 원인을 다양하게 이야기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 이론은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가정, 그리고 그들의 삶에 관한 기록이 없어서 이런 이론으로 가인과 아벨의 공격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인지신연합이론(Cognitive Neo association Theory), 사회정보처리이론(Social Processing Theory)이다. 이 이론의 공통점은 외부 환경이 공격성 유발원인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이 외부 환경이 개인의 인지능력, 정보처리능력에 따라 반응과 표출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 공격성의 제반 연구

(1) 정신분석학적 이해

242) 두산동아 사서 편집국, *새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2000, p. 250.

정신분석이론에서는 개인의 행동과 감정, 생각 등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성적, 공격적 충동에 의한 것이라 여기며, 결정론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 프로이트의 인간의 성격구조론 관점 243)

프로이트는 인간을 의식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비합리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보고 있다. 1920년대 초반에 정신 기능에 대한 프로이트의 견해는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당시 그는 지형학설로 정신분석 이론을 통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유는 무의식적 죄책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환자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형학설만으로 이 죄책감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죄책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의 모델을 생각하게 되었고, 1923년에 그는 "자아와 이드"의 서문에서 구조론을 썼다.

(a) Id (원초아)

243) 프로이트의 성격 이해는 정신 지형학설, 성격 구조론, 유전학적 이해로 나누는데 지형학설은 프로이트가 비교적 초기에 주창한 이론으로 그는 사람의 마음이 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식, 보통 때에는 의식할 수 없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의식의 세계로 나오는 전의식(前意識),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로 구성된다고 봤는데 마치 지도처럼 구분되었다고 해서 붙인 이론이다. 의식은 성욕 열등감 폭력성 등을 무의식의 영역에 가둬 두고 이 때문에 사람은 알 수 없는 갈등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5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고 보았다. 각 단계마다 정신(원초아, 자아, 초자아)이 각기 다른 자각 수준(의식, 전의식, 무의식)에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1) 1단계 구순기(0-1.5세) : 이시기 아동의 리비도는 입, 혀, 입술 등 구강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먹는 행동을 통해 만족과 쾌감을 얻는다. 2) 2단계 항문기(1.5-4세) : 이시기 동안 아동의 성적 관심은 항문 부위에 모아지며 대소변을 통해 쾌락을 느낀다. 3) 남근기(4-7세) : 이시기는 정신 에너지를 성기에 집중시켜 성기를 가지고 놀며 쾌락을 느낀다. 이때 심리적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남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를 경험하게 되고 여아는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를 겪게 된다. 4) 잠복기(6-12세) : 다른 단계에 비해 평온한 시기로 성적욕구가 억압되어 성적 충동 등이 잠재되어 있는 시기이다. 반면 지적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지적활동에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5) 사춘기(12세 이후) : 앞 단계에 잠복되어 있던 성 에너지가 무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나오게 된다. 신체적, 생리적 능력 역시 갖추고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순조롭게 넘긴 청소년은 이타적인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다.

원초아는 성격의 가장 원시적인 체계이다. 원초아는 프로이드가 무의식이라고 불렀던 성격의 한 부분으로 유전되며 출생 시에 이미 존재하며 그 속에서 자아와 초자아가 분화되어 나오는 모체이다. 원초아는 공격적이고 동물적이며 조직되지 않은 것으로서, 규칙도 따르지 않는 개인에 내재하는 정신적 원동체이며 개인의 생의 기초가 된다. 또한 긴장을 감소시키려는 쾌락의 원리를 따르므로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억압을 싫어하고 무시한다. 따라서 모든 행동은 자애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며 언제나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b) Ego(자아)

자아는 외적세계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 수정된 본능의 일부이다. 성격의 조직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 지향적 체계로서, 성격의 집행자이며 경영자이다. 자아는 본능과 초자아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본능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게 된다. 자아는 본능적 충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대상과 방법이 발견될 때까지 정신에너지의 맹목적인 방출을 지연시키고 만족을 지연시키는 현실원칙에 입각하여 작동된다. 자아는 2차적 사고과정을 하게 되는데 1차적 사고과정이 대상의 표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자아는 실제로 그러한 대상을 발견하는 데 작동하는 것이다. 2차적 사고과정은 긴장감소를 위해 수립한 행동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이것을 현실검증이라고 한다. 현실검증을 통하여 충동을 더욱 잘 지배할 수 있게 되며, 환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c) Super ego(초자아)

성격의 도덕적인 부분이며 심판자로서 자아와 함께 작용하여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성격발달의 기제인 동일시 과정이 초자아를 형성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작용을 한다. 즉, 부모나 양육자의 말이나 행동 등에 담겨져 있는 가치, 신념, 행동 등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초자아는 자아이상과 양심이라는 두 개의 하위체계로 구성된다. 자아이상은 부모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으로

서, 부모의 칭찬에 의해 형성되는 부분이다. 이에 반해 양심은 부모가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간주하는 것으로서 부모의 처벌에 의해 형성된다.²⁴⁴⁾

(나) 성격의 역동적 이론

성격의 역동적 이론이란 성격의 이드, 자아, 초자아 사이에 정신에너지의 분배에 있어서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내적 장애에 근거를 두고 심리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 사람은 이드가 너무 강하고 초자아의 결여로서 지나치게 무책임하고 반사회적인 행동과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보이므로 초자아를 강화시킬 때 인격치료가 가능하다.

(가) 본능

Freud는 이드의 에너지가 선천적인 욕구인 무의식적 본능(instincts)으로부터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이드를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구분하였다.

(a) 죽음의 본능·공격적 본능(Thanatos)

Freud는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죽음의 본능’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는 죽음의 본능이 자신에게로 향해 있을 때는 주로 자기파괴나 자살로,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을 때는 공격성이나 전쟁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하여 이를 공격적 본능이라고도 하였다. 공격적 본능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힘으로 자기주장, 야심, 경쟁심, 성공하고 싶은 욕구, 에너지 활용, 결단력, 정력 등이 여기에 속한다.

(b) 삶의 본능·성적본능(Eros)

Freud는 ‘삶의 본능’에 성, 배고픔 및 자기 보호 등 개인과 종족의

244) Hall Calvin S, *프로이트 입문*, 황문순 역, 서울: 한림미디어, 1999, p. 35, pp. 43-44, p. 48.

생존에 관련된 모든 본능을 포함시켰다. 그는 성적 본능을 인격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으며 성적 본능에 의해 이야기 되는 에너지를 리비도(Libido)라 불렀다. 성적본능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랑, 열정, 생식에 대한 욕망, 타인의 필요성, 일이나 예술에 대한 창조성 등이 있다.

(나) 정신 에너지

Freud는 정신 에너지를 정신기능을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힘 혹은 추진력으로 믿었다. 이는 이드에서 유래되며 본능적으로 기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정신에너지는 이드에서 자아로 그리고 자아에서 초자아의 형태로 전환된다. 정신에너지는 이러한 세 가지 인격 구성 요소 내에서 자아가 가장 잘 유지되고 이드의 충동적 행위와 초자아의 이상적 행동 간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분포되어 있다. 이세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많은 양의 정신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행동과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정신에너지 가운데 이드가 지나치게 저장되어 있을 때는 충동적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자아가 지나치게 넘치면 자기 침체나 이기적 행동이 나타나며, 초자아가 지나치게 많으면 엄격하고 자아 비난적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프로이트는 폭력이 인간 정신에서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이라고 한다. 생명체는 외부의 대상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공격적 본능과 숙명성이 있다고 프로이트는 보았다.²⁴⁵⁾ 인간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측면을 욕동(drive)이론, 즉 본능이론을 통하여,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역동적인 이원론적 개념으로 인간 심리적 요인을 설명하였다.

(2) 클라인(Klein):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공격성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죽음의 본능이론을 수용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임

245) Sigmund Freud, *문명 속의 불만, -왜 전쟁인가?-* 김석희 역, pp. 341-348.

상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녀는 1920년대 초기 논문에서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리비도의 발달과 더불어 성기적, 오이디프스적 성이 도처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생명 본능을 받아들인 후 1964년 「분열적 기제들에 대한 해설(Notes on Some Schizoid Mechanism)」이라는 논문에서 편집-분열적 자리(paranoïd-schizoid position)의 개념을 이야기 했다.

(가)편집-분열적 자리

클라인은 두 개의 극단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유아의 경험을 나누었다. 유아의 대조적인 두 개의 상황을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에서 유아는 사랑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느낀다. 놀라운 영양분과 풍부한 사랑으로 가득 차있는 ‘좋은 젖가슴’은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젖을 공급해주고 사랑스런 보호로 그를 감싸준다. 그는 이 ‘좋은 젖가슴’을 사랑하게 되고 그 보호하는 양육에 깊이 감사를 느낀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유아는 박해와 고통을 느낀다. 그의 배는 비었고 그의 배고픔은 그를 안으로부터 공격한다. 증오스럽고 고약한 ‘나쁜 젖가슴’은 이제 내부로부터 그를 공격하고 버린다. 유아는 이 ‘나쁜 젖가슴’을 미워하며 강렬하고 파괴적인 보복환상에 사로잡힌다.

클라인이 묘사한 분열된 세계는 어떠한 현실검증 능력도 생겨나기 훨씬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유아는 그의 사랑과 미움에 대한 환상들이 환상의 대상들에게 실제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아동은 ‘좋은 젖가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대상을 보호하고 회복시킨다고 믿으며 ‘나쁜 젖가슴’에 대한 자신의 증오는 대상을 멸절시킨다고 믿는다. 아동은 충동들을 전능감을 갖고 경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극히 위험한 장소이며 자신의 충동의 댓가 또한 매우 크다고 느낀다.

이러한 생후 초기 경험에서 유아가 어떻게 정서적인 안정을 이루느냐는 그가 얼마만큼 이 두 세계를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좋은 젖가슴이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은 나쁜 젖가슴의 악의로부

터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나쁜 젖가슴에 대한 아이의 분노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강력한 환상들에서 구현된다. 아이는 이러한 환상을 실제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을 해쳤다고 느낀다. 이때 파괴적인 분노들은 나쁜 대상과의 관계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을 조금이라도 혼동하게 되면 좋은 대상은 파괴되게 된다. 만약 아이가 그렇게 해서 좋은 젖가슴을 파괴해버린다면, 아이는 나쁜 젖가슴으로부터 보호받을 피난처를 잃게 된다.

클라인은 유아 초기의 이러한 경험 체계를 편집-분열적 자리라고 명명하였다. 편집증(paranoid)은 피해의식에 의해 생긴 불안, 다시 말해 밖으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악의적인 세력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 분열증(schizoid)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방어로서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스런 좋은 젖가슴을 미워하고, 미움 받는 나쁜 젖가슴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분열(splitting)을 지칭한다.²⁴⁶⁾ 편집-분열적 자리는 이처럼 유아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공격성, 파괴성 불안, 공포인 죽음의 본능을 잘 나타낸다. 이것은 바로 인간 본연이 지니고 있는 폭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정신분석 이후인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욕동(본능) 구조에서 공격성이라는 개인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동기적 에너지들을 받아들이며, 이것이 이미 선천적이고 선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본다. 프로이트와 다른 점이 있다면 클라인에게 있어서 욕동, 즉 본능은 ‘관계’라는 것을 의미 한다는 점이다.²⁴⁷⁾ 즉 유아의 내면에 있는 환상이 본능적인 공격성을 각 대상들의 관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환상 속에서 어머니를 잔인하게 공격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공격을 통한 관계이다. 클라인이 본능이론을 통하여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니는 폭력성과 파괴성에 대해 더 접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의 죄의식의 기원을 오이디푸스 시기의 갈등구조의 해소에 두었던 프로이트의 입장에서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삶 충동과 죽음의 충동간의

246) H. Segal, *멜라니 클라인: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 의학*, pp.126-138.

247) Jay R. Greenberg, Stephen A. Mitchell,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0, p. 241.

끊임없는 갈등 론을 받아들이면서 죄의식을 유아의 심리내적 갈등과 충동의 산물로 본다. 죄의식은 초자아 형성의 산물이다.²⁴⁸⁾

(3) 위니캣(Donald W. Winnicott)의 공격성

위니캣에게 공격성은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본능이다. 즉 인격(personality)이 통합되기 전부터 공격성은 존재한다고 보았다. 위니캣은 공격성은 운동성(mobility), 또는 활동성으로 설명하였다. 배속에서 있는 아이부터 신생아들은 인격이 완성되기 전부터 운동성의 공격성을 보인다. 그러나 그는 죽음 본능이 아니라 생명 충동으로 살아 있는 운동성이라고 설명한다. 유아의 생물학적인 본능을 만족시켜 주는 유아의 생기발랄한 운동성에 어떻게 양육자가 관계를 맺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성격 발달이 달라지는 것이다. 생애 초기에 유아의 공격성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유아의 성격발달과 자아의 통합을 이루는 참자기(true self) 형성을 하는데 매우 직접적이고 중요한 유인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자아’²⁴⁹⁾가 통합됨으로 형성되는 인간 행동의 주체로서의 ‘자기’²⁵⁰⁾에 관한 독특한 이론을 통해서 프로이트 학파나, 클라인 학파의 이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발달 이론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그는 주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별화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기의 험난한 투쟁을 연구했다.²⁵¹⁾

위니캣은 생의 아주 초기에는 자기라는 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248) M. Klein, *Early Stages of the Oedipus Complex*, in M. Klein, *The selected Melanie Klein*(Ed.), J. Mitchell, New York, Penguin Books, 1986, p. 70.

249) 위니캣은 참자기를 활기 있고 기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감정을 깊이 체험하는 능력, 적절한 권리를 기대하는 능력, 자기를 활성화하고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존중감의 인정, 고통스러운 감정을 진정시키는 능력 등을 말한다. 그런데 하트만은 자기를 자아 안의 한 기능으로 보았다. 그는 자기를 자기 애적 에너지의 측면에서 강조된 것으로서의 자기(self)를 인정했다. James F. Masterson, 임혜련 역, *참자기*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pp.69-72.

250) 미국 정신분석학회 편, 381, 자기는 인격의 핵심 부분을 가리키는 심리학적 개념이다. 이것은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영향 사이의 상호 작용은 개인이 초기 자기 대상과 갖는 경험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점차적으로 구조를 지닌 단일체로서의 자기를 출현시킨다. 자기를 신체와 정신 조직을 포함한 실제 개인의 전체 인격을 가리키는 말이며 ‘다른 사람들’ 또는 자기 외부의 대상들과 대조되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위니캣은 그의 이론에서 자기를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참자기아 순응하는 거짓 자기로 나눈다. 이 때 참자기와 거짓자기는 이원론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 환경과 조화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한 인격을 유지하게 한다. 그러므로 자기라는 개념은 자의식의 출현과 함께 자아가 통합되면서 ‘나는 나다’라는 느낌을 갖는 전체적인 단위로서의 주체인 것이다.

251) James F. Masterson, 임혜련 역, *참자기*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p.305.

않다고 지적하였다. 프로이트는 자기를 분열된 것으로 전제하고 자아(ego)를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전제하였다. 그러나 위니콧은 유아는 초기에 산만하고 흩어진 경험의 조각들과 파편들로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파편화된 구조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듣고 자신의 몸의 접촉을 통한 인식을 위하여 지능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자기(self)라는 말이 비로소 의미 있는 말이 된다고 말한다.²⁵²⁾

그는 아동기의 인격 발달이 아동의 내면에서 홀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아동과 돌보는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적 과정이라 생각했다. 그러므로 존재의 중심은 개인의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위니콧은 건강한 사람을 단독자로 이해하지 않고 관계성 안에서 서로 의존하는 존재로 이해한다. 그는 ‘유아라는 말은 없다.’라는 모험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의미는 유아를 묘사하려 할 때 유아와 그 누군가를 함께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았다. 유아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관계의 한 부분이다.²⁵³⁾

그의 공격성은 인간의 의존성에서 출발한다. 초기의 절대적 의존기, 중기의 상대적 의존기, 그리고 전 인격의 단계인 독립을 향하여 나아가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²⁵⁴⁾ 아동은 절대적 의존기에서 상대적 의존기로 발달하면서 유아가 공유하는 주변의 현실을 적응함으로 자아의 통합을 이루어 간다. 이러한 공유하는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공격성이 충분히 좋은 환경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면서 자신의 공격성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아의 한 요소로 통합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충분히 좋은 환경 안에서 성취해야 할 과제를 공격적인 운동성과 성애적 요소가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²⁵⁵⁾ 공격적 충동과 성애적 충동이 조화롭게 융합하지 못하는 탈 융합의 상태는 개인의 존재감, 혹은 현실감을 강화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자아 통합을 이루지 못하므로 거짓 자기로 살게 된다.

252) Jay. R. Greenberg, 외, *정신분석과 대상관계이론*, pp. 307-308.

253) Madeleine Davis & David Wallbridge, *울타리와 공간*,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p. 48.

254) Donald W. Winnicott, *성숙과정과 축진 환경*,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이재훈역 1963, pp. 118-132.

255) Ibid. p. 210.

위니콧은 공격성이 사랑 충동에서 기원되는 태생적인 것이라 정의 하였고 이 생태적 본능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럴 때에 양육자인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돌보느냐에 따라 공격성이 창조적으로, 또는 파괴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좋은 양육 환경에 있을 때 대부분의 유아는 건강을 획득하고 마술적인 통제와 파괴성을 버리고 공격성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²⁵⁶⁾

(4) 하인즈 코헛의 공격성 이해

고전적 이론은 근본적으로 자기 주장성, 미움, 공격성 등이 일차적인 심리적 요소이며, 인류의 생물학적 본성의 일부라고 보는데 코헛은 공격성과 파괴성에 대한 고전적 이론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한다. 코헛에게 있어서 파괴성은 일차적인 욕동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해체의 산물이다. 파괴적 격노는 항상 상처로 인해 유발된다. 격노는 원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적으로 일차적인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심리적 현상으로서의 인간의 파괴성은 이차적인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것은 본래 최적의-최대가 아닌(이 점이 강조되어야만 한다.)-공감적 반응을 원하는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자기-대상의 실패로 인한 결과이다. 더욱이 심리적 현상으로서의 공격성은 근원적인(elemental) 요소가 아니다. 공격성은 유기물의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무기물 재료가 그러하듯이 처음부터 아이의 자기 주장성의 한 구성 요소였으며, 보통 상황에서 성인의 성숙한 자기의 자기 주장성 안에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²⁵⁷⁾

좋은 부모는 아기의 공격성을 감당해준다. 공격성은 본래 건강한 생명력의 일부분이다. 건강한 아기는 엄마의 태내에 있을 때 양막을 공격한다. 이러한 태동은 살아있음의 표현이다. 또 아기는 태어난 이후에도 이런 저런 방식으로 엄마를 공격한다. 이가 나기 전에도 아기는 잇몸을 사용해서

256) Donald W. Winnicott, *박락과 비행*, 이재훈 외 공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pp. 39-41.

257) Allen M. Siefel, *Heinz Kohut and the psychology of the self*. *하인즈 코헛과 자기 심리학*, p.184.

피가 날 정도로 엄마의 젖가슴을 문다. 만약 엄마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파하기는 하지만 아기에게 보복하지는 않는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아기는 자신의 공격충동을 시험한다. 그리고 함부로 공격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이는 차츰 공격성을 자신의 인격 안에 통합시키며 공격성을 인격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익혀간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엄마는 아이의 공격에 곧바로 반격한다.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파봐야 해." "못된 버릇은 처음부터 확실히 잡아나야 돼." 엄마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이의 신체를 공격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신체적 공격을 받게 된다면 아기는 엄청난 불안을 느끼게 된다. 동시에 아기는 자신의 공격성을 인격 안에 통합시킬 기회를 잃게 된다. 공격성은 이제 낮설고 통제되지 않는 정신 에너지로서 무의식 안에 남아 있게 된다. 이런 아이들은 커서 거짓 자기로 살아가거나 공격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향을 갖기 쉽다.

라) 공격성에 대한 동물행동학적 이해

동물행동학은 인간의 행동과 동물의 행동이 유사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관찰되고, 연구되면서 동물의 행동을 보고 인간의 행동의 동물행동학적 본성과 기원을 유추한다. 로렌츠가 주로 동물의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후에 인간의 공격성을 연결시키려 하였다면 아이베스펠트는 로렌츠가 연구한 공격성을 인간과 구체적으로 연결 시켜서 관찰하였다.²⁵⁸⁾

(1) 로렌츠의(Lorenz): 동물의 공격성²⁵⁹⁾

로렌츠는 모든 동물들 가운데 존재하는 공격성은 자연 안에서 항존하는 과정이며 그리고 종족 보존을 위하여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특히 종 내의 공격에서 두 경쟁자 중 강자가 영토나 원하는 배우자를 소유하는 것은 한 종이 미래를 위해서 항상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동물끼리 싸우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기도 한다. 다른 동물들과 싸우는 것은 분명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다. 즉 자신의 종내 공격을 통해서

258) 이희진, “죄의 근원으로서의 폭력에 대한 세 가지 관점, -관계신학과 정신분석학 그리고 동물행동학을 중심으로-,” 목회상담 석사 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2007, p. 54.

259) Konrad Lorenz, *공격성에 관하여*. 송준만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6, 1-4장.

조금 더 강화된 종은 다른 종과의 싸움을 통해서 승자가 되어 이득을 얻어 낼 수 있다. 이 역시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다.

로렌츠는 동물의 공격성을 인간의 공격성으로 접목시키기 위해 프로이트가 인간의 본능, 무의식 속에 있는 죽음의 본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나타냈다. 로렌츠는 공격 본능의 근본적인 자발성을 지적한 프로이트의 관점과 같이 인간의 내면에 공격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본능, 즉 자발성이 있다. “프로이트의 동기이론에 대한 논의에서 나는 정신분석적인 발견과 행동생리학적 발견사이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치점을 발견하였다. 더욱 의미심장한 이유는 두 학문 간의 접근 방법상의 차이와 방법론, 그리고 무엇보다 귀납적인 기초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응하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²⁶⁰⁾

그러나 그의 공격성에 대한 관점은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파괴하고자 하는 죽음의 소원(death wish)과를 다른 파괴의 원리, 즉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 조건에서 개체나 종의 생존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던 공격 본능임을 주장했었다.²⁶¹⁾ 이것은 동물에게 나타났던 공격성에 대한 관점이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되어 인간의 삶 속에 유용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²⁶²⁾

(2) 아이베스펠트(Eibesfeldt): 인간의 공격성

로렌츠의 인간과 동물의 연결성에 대해 미흡하였던 점에 대해 막연한 유추방법을 그의 제자 아이베스펠트가 보완하였다. 로렌츠의 영향을 받은 제자 아이베스펠트는 1980년대 동물행태학(Tierethologie)의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1990년대에는 인류행태학(Humanethologie)으로 그 연구 영역을 넓혔다. 그는 인간과 동물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연구 방법과를 다르게 인간행동의 동물적 표층성 뿐 아니라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 방법은 인간과 동물이 각각 상호작용을 할 때 나타내는 인사, 위협, 화해, 투쟁, 교류, 위안, 축하 등의 행동을 통하여 행태 언어학(linguistik)의 단초로 제시하

260) Ibid, p. 8.

261) Ibid, pp.7-8.

262) Erich From, *파괴란 무엇인가*, pp. 43-45.

여 인류의 기본적 행동 프로그램이 있음을 나타내는 방법이다.²⁶³⁾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공격성의 다양한 정의, 원인들을 살펴보았는데 심리학에서는 공격성의 원인은 개인의 심리내적 요소보다는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외부적인 요인이 개인의 인지적인 능력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을 둔다. 부정적인 환경과 그 환경에 노출 정도, 불유쾌한 사건, 경험과 자극 등의 외부적인 환경이 개인의 인지능력, 연상 능력,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에 따라 공격성을 유발하고 빈도 및 정도를 결정한다고 본다.

반면 정신분석학에서는 공격성의 자체 내용이나 사회적 원인보다는 공격성의 근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 인간의 타고난 본능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공격성에 대한 조절이나 발생 원인이 단지 외부의 부정적인 환경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심리내적인 구조에 있으며 유아의 발달 단계에서 이미 상당부분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공격성은 본능이기 때문에 분출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²⁶⁴⁾

마) 가인의 공격성

(1) 원형으로서의 가인의 공격성

가인의 핵심감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적개심과 공격성은 그의 핵심 감정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가인의 핵심감정으로 다루고 있는 시기심, 수치심, 열등감이 올라오면 불쾌하고 상대에게 표현하지 못한 불만이나 화나도록 자극하는 감정을 억압하였을 때에 적개심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적개심은 바로 동생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나 있다. 가인이 어떻게 공격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그런데 그의 제사가 열납되지 않았을 때에 취한 태도가 심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63) Irenaus Eibl-Eibesfeldt, *생명의 황금나무야 푸르러라*, 자자와의 대담, 박여성 역, pp. 9-18.

264) 이명선, p. 29.

가인의 공격성은 앞에서 언급한 원초적 욕동으로서의 시기심, 동생이 태어나면서 시작된 질투, 그로 인한 수치심, 열등의식, 제사가 열납되지 않았을 때에 동생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했고 결국 공격성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공격성은 인간이 갖게 되는 일반적인 공격성에 해당하지만 가인에게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형제 갈등과 공격성

형제는 가족 구성원으로 묶여 있어서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갈등이 일어나도 피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형제 갈등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첫째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는 개별화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는 형제갈등은 유아들이 갈등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형제들이 갈등 해결을 위한 전략을 학습할 수 있다. 형제 갈등은 아동이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²⁶⁵⁾ 즉 형제갈등은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성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반면 이런 갈등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형제 갈등의 경우 출생 순위에 따라 두 형제 중 누가 먼저 갈등을 시작하는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보다 더 자주 갈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더 자주 때리고 장난감을 빼앗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먼저 시작하며 둘째는 수용적이다.²⁶⁶⁾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영아기에 부모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유아는 동생이 태어나면 분노와 원망을 갖게 된다.²⁶⁷⁾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인정 받고 싶어 제사를 지냈는데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갔다고 여겨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동생에 대한 공격성으로 바뀌어 버렸다.

(3) 사회 학습이론

265) 박소라, "형제갈등의 해결과정과 어머니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pp.11-12.

266) Ibid, p. 10.

267) Elizabeth B. Hurlock, Child Development, 5th eds. rev., New York, :McGraw-Hill, Inc, 1978, p. 6.

사회 학습이론의 입장에서 가인의 공격성은 그의 어린 시절이나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 했는지 나와 있지 않기에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 한 후에 책임을 서로 떠맡기는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의 가정에서 가인이 적개심, 혹은 폭력성을 학습하였을 수 있다.

(4)사회정보처리 이론

사회 정보처리이론의 입장에서 가인의 공격성은 그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정보를 공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단서를 찾기 어렵지만 그는 결국 그에게 주어진 정보처리 인식이 공격적이었다.

4. 핵심감정을 다루시는 하나님/ 상담가

가인은 하나님께 열납되지 못한 제물을 드린 것도 안타까운데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는 죄목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다. 그가 바친 제물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았던 것임을 깨닫지 못했던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을 열납하지 않았던 하나님이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인을 향해 질문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신다는 것은 그 답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가인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은 처벌하기 위한 재판장이 아니라 가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상담가로서 다가가신다.

가. 상담가로서 하나님

흔히 상담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 한다.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이사야 11:2에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라고 말한다.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능력이다. 곧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란 명칭은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거나 적절한 충고를 줄 수 있는 그것들을 외부적으로 나타내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모략(counsel)이란 말은 충고를 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재능(Might)이란 그 모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암시한다.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이 모략과 재능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상담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²⁶⁸⁾ 성령의 모략과 재능(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우리의 관점은 통찰력과 신선함을 얻게 되며 우리의 사고방식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서 오늘도 목회 상담가들에게 모략, 즉 통찰력과 재능과 능력을 주신다. 성령은 하나님이 사람

268) 윌리엄 바클레이, *성령의 약속*, 서기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78, p. 62.

들에게 지혜와 모락을 주어 힘들고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가게 돕는다.

다음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명칭인데 지식은 만물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윤리적인 법칙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얻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령은 이 세상의 만물들 가운데 투영된 하나님의 숨씨와 목적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들에게 주시기에 충분하다. 이외에 성령은 ‘진리의 영(요14:7; 15:26; 16:13), ‘지혜와 계시의 영 및 ‘교제와 공동체의 영(엡1:17)’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269)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롬8:2)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시며, 예수께서 성령을 보혜사(*parakletos*)로 요한복음에 다섯 번이나 사용하셨는데 영어 성경 KJV에 “안위해 주시는 분” (Comforter)으로, NIV에서는 “도와주시는 분” (Counselor)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성서에 성령께서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았다.

이와 같이 성서는 성령께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 일반 상담에서 내담자는 문제로 인한 도움을 빨리 얻기 위해 상담가를 찾는 사람이고, 상담가는 필요로 하는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 받은 사람이다.²⁷⁰⁾ 일반 상담의 기본원리를 Carl Rogers(1942)는 상담자의 진실성(*genuineness*), 무조건적 존중(*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 3요소가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들이라고 했다.²⁷¹⁾ 그런데 성서에서 성령은 이런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실수 있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라고 부른다. 이 말씀은 성령 사역은 하나님께서 동역하신다, 성령은 성부의 영인 동시에 성자의 영이시고, 그 존재의 시작이 같으시고,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에 결국 상담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공

269) 김창수, "목회상담에서 성령의 역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pp. 32-34.

270) 이장호, *상담심리학*, 서울: 서울: 박영사, 1995, p.173.

271) 김계현,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학지사, 2002, p.117.

동사역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직접 상처 입은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상처 입은 인생을 찾아와 도우시고 치유하신 역사는 에덴동산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 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가인의 마음을 읽으셨다.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아벨의 마음까지도 들으셨다. 공감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생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신다.

Leon J. Saul은 ‘정신분석가는 각 감정 세력 및 가장 빈번한 세력들의 연결에 대해 철저하게 잘 알아야 하지만, 기본적인 감정 세력들을 분리시켜서 그 진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²⁷²⁾ 고 했다. 도정신치료자인 이동식은 상담가가 내담자를 위하여 핵심감정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려는 마음(자비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했다. 내담자의 앞에서 치료자는 강력하고 흔들림 없음을 강조하였고, 내담자를 위한 마음(자비심)이란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대하고, 내담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고, 성숙한 양육자로서의 따뜻함으로 어린 시절 내담자의 결핍된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감정으로부터 내담자를 해방시키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²⁷³⁾

하나님은 수치심, 시기심, 열등감, 경쟁심, 적개심을 불러일으킨 핵심감정에 사로잡혀 불안에 떨고 있는 가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해방시키셨다. 하나님은 상담가로서 창세부터 활동하셨고, 예수와 성령과 함께 상처 입은 자를 돕고 회복 시키셨다.

나. 가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인에게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 가인의 고통

272) Leon J. Saul, 1971, p.49.

273) 이문희. “소양 이동식 선생의 치료개입 특성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심리학 박사학위 청구 논문. 이화여자대학. 2008. p. 45.

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접근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접근해서 회복시키시는가가 이 논문의 주목적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찾아오고 초기 면접과 상담의 구조화²⁷⁴⁾를 통해서 상담이 진행되는데 본문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가인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접근하신다.

1) 하나님의 부르심 / 공감적 접근

상담에서 첫 번째는 내담자와의 첫 만남이다. 대부분 내담자들은 상담가 만나기를 부담스러워 하고 저항을 한다. 상담가는 내담자를 상담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단계이기도 하다. 일반 상담에서는 초기 면접 상담에서 진단과 평가에 대한 확인, 내담자의 문제나 상태를 진단하고, 가장 필수적 요소인 구조화 단계가 있다.²⁷⁵⁾ 상담의 과정에서 첫 면접은 상담의 목적으로 내담자와 상담가가 만나는 첫 번째 만남이다. 상담의 첫 면접은 공식적인 상담과정의 첫 번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⁷⁶⁾ 일반 상담에서는 상담가가 내담자를 찾아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목회 상담의 경우 목회 현장이라는 장이 있어 상담가가 내담자에게 자연스럽게 접근 할 수 있다. 심방이나 성경 공부 시간, 혹은 친교와 같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상담가가 내담자에게 질문이나 성서 내용을 통해서 상담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창세기 3장8절)” 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3장 9절에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하나님은 아담과 공감적 접근을 하신다. 가인의 제사가 열납되지 않아 가인이 분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가가신다. 가인의 심리 상태가 수치심, 시기심, 열등감과 적

274) 구조화(structuring)란 상담의 과정과 상담자가 하는 일과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와 상담시간, 상담료 지불 방식과 상담주기 등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정보를 상담자와 내담자가 논의하는 과정인 오리엔테이션을 의미하는 첫 상담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김계현, *카운슬링의 실제*, pp.102-103.)

275) 김계현, p.102.

276) 이장호, p.173.

개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기 때문에 상담의 장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4:6,7)

가인의 아동기에 형성된 핵심감정이 가져온 결과를 인정하도록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사랑 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가인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 정성을 다해 드린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결국,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거절 되어 가인이 순간 느낀 핵심감정을 찾아 볼 수가 있다.

가인이 느낀 핵심감정은 ‘벌거벗기진 느낌, 도망가고 숨고 싶은 느낌, 동생만도 못한 창피감, 부끄럽고 황당하고 얼굴이 벌게지면서 눈앞이 캄캄하고 혼란스런 느낌과 다리가 후들거리고, 슬픈 눈의 시선은 아래로 떨어뜨리고, 어깨는 경직되고, 온 몸이 굳을 것 같이 긴장되고, 심장이 얼어붙고, 현기증이 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따귀를 얻어맞은 기분, 땅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공포에 떨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에게서 도망쳐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을 느끼고, 모든 감정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자기감정의 피난처인 엄마, 하나님)’이다. 이러한 느낌이 수치감, 시기심, 열등감을 불러 일으켜 온 몸으로 퍼지자 분노와 격노를 억압한 적개심이 죄책감과 불안을 불러 일으켜 살인까지 하게 된다. 가인의 이러한 핵심감정은 그가 자신의 핵심감정을 대면하고 수용할 때까지 무의식 중에 반복된다.

가) 하나님의 공감²⁷⁷⁾

상담에서 내담자와 공감하는 능력이 상담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 하나님은 인생들이 안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알고 함께 아파하신다.

277) 사전적 의미로는 “함께 느낌, 같이 느낌, empathy, 남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 등에 대하여 자기도 그러하다고 느낌,” (동아 국어사전, 1994)이라고 정의한다. 상담학적 의미 “내담자가 자신에 대하여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내담자 자신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의미까지”를 알아차려서 전달하여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김계현, 1995)

“엘로힘(하나님)이여 당신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당신(주)의 많은 자비(라함 racham)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시 51:1)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신뢰하기에 탄원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시편에 탄원시의 핵심 고백이다. 공감하시는 분이기에 탄원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11:33-35)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며 간구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8:26)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신다. 공감의 표상은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이상의 공감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인간의 죄와 아픔을 아셨기에 인간에게 그 고통과 아픔을 담당시키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담당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이상 어떻게 공감하겠는가? 하나님은 상담가로 인간의 상처와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신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용서와 위로가 필요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창세기 3장8절)” 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3장 9절에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하나님은 아담과 공감적 접근을 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의 상태를 알고 계시고 그를 돕기 위해 계획하셨다. 이미 구조화 하시고 다가가신다. 하나님은 상담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

라서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인을 만남의 장으로 부르신다. 보통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찾아가지만 성서의 경우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초기 만남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일반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말하기 전에 내담자의 아픔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를 찾아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기에 찾아오신다. 아니 하나님은 아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인생의 아픔에 공감하시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숨었지만 하나님은 부르시며 적극적으로 다가 오신다.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을 당한 아벨의 호소를 들으신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4:10하)” 인간 상담가에게는 불가능한 아픔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예수의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은 삭개오의 사건이다. 누가복음 16장 2절 이하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부르신 사건이 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당시에 멸시 받는 사람으로 그 사회에서는 소외된 계층이었다. 그는 소위 상처 입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싶어서 찾아 나왔지만 그는 경건한 유대인 앞에 설수 없는 사람이다. 비록 그는 키가 작아 나무에 올랐지만 키가 컸다고 해도 그는 랍비나 경건한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접근을 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세리장과 랍비라 부르는 예수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 두 계층은 상종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세리라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였는데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공감적 부르심이었다. 이름은 그의 존재를 나타내는데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세리라고만 불렀다. 마르틴 부버의 표현으로 사람들과 세리장의 관계는 “I and It”의 관계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 I and You.” 관계로 다가가셨다. 마치 김춘수 씨의 꽃²⁷⁸⁾이라는 시에 나오듯 삭개오의 삶은 다만 생존을 위

278)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그는 다만/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그에게로 가서 나도/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한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열렸고 의미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예수를 만나서 상처 입었던 마음이 회복되면서 소유(새 Have)에서 존재(to b)로 다시 태어났다. 공감의 힘이다.

예수께서 공감능력을 발휘한 또 다른 사건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이다.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 하는 동네 한 여인이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한 낮에 동네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왔다. 한 낮에 우물을 길러 나온 것으로 보아 이미 그녀는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이었다. 즉 공감적 접근이 힘든 상태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공감적 질문을 하신다. “물을 좀 달라.” (요4: 7) 일상적으로 우물가에서 있을 법한 질문 같이 보인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을 보면 이 질문이 상당히 다른 차원의 질문임을 알 수 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이 대화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두 가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가 남자와 대등한 관계에 있지 못했다. 더구나 그 여자는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었다. 따라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접근이었다. 보통 유대 남자라면 사마리아 여인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무시하며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감적 접근을 하셨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아픔, 이 여인의 아픔을 아셨다. 그렇기에 두 가지 벽을 넘어 접근하셨다.

예수께서 공감적 접근을 위해 사용하신 것은 ‘물’ 과 ‘남편’ 이라는 공감적 사물과 관계를 이용하셨다.²⁷⁹⁾ 이 여인은 육체적인 기갈 때문에 물을 길러 나왔지만 사실 정서적 육체적 기갈에 시달리던 여인이었다. 예수께서 비범한 사람임을 알자 곧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한다. 이 여인은 지금

279) 김정민,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상담 비교연구,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중심으로 “ 삼육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영적 생수에 목말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 그래서 ‘물’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또한 ‘남편’이라는 말씀으로 남편에 대한 아픔이 있는 여인의 문을 두드리셨다. 전에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남편이 없다고 고백하다가 예수님의 핵심적인 질문에 힘들게 상담의 장으로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요 4:16-19)²⁸⁰⁾ 예수님은 이미 여인의 핵심감정을 아시고 접근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다.

이동식은 ‘첫 면담은 상담가와 내담자가 서로 쳐다보는 순간의 느낌에서 시작되며 느낌이 중요하다. 내담자의 마음속에 상담가가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와야 하고, 이 상담가가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하는 신뢰가 생겨야 한다. 그러려면 상담가의 마음이 비어있고, 내담자에게 집중이 되어야 핵심감정을 빨리 파악해서 내담자에게 전달하고 내담자가 자기 문제의 뿌리를 알고 고치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느끼게 해야 한다.’²⁸¹⁾ 고 했다.

일반 상담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상담가와 내담자와의 관계형성 (rapport)은 첫 면접에서 상담가의 편안한 자세와 행동, 경청, 이해반응, 인내라는 상담가의 행동변인에 의해 내담자에게 오고 싶은 동기를 갖게 한다.²⁸²⁾ 이동식은 내담자가 깨달는 수준에 맞추어 치료적 개입을 하며, 상황에 따라 내담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했다.²⁸³⁾

단기 역동적 심리치료사인 Hanna Levenson은 치료자는 ‘참여관찰자가 되어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주의를 기울이지만, 또한 상호작용의 일부가 되어서 그것을 바꾸는 사람이며, 치료자가 상호작용의 유형과 질에 기여한다

280)

281) 이동식, *도정신치료 입문*, p.165.

282) 이장호, pp.177-180.

283) 이문희, “소암 이동식 선생의 치료개입 특성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p. 57.

고 본다. 치료자와 환자 두 사람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비록 이 중 한 사람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조력자이기는 하지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를 맺으려고 하며 그들은 두 사람으로 구성되는 상호작용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다' 284)라고 치료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의 핵심감정, 즉 억압된 적개심을 올라오게 하는 수치심, 시기심, 열등감의 근원지를 알고 접근하신다.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못하고 피하게 하는 억압된 적개심을 적중하여 치료하시기 위해서 접근하신다. 핵심감정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는 공감적 접근을 시도하고 계시는데,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투사하고 있다. 핵심감정에 휘둘린 사람은 수치심을 감추고 대인관계에서 피하게 된다.

하나님은 가인이 범죄한 후에 그에게 다가와 공감적 질문을 하신다. 가인은 자신의 핵심감정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해 있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신다.285)

하나님의 부르심은 상담에서 바로 상담가의 질문에 해당된다. 일반 상담에서의 질문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 질문의 기초 기술, 상담언어의 분석과 질문기법이 있다. 질문의 목적과 결과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 내고, 사고를 자극하고, 명료화와 초점을 증대시켜 한층 더 깊은 자기탐색을 제공한다고 했다.286) 상담가는 자기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왜, 언제, 어떤 목적으로 질문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탐색하고자 하였는가?, 왜 탐색이 필요했는가?, 구체화가 왜 필요했는가? 287)를 강조하고 있다.

질문에는 여러 기술이 있는데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을 들 수 있겠

284) Hanna Levenson, *TLDP: Time Limited Dynamic Psychotherapy*, 정남운, 변은희 공역. *단기 역동적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08, pp. 62-63.

285)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가인은 몹시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이뇨?(새번역: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나?)

286) Corey, *집단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조현춘, 조현재, 이희백, 천성문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1999. p. 79.

287) 김계현, p.159.

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쩔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쩔이뇨?' 라고 질문 하시는 하나님은 가인의 문제와 원인과 감정을 이미 파악했기에 구체적이고 제한된 정보를 얻을 때 하는 닫힌 질문기법을 사용했다고 본다. 만약 폭 넓고 자유로운 응답을 얻을 때 하는 열린 질문 기법을 사용했다면 '무슨 일이 있었니? 언제 있었어? 누구하고? 어느 정도 심각하니? 지금 당장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질문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바로 가인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다.

단기정신역동치료를 혁명적으로 고안해 낸 다반루Davanloo(1988)박사는 질문을 기술적이고 현상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구체화를 강조하고 감정에 초점을 두면서, 환자의 증상과 성격적 어려움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가 보고한 문제의 최근의 예를 물어보는 것(구체화, 다른 어려움 조사하기, 불명료함에 도전하기, 환자의 작업할 의지를 확고하게 하기, 초점을 유지하기)이 이러한 과정을 돕는다. 환자의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얻기 위해서 치료자는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하고, 일단 제기한 호소 문제가 탐색되면 치료자는 다른 영역의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보아야 하며, 환자가 내적동기가 있고 정신치료를 할 욕구가 있는지 결정되어야 하고, 환자가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옮겨 다닌다면 치료자는 이를 막고 환자가 천천히 가게 해서 초점을 유지하면서 환자가 보고하는 어려움을 만들어 내는 현재의 촉발 요인을 분명히 하는 것은 환자의 어려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했다.²⁸⁸⁾

이동식은 '치료의 정수로써 공감적 응답은 지속적인 공감적 질문과 직지인심直旨人心'으로 구분하여, 공감적 질문은 내담자가 이제까지 드러내지 못한 부분을 치료자에게 드러내어 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질문을 사용한다고 했다. 공감적 질문의 특성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며 질문의 내용이 길지 않다는 것이다. 내담자가 자신을 드러내는데 치료자의 긴 반응은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치료자는 배경으로 물러나 내담자를 지지하고 있으며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을 탐색하고 작업하는 광경을 든든히

288) Patricia Coughlin Della Selva. *ISTDP: Intensive Short-Term Dynamic Psychotherapy*. 김영란, 김준형, 백지연, 원희량, 주해명 공역, *집중적 단기정신역동치료*, 서울: 학지사, 2009, pp. 41-44.

버티어주는 치료자로 존재할 뿐이다. 존재하지 않으면서 강력히 존재하는 모습이다. 형편을 공감하면서 내담자의 오랜 억울함을 녹이고, 매회 군더더기 없는 공감적 질문을 통해 핵심감정으로 깊어지게 하고, 다시 공감적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핵심감정을 녹이도록 돕는 것이다.

직지인심直旨人心'은 이동식의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성 중의 하나이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핵심감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담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나타난 핵심감정을 꿰뚫어 보는 것을 가리킨다. 핵심을 꿰뚫는 직지인심으로 핵심감정의 깨달음을 촉구하고, 공감적 질문과 직지인심으로 핵심감정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도록 돕고, 핵심감정을 녹임으로 치료의 정수로써 공감적 응답(공감적 질문, 직지인심)을 한다.²⁸⁹⁾'라고 했다.

치료자 하나님은 내담자 가인의 핵심감정인 적개심을 지적한 후에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나?*' 직지인심적 질문을 시도하신다.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얹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직지인심적 공감을 시도하면서 스스로 문제에 대한 탐색과 통찰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선함의 결핍, 사랑의 결핍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사랑에 굶주린 허기의 감정을 느낌으로 수치심, 시기심, 열등감, 적개심의 밑바탕에 깔린 핵심감정의 뿌리가 살인이라는 공격적인 투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직지인심적 공감을 시도해 가인에게 접근하신다. 아마 가인의 얼굴색은 시기심에 가득 찬 사람이 납빛(리보 livor²⁹⁰⁾)을 띤 모습처럼 숨길 수 없는 낮이었을 것이다.

치료자들은 내담자들의 핵심감정의 뿌리가 다 결핍된 욕구, 즉 사랑 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주목 받고 싶은 욕구, 칭찬 받고 싶

289) 이문희, “소암 이동식 선생의 치료개입 특성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pp.123-133.

290) 라틴어 표현으로 마치 노란색과 멍든 피부와 같은 검은색이 혼합된 색을 뜻한다.(앤.배리 율라노프, 신데렐라와 그 자매들, 1999)

은 욕구가 좌절, 박탈, 거절되어 느낀 불쾌하고 화나고 부끄럽고 불안한 감정에서 원인을 찾게 하고 그것을 스스로 명확하고 깊이 깨닫고 경험하도록 강조하면서 탐색을 촉구한다.

2) 저항(resistance)과 직면 단계

가) 일반 상담과 저항

일반적으로 내담자들은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기대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갈등에 적응해 온 방식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익숙했던 적응방식의 문제를 직면²⁹¹⁾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신분석을 포함하여 정신역동에 기반을 둔 모든 치료법들의 구성 요소들 중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저항이라고 한다.

다반루Davanloo는 치료적 동맹과 저항이라는 두 변수가 서로 반비례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1987a, 1987b). 치료자가 하는 일은 환자가 저항에서 동맹으로 변화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즉, 환자는 고통의 밑바닥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치료자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입장은 치료적 동맹의 발달에 이용 될 수 있고, 치료과정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슬픔에서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싶어 하도록 저항의 불을 지피는 것은 환자 쪽이다는 것이다.²⁹²⁾

저항이란 치료의 진전을 방해하고 치료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려는 내담자의 무의식적 행동을 말한다. 내담자가 저항하는 이유는 자신의 억압된 충동이나 감정을 알아차렸을 때 느끼게 되는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291) 직면이란 모순적인 정보나 메시지를 지적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말과 행동간의 모순, 또는 신체적 및 언어적 메시지의 모순 등을 볼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한다. (Corey, 집단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p.79. 참조)

292) Patricia Coughlin Della Selva, *ISTDP: Intensive Short-Term Dynamic Psychotherapy: 집중적 단기정신역동치료*, p.38.

위해서이다. 약속을 어긴다거나 특정한 생각, 감정, 경험들을 털어놓지 않는 것은 저항의 한 형태이다.²⁹³⁾ 의식적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면서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담감으로 인해 무의식중에 상담의 진행과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을 피하려는 행동도 저항이라 한다.²⁹⁴⁾

정신분석가 이무석은 저항의 현상을 ' 잘 돼가던 치료가 갑자기 장애물에 부딪혀 갑자기 침묵해 버린다든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요” 한다든지, 치료시간을 잊어 먹는 다든지, 쓸모없이 작은 일을 늘어놓아서 치료시간을 채운다든지, 이유도 모를 분노를 터트린다든지 등 다양한 방해 요소들이 등장한다.²⁹⁵⁾' 고 설명했다.

이동식은 '저항이라는 것은 환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저항이라는 말은 치료자 중심의 개념으로 오해되기 쉽다. 환자는 말하고 싶지만 말을 했다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이다. 내담자의 저항하는 마음을 공감하고,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해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전달하여 내담자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을 물어줌으로써 저항은 없어진다.'²⁹⁶⁾고 했다.

치료과정을 방해하는 저항이 나타날 때, 그 밑에는 의미 있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내담자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자가 이를 지적해주어야 하고, 가장 큰 저항에 내담자의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 내담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해석을 가한다.²⁹⁷⁾

프롬-라이히만²⁹⁸⁾은 불안이 환자로 하여금 문제의 자료를 해리시키고 억압시키게 하며, 불안이 저항의 주된 이유가 되며, 저항을 해석하면 원래 병을 일으켰던 문제의 자료를 환자가 다시 직면하게 되니까 환자는 이로 인

293) 이장호, p.53.

294) 이만홍, 황지연 공저, *역동심리치료와 영적 탐구*, 서울: 학지사. 2007, p.185.

295) 이무석, *정신분석의 이해*, 서울: 전남대학교 출판, 2000, pp.79-80.

296) 이동식, *도정신치료 입문*, p.313.

297) 이장호, p. 53.

298) Fromm-Reicgmann F(1960): 'principles of Intensive Psychotherap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xi. pp. 109-118, (이동식, *도정신치료 입문*, p.313. 재인용)

한 두려움 때문에 저항을 하게 된다고 했다.

디월드²⁹⁹⁾는 저항을 치료에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다가, 자아심리학이 출현하고 나서는 저항을 통해 환자, 치료자 모두 자기 이해를 넓히게 되고 자신의 정신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인식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고 했다.

이동식은 "저항을 일으키는 불안 배후에 핵심감정이 있다고 강조한다. 환자가 직면을 못하니까 저항이 생긴다는 것이다. 오히려 저항은 치료자 중심의 옳지 않은 개념이라고 한다. 환자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길이 열리고, '환자가 자기를 들어내기 힘들어한다!' 라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이며, '저항한다!' 라는 표현은 치료자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³⁰⁰⁾"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고 질문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면하게 하지만 가인은 문제를 회피한다. "내가 알지 못하나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적개심이 올라와 살인을 저지르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마음 중심, 즉 불안케 하는 핵심감정을 직면 시켜 살 길을 열어주시려는 깊은 치료자의 마음으로 접근하신다. 즉, 열등감, 죄책감, 수치심, 시기심을 유발 시키는 밑에 깔린 깊은 핵심감정 때문에 불안을 회피하려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다' 라며 강하게 저항한다.

하나님은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의 관계성의 질문을 통해서 가인의 아동기 때 형성되었을 동생에 대한 수치심, 시기심, 열등감, 경쟁심, 죄책감, 적개심을 유발 시키는 밑에 깔린 깊은 핵심감정(분하고, 허기지고, 공허하고, 비참하고, 미칠 것 같은 느낌)을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신다.³⁰¹⁾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에 수가성 여인 역시 저항하였

299) Dewald PA91974):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dividual Psychotherapy. Psychotherapy Tape Library*, 김기석 역, *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8, pp. 53-75. (이동식, *도정신치료 입문*, p.314. 재인용)

300) 이동식, *도정신치료 입문*, p. 316.

301) 본논문 p127 참조

다. 첫 번째 저항은 “왜 유대인 남자가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였다. 두 번째 저항은 “남편을 데려 오라.” 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그녀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저항을 한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도 남자와 살고 있지만 남편이 없다고 한다. 어쩌면 그녀가 정직하게 없다고 하였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저항이다. 예수께서 남편을 데려 오라하였을 때에 마음속에서는 수치심, 시기심, 열등감, 증오, 분노, 적개심, 죄책감 등을 유발 시키는 복잡한 핵심감정이 요동을 쳤을 것이다. 그녀가 남편이 없다고 저항을 하였을 때에 보통 상담가라면 그곳에서 더 이상 나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좀 훈련받은 상담가라면 그렇게 저항을 할 때에 그녀의 심리 역동을 읽고 “남편을 데려오라는 질문에 불편하신 것 같은데 혹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여 저항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항에 직면하지 않은 상담은 거의 없다.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감정까지 살펴서 저항을 파악하고 저항을 넘어야 한다.

나) 기독교 상담과 저항

저항 다루기에서 기독교 상담은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상담에서 말씀으로 저항을 효과적으로 다루셨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던 이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죄와 대면하는 장면이 나온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37-39) 또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루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4장12절)

따라서 상담가는 내담자를 말씀으로 저항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성서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다. 내담자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3) 명료화와 해석단계/직시인심³⁰²⁾ 그리고 수용

일반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릴 때 미해결된 부정적인 핵심감정으로 대부분 무의식에 갇혀 있어 내담자 자신이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상담가가 도와주어 자신도 모르고 있는 자신의 문제, 자신도 모르게 저항하고 있는 것을 상담가가 정리를 해줌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에서 수가성 여인이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라하는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녀의 남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들려주고 이 여인에게 남편으로 인한 아픔이 있음을 다시 상기시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단계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내담자에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칠 때 상담가는 마음속에 어렵듯이 알고 있었던 사건들과 그에 얽힌 감정들을 보다 분명히 알도록 정리해서 들려줌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 명료화와 해석

일반 상담에서 명료화³⁰³⁾는 상담가의 적극적 경청의 연장으로 내담자의 모호한 문제점에 주안점을 둬으로써 메시지의 혼란스럽고 불명료한 측면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감정을 선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석³⁰⁴⁾은 내담자의 사고, 감정 또는 행동에 대한 가능한 설명을 제시

302) 직시인심直視人心이란 보고 하지 않은 환자의 마음을 바로 지적해주는 것.

303) 명료화란 내담자가 혼란스럽고 대립되어 있는 감정과 사고 단계에서 메시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메시지의 핵심에 중점을 둬으로써 내담자의 진술을 간결화 한다. (Corey, 집단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p.79.참조)

304) 해석이란 정신분석에서 자유연상이나 꿈, 저항, 전이 등을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행동상의 의미를 내담자

할 때 상담가는 해석을 하게 된다. 행동양식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여 해석을 함으로써 개인이 새로운 관점과 대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깊은 탐색이나 해석이 요구되는 어떤 주제에 내담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질문, 재진술, 가벼운 명령 등의 형태로 내담자가 의식하지 못했던 자료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명료화해석을 해준다.³⁰⁵⁾

서양 정신분석에서 '해석은 고통스런 내용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환자에게 공감하고 관심과 사랑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가장 이상적인 해석은, 환자의 의식 가까이에 와 있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해석' 이라는 견해였다. 도정신치료에서도 해석은, 보고 하지 않은 환자의 마음을 바로 지적해주는 것이고(직지인심直視人心), 치료자가 주객일치 상태에서의 완벽한 공감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³⁰⁶⁾ 이동식은 정신치료에서 해석은 '살활殺活'이 있으며 환자를 '죽였다가 살리는 방법' 과, 환자의 의존심과 적개심의 뿌리를 다루고 해결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³⁰⁷⁾

가인이 자기의 문제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회피할 때에 하나님은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가인이 자기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는 상담가 역할을 마음 놓고 자기 속에 있는 화를 못 내서 억압된 것을 털어 놓을 수 있도록 돕고자 다가가신다.

방어기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증거 제시하신다. 구체적으로 직면하도록 점점 다가가신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구체적)-라는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드러날 사건, 가인이 정말 형제에게 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바꾸어 말하면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가 있느냐?' 라고 물으면서, '네 동생의 핏

에게 지적하고 설명하는 기본적 절차이며 치료기법이다. (이장호, 상담심리학, p.48.)

305) 이장호, p. 48.

306) 허찬희, 동정신치료와 서양정신치료 국제포럼, 박사 논문. 2004. 8. 21. 발표

International Forum on Taopsychotherapy and Western Psychotherapy August 21-22, 2004, Hotel Lotte, Seoul, Korea

307) 강석현, "동서양 정신치료의 통합: 이동식의 경우," 논문, 1996.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라고 네 아우가 억울하게 죽고, 땅은 저주를 받는데 너는 아직도 모르냐고 문제를 확인시켜준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은 일반 상담가에게는 통찰력과 문제의 원인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기법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문제의 근본 원인인 핵심감정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게 하신다. 더 이상 거짓말과 핑계로 방어나 저항을 못 하도록 무력화 시키고 자신의 살인 행위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아우가 억울하게 죽고, 땅은 저주를 받는데 너는 아직도 모르냐고 문제를 확인시켜준다.

역동심리치료와 영적 탐구 저자인 이만홍은 '상담과정에서 명료화해 온 여러 사실들을 한 줄로 엮어서 그 안에 크게 자리 잡은 공통 사실을 내담자가 깨달도록 설명해 주어, 내담자가 그것을 통해 이제까지의 자기 삶의 방식과 감정 패턴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진정한 정서적인 통찰을 얻었다고 한다. 특히 명료화 과정에서 어린 시절에 응어리져 있었던 핵심감정이 분명해졌을 때 그것과 현재의 문제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보다 분명히 밝혀 주는 상담가의 해석을 마지막 단계에서 하게 된다.' 308) 고 한다.

나) 수용 단계 수용=회개=위로부터 오는 용서의 능력

(1) 일반 상담에서 수용단계

수용은 문제가 명료화 되었을 때 내담자는 수용하게 된다.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치료자 또한 내담자의 자기 문제 수용을 위해 명확하고 확고부동하며 흔들림 없이 비쳐주는 모습을 보이고, 타협하지 않으며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라야 한다.

상담가가 내담자를 수용한다는 것은 내담자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내담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판단 없이 바라봄으

308) 이만홍, 황지연 공저, *역동심리치료와 영적 탐구*, pp. 282-283.

로써 내담자 자신의 존재를 객관화 시켜 결국 자기수용의 단계에 도달하게 해준다. 로저(Rogers)는 상담자의 수용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체적 행동의 수용, 인격의 수용, 존재적 수용, 현상태와 가능태' 네 가지 수용의 내용을 설정하고 내담자를 전체로서 수용하라고 한다.³⁰⁹⁾

김경민은 자기 수용에 대해서,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여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책임지는 태도를 말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부인하는 행위는 자기의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지만, 자신의 욕구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 있다³¹⁰⁾'고 한다.

수치심 치료의 세 단계에서 수치심의 외면화과정(Externalization)은 자기통전화(Integrating)와 수용으로 나갈 수 있는 치유의 시작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³¹¹⁾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수치심의 외면화과정(Externalization)이 핵심감정을 치료하는 이동식의 수용 단계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수치심의 외면화(Externalization)는 정체성 존재적인 문제로 확대된 수치심을 다시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말한다.³¹²⁾ 수치심이 시작된 근원에 다시 되돌리는 것을 포함한다. 수치심의 되돌림은 자신의 수치심의 근원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수치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수치심적 에너지를 생산적인 삶의 에너지로 변화시켜, 잃어버린 자기를 발견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³¹³⁾

이동식은 수용이 치료의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309) 박성희, *상담실 밖 상담이야기*, 서울: 학지사, 1999, pp.104-112.

310) 김경민, pp.113-115.

311) 홍은수, "수치심의 이해 및 치유." 목회상담학 석사 논문, 연세대학교, 2002, p.111.

312) Bradshaw, John. Bradshaw on-the family: a revolutionary way of self-discovery Florida Health Communications, Incorporation, 1988, 임옥희. 1996년. '가족' 서울: 중앙미디어, p. 287. (재인용)

313) 홍은수, 수치심의 이해 및 치유, pp.112-113.

과 드러냄을 통한 정화를 강조하고, 문제를 받아들이면 거기서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을 안내한다. 또한 수용이 과거에 맺힌 감정을 치료자에게 드러내어 비우는 것임을 강조한다. 내담자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임을 안내하고, 현재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임을 쉽게 설명하면서 받아들임과 드러냄을 통한 정화를 안내한다.³¹⁴⁾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수용한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3절) 이전까지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동안 감추려고 억압하고, 애써 아벨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투사했던 투사를 거두어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아벨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죽을 죄가 있음을 인정한다.

(2) 기독교 상담에서 수용 단계/ 회개와 죄용서

일반 상담에서 죄나 문제의 핵심을 수용하면 사실상 상담의 문제의 실마리 해결은 다 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은 회개와 용서의 단계가 있다.

(가) 죄의 수용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대면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수용한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가인이 그의 죄를 인정할 때에 질책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를 보호하고 나섰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창4:15절)

314) 이문희, “소암 이동식 선생의 치료개입 특성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pp. 114-123.

일반 상담에서 수용에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며 다음 단계인 훈습은 스스로 해야 한다. 그런데 기독교 상담에서는 죄 용서라는 치유와 위로의 단계가 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가인은 그의 핵심감정이 하나님의 인정받고 싶은 갈망에서 생겼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제사 드렸던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거기서 그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의 절망과 분노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핵심감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누그러지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시기심에 의한 살인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인 가인에게 자신이 핵심감정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도록 접근하신 것이다. 그래야 가인이 더 이상 부정적 방어 태도로 핑계하지 않고 핵심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가인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치료의 출발점에서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가인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핵심감정의 정곡을 찢어서, 즉 가인 자신의 추한 수치심, 시기심, 열등감, 적개심, 살인을 저지르게 한 자신의 핵심 감정을 느끼고, 인정하고 죄의 대가를 치루면서 회복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

(나)수용과 사죄 은총

예수의 사죄의 은총은 상처와 죄에 사로잡혀있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위하며, 그 여인 스스로가 그의 상처와 아픔, 죄를 극복하도록 힘이 되어준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요 8장11장 상)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죄를 질책하시는데, 그대도 자신의 죄를 질책한다면 그대는 하나님과 결합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과 죄인은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대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은 것입니다. 그대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 죄인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을 구원하시도록 그대가 만든 것을 부수십시오..... 그대가 만든 것을 미워하기 시작할 때 그대는 자신의 악행을 고발하는 것이기에 그대의 선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악행의 고백은 선행의 시작입니다. 그대는 진리를 행하고 빛을 행해 가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요한복음 강해)³¹⁵⁾

사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죄는 죄에서 석방되는 일, 또는 죄 용서하는 것을 뜻하며, 제소된 고발에서 피고인을 해방하는 재판관의 선언을 뜻한다. 따라서 단죄나 비난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런 사죄의 은총은 하나님과 화해를 의미 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후 5:19)

이스라엘에서 식탁 교제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룩한 종교적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방인이나 하류층의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은 철저한 금기 사항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께서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일종의 사죄 선언인 것이다.³¹⁶⁾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통치와 같은 의미이다.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내담자에게 큰 위로요 힘이 된다.

4) 자아 성숙/통찰(insight)과 훈습(working-through)

가) 통찰과 훈습

315) 가톨릭교회 교리서, 1458항, 김일권, 상담식 고해성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7, p.43.에서 재인용

316) 선성수, “마태복음에 나타난 용서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청안대학교 기독교 신학대학원, 2001, p.16.

통찰과 훈습은 자아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핵심감정을 만들어 낸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아동기 감정패턴을 고쳐 현실을 바로 보게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곧 통찰과 훈습이다. 핵심감정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핵심감정을 알았으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묵상과 창조의 영성을 발견해가면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알려준다. 하나님은 가인을 어떻게 통찰해서 어떻게 훈습의 과정으로 이끌어내는지 연구해 보려고 한다.

왓첼(Wachtel)은 심리치료에 있어서 대부분의 실패는 훈습의 부족에 기인하며, 통찰의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³¹⁷⁾ 다반루 Davanloo는 “통찰 후에 일어나는 과정이 감정, 태도 그리고 행동상의 안정적인 변화로 이끄는 데 이를 ‘훈습’ 이라고 불러 왔다. 훈습은 역동적 정신치료의 ‘알맹이meat’이며 치료의 중간 국면을 형성하고 치료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³¹⁸⁾고 했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 통찰이란 지각면(知覺面)의 재체제화(再體制化), 새로운 관계의 파악, 혹은 자아의 새롭게 정해진 방향등이다. 통찰이란 본질적으로 새로운 감지(感知)의 방법이라는 것을 중시했다. 이 감지 가운데 통찰이라 불리는 형 중에 다름과 같은 것이 있다. 첫 번째가 인간관계의 감지라 하겠다. 즉 관계적 성질에 핀 감지라는 것이다. 두 번째가 자아의 수용이다. 모든 충동의 관계적 성질의 감지다. 참된 통찰은 만족할 만한 목표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새롭게 갖게 된 창조된 의지다. 통찰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목표로 내담자를 향하게 하는 방향이 결정되면 내담자를 그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행위가 시작된다.³¹⁹⁾

이무석은 “통찰이란, 이전에는 전의식이나 비의식에 있어서 보지 못했던 개인이 정신적, 감정적 갈등을 자각해 알게 된다. 통찰은 지적인 이해로부터 충분한 감정적 자각에 이르기까지 그 깊이가 다양하다. 지적 통찰과

317) Wachtel, 1977.

318) Patricia Coughlin Della Selva, *ISTDP: Intensive Short-Term Dynamic Psychotherapy: 집중적 단기정신역동치료*, pp. 270-271.

319) 칼 R. 로저스,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한승호 역, 서울:집문당, 1994, pp. 202-207.

정서적 통찰이 있는데, 피상적이고 지식수준의 지적 통찰은 단지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생각을 지식수준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적 통찰만으로는 비의식의 갈등이 풀리기는 어렵다. 머리로 아는 지식만으로 인격이 변하기는 힘들다. 경험적 지식, 마음의 깨달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지적통찰보다 더 치료적이고 깊은 통찰이 정서적 통찰이다. 환자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게 된 것을 말한다. 정서적 통찰이 생기면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고 감정반응이 따라온다. 정서적 통찰을 얻으면 행동의 변화도 따라온다.”³²⁰⁾고 했다.

또한 훈습에 대해서 이무석은 “치료초기에 환자의 비의식적 갈등을 아주 정확하게 알 때가 있지만, 알고 난 후에도 환자가 감정적으로 자신의 갈등을 이해하려면 훈습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훈습과정은 갈등과 불안이 일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증세가 약화되었다가, 뒤이어 비의식에 숨겨왔던 것들을 더 많이 자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분적으로나마 갈등이 해결되고 불안이 감소되는 식의 주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말하자면 훈습은 ‘더 악화된 상태’와 ‘더 나아진 상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더 나아진 상태’가 조금씩 증가되어 가는 과정이다. 훈습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깊어지는 통찰을 이용해 환자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노력하는 것이다”³²¹⁾고 했다.

그린슨Greenson은 "훈습은 오직 자아에 대해서만 작용하며, 성공적인 치료로 간주되려면 자아가 그 병리적이고 방어적인 기능을 포기해야만 한다.(Greenson, 1967) “³²²⁾라고 했다.

도정신치료가 이동식은 “통찰은 일거수일투족, 24시간 환자를 지배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원동력이 핵심감정임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이것을 항상 깨닫고 이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훈습이다. 통찰

320)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pp. 282-283.

321) *Ibid*, pp. 288-291.

322) Patricia Coughlin Della Selva, *ISTDP: Intensive Short-Term Dynamic Psychotherapy: 집중적 단기정신역동치료*, p. 270.

과 혼습은 수행이며, 내부의 마음을 보고(득의망언 도이친得意妄言 道易親), 깨달음으로 닦는다는 의미다. 깨달음은 통찰(insight)을 계속 반복해야 핵심감정에서 벗어나게 된다.”³²³⁾고 했다.

핵심감정은 깨닫기 어렵다. 특히 핵심감정에 의해서 움직일 때에 인간은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에 앞에서 다룬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핵심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동생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문제를 대면하고 나니까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고,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알게 되었다. 핵심감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 멀게 한다. 그런데 통찰은 눈 뜸을 의미 한다. 이 때에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의 위선과 그 배후에서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행5:3). 베드로의 이러한 통찰은 성령의 도움으로 인한 특별한 능력이었다.

가인이 핵심감정에 사로 잡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의 깊은 의미를 몰랐다. 그러나 대면한 후에서야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낮을 보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다. 동생을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 할 것이라고, 불쾌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 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났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죽임 당할 절망에 처해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 기독교 상담에서 통찰과 혼습

(1) 통찰

323) 이동식, 도정신치료입문, pp.379-386.

기독교 경전인 성서에는 인간의 심연을 드러내는 많은 자료가 있다. 그리고 기독교 상담가가 가지고 있는 영성적 힘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통찰 단계에서 단숨에 내담자의 상태를 인지하시는 능력이 있으셨다. 수가성 여인의 경우 그녀의 내면세계를 바로 알아보셨다. 그녀의 기갈 상태를, 그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바로 알아보셨다. 남편을 다섯이나 두어야 했던 그녀의 내면의 기갈을 보시고 물로 대화를 시작하셨다. 영적 통찰력인데 기독교 상담가는 내담자와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영적 통찰 능력이 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 2:10) 성령께서 상담자와 함께 하시며 통찰력을 갖게 하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행5:1-11)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나니아는 그의 아내인 삽비라와 의논하고 자기 소유를 팔았다. 그들은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재산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경우 그의 재산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을 팔고 난 후에 마음이 변했으며, 모두 드리기가 아까워서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만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것이 자기의 모든 재산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때에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의 위선과 그 배후에서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기독교 상담가들의 경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반 상담가들이 볼 수 없는 영적 영역의 통찰을 가질 수가 있다.

(2) 훈습과 성도의 견인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돌보며 성장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내담

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 물론 주변에 지지 그룹이 협력을 하지만 기독교 상담에서는 협력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러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결국 이루게 하시는 것을 성도의 견인³²⁴)이라 한다. 견인(堅忍)이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인내(perseverance)에 근거를 둔 표현이다. "견고하게 붙든다"는 뜻이다. 물론 신학적 용어지만 내담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5-39).

하나님은 일단 선택한 성도를 놓았다 잡았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도를 계속해서 끝 날까지 붙잡고,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성경은 그것을 「불꽃같은 눈초리」, 「구름기둥과 불기둥」 「소망의 영원한 닻줄」 등으로 실감하게 묘사하고 있다(히 6:18-20, 계 1:14, 19:12-16, 사 4:4-6, 신 1:33, 출 13:21-22, 시 23).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

그러나 인간에게 완벽한 훈습은 없다고 보인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와 약속을 해주셨지만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늦 땅으로 가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 낳고 성을 쌓았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늦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4:16)

324) (1) 이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성에 기초하고 있다. (2)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언약에 기초하는 것으로써 그 약속은 창세 전에 주신 것이며(마 25:34), 그 약속은 불변이다(롬 8:17). (3)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이다(고후 5:5). (박형룡, 교의신학 5권, 구원론, 서울: 한국 기독교 교육 연구원, 1977, p. 409.)

그가 동생을 죽였을 때에 느꼈던 불안감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았다. 성은 방어와 보호를 목적으로 쌓는다. 누가 자기와 자기 아들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성 이름을 에녹이라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아들 이름을 따서 성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이다. 가인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버지 아담의 마음을 헤아린 것 같다. 그래서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성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짓지 않았나 싶다.

5) 영적 성숙 단계/핵심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

가) 일반 상담에서

일반적으로 상담을 통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자아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을 통해서 자아가 성숙된다는 것은 통찰을 통하여 무의식적이었던 자신의 핵심역동을 의식에서 깨달아 알고 이해하게 되어, 정서적인 왜곡을 줄이게 되고 자신의 동기와 반응에 대한 현실적인 자각을 높이며 외부세계에 대한 정확한 지각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온전한 정신의 '완성'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든지 계속해서 추구되어야 할 인생의 진행형 과제로서의 의미가 있다.

(1) Freud

Freud는 자아 성숙, 즉 정서적 성숙의 의미를 '정신건강은 일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실용적으로 정의했다.³²⁵⁾ 인간의 발달과정은 기생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 태아기에서부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책임감을 지닌 독립된 부모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Freud는 신경증과 저인증³²⁶⁾, 그리고 정신건강에는 명백한 경계선이 없으며, 그것은 전적으로 정도의 문제이라는 것이다.

325) 이만홍, 황지연 공저. 역동심리치료와 영적 탐구, p. 252.

326) 인(p)은 대부분이 칼슘과 함께 뼈나 이에 함유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근육, 혈액, 장기 등에 함유 되어 있는데 인이 부족한 상태를 저인증이라고 부른다. 인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며, 뇌 활성이 저하되고 당뇨가 올 수 있다.

정서적 성숙이란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충족과 안정감을 제공해 주며 개인이 처한 환경 내에서의 상대적인 충족과 안정감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에게 상담의 목표는 건강한 자아의 현실 적응력을 강화 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즉 "where id was, there ego shall be."라고 할 수 있다.³²⁷⁾

(2) C.G. Jung

C. G. Jung이 말하는 자아성숙의 의미는 자기실현, 즉 다른 말로 진정한 개성을 실현한다는 뜻과 그 사람 자신의 전부가 됨을 뜻하는 개성화³²⁸⁾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C. G. 융은 1928년 '자아와 무의식'이라는 논문에서 개성화에 대한 정의를 처음으로 기술하면서, 개성화와 자기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즉 개성화의 종착점이 자아 성숙을 의미하는 자기 출현이라고 표현 했다.

개성화(Individuation)란 자기 자신이 이전에는 평가 절하되거나 의식적 생활에서 "말살"되었던 측면을 분화시키고 통합하고자 하는 인간 프시케의 일생에 걸쳐 이어지는 경향의 표현이며, 자기(self)란 융의 전문용어으로써 '개성화의 제2기'³²⁹⁾에서 '자신의 다른 측면'의 탐구를 시작했을 때 활동하게 되는 지금까지보다도 전체적인 자기 자신, 개체로서의 우리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한 융은 자기(self)의 명확한 특징은 타인과 또 우리가 그 일부인 역사와 문화의 흐름과 "관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며, "자신의 자기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친근성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도록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³³⁰⁾한 것 속에 자아 성숙의 완전한 표현이 있다고 본다.

327) 정석환, "정신분석학과 목회상담," 신학논단,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술저널, 2000, p.316.

328) 이부영, *분석심리학(C.G. Jung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1978, p.119.

329) 개성화의 제2기란 35-45세 사이에 시작하는 완성시기라고 융이 관찰했다. 이 시기의 프시케의 주요한 임무는 전반기 생애에서는 별로 발달시키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자신의 다른 면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융이 "자기"라고 부르는 프시케의 새로운 중심을 발달시키는 시기를 말한다. (웨인 G. 로린즈. 융과 성서. pp. 62-63. 참조)

330) 웨인 G. 로린즈, *융과 성서*, 이봉우 옮김, 서울: 분도, 2002, pp. 61-67.

C. G. Jung은 자기실현은 반드시 완전해지는 것 Vollkommenheit이기 보다 비교적 온전해지는 것 Vollständigkeit이라고 한다. 이부영은 분석심리학에서 '자기실현은 한 인간의 과제일 뿐 아니라 전 인류의 과업 이라고 했다. 모든 개인이 자기실현을 하면 하나의 이상적인 성숙한 사회가 실현될 것이나 아직은 이상이다. 그러나 인간의 무의식속에 근원적으로 개성화 과정이 존재하고 그것이 의식이나 사회 환경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언젠가 인류의 역사에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했다.'³³¹⁾

(3) Leon J. Saul

Leon J Saul은 ‘정서생활 성숙의 표준적인 구성요소는 적절히 놀 줄 아는 것, 의존심, 받는 것, 독립심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기, 책임감, 주는 것을 즐기는 능력이며, 적절히 균형 잡힌 생활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 받는 것, 주고(giving) 받는 것(getting), 일하고 놀고 쉬는 것이 정서생활의 기초’ 라고 했다. 정서생활 성숙의 특징에는 부모에게 의존한 태아기에서부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책임감을 지닌 독립된 부모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하고, 열등감, 자기중심성, 경쟁심 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 사회화 훈련을 하고 환경에 적응하도록 조건화하는 과정이며, 분노, 혐오, 잔혹, 호전성 등의 적대적 공격성이 유익하게 표현되며 유치하고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양식이 아닌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양식으로 드러내는 것, 현실을 확고히 지각하게 한다는 것, 정상적인 판단력과 융통성과 적응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들 이다.³³²⁾

(4) Margaret Mahler³³³⁾

Mahler 등(1975)은 유아가 자기와 타인 간의 분화에 대한 자각이 없

331) 이부영, *분석심리학(C.G. Jung의 인간심성론)*. pp.124-125.

332) Leon J. Saul (1971), *The Childhood Emotional Pattern And Maturity. 아동기 감정양식과 성숙*. pp.7-19.

333) 한국정신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이용승, " 분리-개별화 이론의 재조망," *임상심리학의 최근 동향*, 2002, 김중술 교수 정년퇴임 기념 심포지엄.

는 원초적인 인지적, 정동적(affective) 상태에서부터 시작하여, 분리와 개별화를 중심으로 심리내적이고, 행동적인 삶의 조직화가 발달한다는 사실을 추론하고 관찰하였다. 이 과정은 발달적으로 정상적인 자폐기(normal autistic phase)와 공생기(symbiotic phase) 이후에 시작되는데, 유아는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활용(emotional availability)하면서 점차로 분리된 심리 기능을 성취하게 된다. 분리-개별화는 공생기 이후에 분화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로부터 시작하여(differentiation subphase), 어머니를 거의 배제한 채 자신의 자율적 기능에 몰입하는 연습기(practising subphase)와,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면서 어머니에게로 주된 관심이 다시 향하게 되는 재접근기(reapproachment subphase)를 거쳐, 마침내 자신의 개별적인 정체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대상 항상성(emotional object constancy)을 향한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분리-개별화를 통해 유아는 “심리적인 탄생”을 하게 된다.

분리-개별화 이론에서 분리와 개별화는 두 개의 상호보완적인 발달 경로라고 할 수 있다. 분리(separation)는 아이가 어머니와의 공생적 융합(symbiotic fusion)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분화, 거리두기, 경계형성, 어머니로부터의 분리)이고, 개별화(individuation)는 아이가 자신의 개인적 특성들(심리내적 자율성, 지각, 기억, 인식, 현실검증 능력 등)을 갖추어 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리는 자신과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감각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러한 분리감은 점차로 대상 표상과는 구분되는 자기라는 명확한 심리내적 표상(intrapsychic representation)으로 발달해간다. 최적의 상황은 어머니로부터의 분화와 관련된 자각이 아이의 독립적인 자율적 기능의 발달과 나란히 진행되는 것이다.

Mahler의 이론에서 유아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와 다시 어머니와의 공생적인 융합 상태로 되돌아가고자하는 욕구 사이에서 분투하는 존재로 기술된다. 한 개인의 심리적 탄생의 중요한 시기가 되는 분리-개별화³³⁴⁾ 과정에서 성숙이란 사랑에 대한 어린이의 강력한 요구

334) 분리 개별화 과정이란 한 개인의 심리적 탄생을 분리-개별화 과정이라고 부른다. 약 4~5개월에 시작하는 정상적인 발달단계이다. 유아는 어머니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어머니 이외의 세상을 살펴보고 그 세상에 리비도를 집중시키며, 어머니로부터 약간 그리고 이후에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멀리 움직이는 능력을 보인

로부터 벗어나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는 것이며, 극단적인 자아 도취와 경쟁심으로부터 벗어나 대상에게 관심을 베풀고 아버지, 어머니와의 동일시, 형제자매와의 동일시에 의해 서로 의지해가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는 것이다. 이는 초자아와의 상대적인 조화이며 억압된 아동기 정서 양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³³⁵⁾ 아이는 성공적으로 정동을 조절해주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반복 경험함으로써, 타인의 행동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 맞닥뜨릴 때에도 대상 표상의 동일성(identity)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4) 이동식

이동식은 성숙 성장이란 큰 목표와 정체된 곳을 뚫는 당면 목표라고 했다. 치료의 현실적 목표가 성장을 향한 흐름이 정체된 곳을 뚫어서 흐름이 재게 되게 하는 것이다. 정체된 곳을 뚫는 작업은 끝이 있으나 흐름 자체에는 끝이 없다고 했다.³³⁶⁾

치료에서 궁극적으로는 주체성의 회복을 목표로 삼고, 주체성의 회복은 다름 아닌 핵심을 깨달아 스스로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깨달은 만큼 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를 안내했다. 핵심감정을 드러내 청소하면 그만큼 힘이 생기고, 정화된 상태에서 건강한 생활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기가 살아나는 것 즉 주체성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힘을 자꾸 기르는 것이 치료이며 방해되는 걸 제거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스스로를 사랑 하는 상태, 즉 자기가 자기를 도와야 함을 촉구하여 자기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자각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실천하여 스스로를 돕는 삶(주체적인 삶)을 확장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했다. 또한 주체로서의

다. 그것은 약 5개월부터 2세 반까지 지속되는 발달 단계이며,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두 개의 경로는 분리됨에 대한 정신내적 자각으로 이끄는 분리의 경로와, 분명하고 고유한 개별성의 획득으로 이끄는 개별화의 경로이다.(마가렛S.말러, 프렛파인, 애니버그만. *유아의 심리적 탄생 -공생과 개별화-*, 이재훈 옮김, 1997, 한국심리치료연구소, p. 398. 참조)

335) Mahler, M. (1965): On the significance of the normal separation-individuation phase in: *Drives, Affects, Behavior*, Vol. 2, ed. M. Schur.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pp. 161-169. (Leon J. Saul, *인격형성에 미치는 아동기 감정적 성숙*, pp. 25-26. 재인용)

336) 이동식, *도정신치료 입문*, pp.387-388.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 자기 힘과 깨달음도 내담자 스스로 하도록 촉구하고, 실제 체험을 통해 건강한 삶을 확대하도록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과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하여 건강한 삶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337)

(5) Abraham Maslow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가장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는 인간 동기의 위계에 대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매슬로우는 인간 동기의 두 가지 일반적인 범주를 구별하였다. 즉 결핍 동기(deficit motives)와 성장 동기(growth motive)이다. 결핍 동기는 중요한 욕구 영역들, 즉 생리적(psychological), 안전(safety and Security), 사랑(love), 및 자존감(self-esteem)의 박탈을 기본적으로 막는 것이다.³³⁸⁾ 결핍욕구에 지배되지 않은 성장 동기는 자기실현으로 방향지어진다. 즉 전체성을 성취하고 한 사람의 최고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잠재력을 발달시키도록 지향한다. 매슬로우에 의하면 인생 전반을 통하여 기본적인 갈등들 중에 하나는 안전과 성장 사이의 선택에 직면하는 갈등이다. 매슬로우는 갈등의 도식을 다음 같이 표시하였다. 안전 ←← 개인 →→ 성장

힘의 한 쪽은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끌어 제자리에 되돌아가게 한다. 안전을 위하여 우리는 흔히 안전과 방어에 집착하고 과거에 매달려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갔다. 힘의 다른 한쪽은 우리 등 뒤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처럼,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위험을 무릅쓰게 하고, 또한 우리의 잠재력을 자신 있게 개발하게 한다. 우리 내에서 성장의 힘과 방어적이고 퇴행적인 힘 사이에서 매우 기본적인 인간 딜레마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다.³³⁹⁾

337) 이문희, “소암 이동식 선생의 치료개입 특성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pp. 155-167.

338) Willard B. Frick, *Personality theories journeys into Self*, 손정락 역, *자기에로의 여행*, 서울: 성범사, 1991, pp. 93-97.

339) Ibid, p. 96.

그는 사람에게에는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을 향한 내적인 욕구가 있어서 자신의 개인적 역량의 최대한의 성장발달을 추구하는 쪽으로 삶에 대한 선택을 한다고 주장했다. 자기실현의 욕구는 자아완성의 욕구를 의미하며 진리와 그에 대한 이해, 안정된 평등과 정의의 구현, 아름다움의 창조와 사랑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매슬로우에게 있어서 자기 실현화된 삶은 인간 성격 발달의 궁극적인 성취인 것이다. Abraham Maslow의 자기실현의 욕구에 대한 가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상담의 최종 목표는 자기실현 욕구의 충족이라는 인간 정신의 이상적인 구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상담을 통해 얻게 되는 자아의 성숙과 자아의 실현이라는 인간 정신 치유의 목표는 나름대로 인간의 잘못된 부정적인 병리현상, 성숙하지 못한 측면을 해결하고 인간의 심리사회학적인 자율성과 개인의 자기실현을 증진시킬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전반적인 인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학적 접근 이외의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나) 기독교 상담의 영적 성숙

김균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언급할 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으로서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³⁴⁰⁾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기독교 상담에서 영적 돌봄이 없이는 온전한 상담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은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 어렵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의 방법이나 상담의 목표와 목적이 일반 상담과 다를 수 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을 다루실 때에 일반 상담가들이 말하는 방법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독교 신

340)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2*,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2, pp. 54-55.

양 교육학자인 James Fowler와 Howard Clinbell의 신앙과 상담의 목표를 통해서 상담의 목표를 살펴보려한다.

기독교 상담에서 영적 성숙이란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언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며, 핵심역동의 개념과 연결해 볼 때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란 자신의 핵심역동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뿌리 깊은 핵심감정과 욕구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욕구(또는 핵심감정)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미숙한 욕구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다. 영적 성숙은 인간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자기 성찰의 단계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산물인 통찰 단계,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상담하셨던 예수께서는 그녀의 삶의 고통으로부터 상담을 시작하셨다. 남편을 다섯이나 두어야 했던 한 여인의 아픔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결국 예배와 영생에 관한 이야기로 발전을 하였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녀의 영성이 회복되자 사람들과의 관계회복이 시작 되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한복음4:28-30) 주변 사람들을 피해서 마을 밖에 있는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 스스로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였다. 처음에는 유대인을 피하던 여인이 유대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이 정서적 성숙은 영적 성숙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James Fowler

Fowler는 Jean Piaget와 Lawrence Kohlberg의 심리학과 Erik Erikson의 발달심리학을 활용하여 신앙에도 나름대로 발달 단계가 있다고 보았고 7단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상담 치유자는 아니었지만 교육자로서 인간

의 이상적 성장 모델을 제시하셨고, 상처 입은 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 또한 이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기독교 상담 모델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독교 상담이 일반 상담과 다르게 영적 측면을 다루고 영적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James Fowler의 신앙 발달 단계와 상담 목적이 병행되어야 한다.

파울러의 신앙발달 단계³⁴¹⁾는 총 일곱 단계로 나뉘는데, 첫째는 미분화된 신앙단계(Undifferentiated Faith)이다. 파울러는 이 시기를 단계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단계 이전의 시기, 즉 "0단계"라고 명명하였다. 그것은 이 단계가 무의식의 세계를 형성하는 시기인 동시에, 이후의 신앙발달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서 발전된 상호성의 질, 신뢰, 자율성, 희망과 용기(또는 이와 상반되는 것들)는 후에 신앙발달에서 오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또는 모든 것을 침해하려는 위협이 된다)"

둘째는 직관적-투사적 신앙의 단계(Intuitive-Projective Faith)이다. 이 시기는 3세에서 7세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전형적인 단계이다.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은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하며, 대신 무한한 상상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신앙은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중심적이다.

셋째, 신화적-문자적 신앙(Mythic-Literal Faith)은 7, 8세에서 11, 12세의 어린이들에게 해당하는 신앙이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구체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인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논리구조를 따라 서술할 수 있는 반면, 설화의 주인공들을 신인동형론적으로 이해하며, 또한 그 이야기로부터 성찰적인 어떤 개념을 도출하지 못하고, 설화가 표면적으로 주는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넷째는 종합적-인습적 신앙(Synthetic-Conventional Faith)으로써 사춘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개인의 경험은 가족의 범

341) James W. Fowler, 신앙의 발달 단계, 사미자 역, 서울: 예수교장로교 출판사, 1987, pp.195-338.

위를 초월한 다양한 사회집단으로 확대되며, 이와 관련하여 신앙은 다양한 범위 속에서 일관된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 시기는 다양한 입장의 견해들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단지 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라고 이해하며, 결국 자신이 속해있는 이념, 혹은 신앙의 범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성찰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섯째는 개별적-성찰적 신앙의 단계(Individual-Reflective Faith)이다. 이 단계에선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상징에서 의미를 도출해내는 "비신화화"가 일어난다. 이전에는 중요한 타인들의 상호 인격적 범위에 근거하여 그 정체성과 신앙 구성들을 유지하였던 자아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나 의미의 구성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의미의 틀을 구성한다.

여섯째는 결합적 신앙의 단계(Conjunctive Faith)이다. 이전의 단계가 보편적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개별화하였다면, 이 단계는 비평적 성찰을 통해 구분되고 무시되었던 입장들을 자신의 것과 통합하는 시기이다. 이전의 신앙이 자주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시기의 신앙은 내적으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는 보편적 신앙의 단계(Universalizing Faith)이다. 파울러는 이 단계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사람들은 궁극적 환경에 대한 그들의 느낌 인식이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신앙 구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아주 희귀하다고 하였다.

기독교인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³⁴²⁾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상담의 목표가 같다고 할 때에 상담의 영적 성숙 또한 단지 심리적 안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편적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도와

342)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4:13).

야 한다.

나) Howard Clinbell의 영적 건강

Clinbell은 그의 저서 「전인건강」에서 한 사람의 건강을 7가지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이 영성의 전인건강이다.³⁴³⁾ 그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욕구 내용을 일곱 가지로 정의 한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영적 건강이란 이 일곱 가지 영적 욕구를 채워가는 것이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치유하며 힘을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둘째는 지속적으로 초월을 경험해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다. 조용하고 고요한 순간으로써 내면에 임재하신 영원하신 그분과 접촉하는 순간을 말한다. 셋째는 상실과 비극과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의미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가치들과 우선순위들과 삶의 책임들을 정의와 사랑과 성실 속에 중심을 두어 인격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 다섯째로 초월적 자아 또는 영적 자아의 지혜와 창조성과 사랑을 발견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과 자연 세계와 놀라운 생명줄로 얽혀서 하나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 인간 사이의 절망의 본질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자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생각에 있다. 영성 중심의 전인건강은 서로 간에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간의 영적 성장을 격려하고 협력하는 소그룹이나 공동체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잘 자라난다. 일곱째 슬픔, 죄책, 분노, 용서하지 못함, 자기거부와 같이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신뢰 자존감, 희망, 기쁨,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심화 시킬 수 있는 영적 자원들을 필요로 한다.³⁴⁴⁾

343) 그는 그의 책 Well Being(이종현 역, 서울:성장상담연구소, 1996, pp24-7)에서 말하는 7가지 차원의 건강은 다음과 같다. 1) 영성의 전인 건강, 2) 마음과 인격의 전인 건강, 3) 몸의 전인 건강, 4)인간관계의 전인 건강, 5) 일에서의 전인건강, 6) 놀이에서의 전인 건강 7) 살고 있는 세계의 전인건강

344) Ibid, p. 45-58.

그는 영적 건강에 대한 정의에서 영적인 자기 관리를 증진 시키는 것은 더 건강하게 영적인 욕구 충족의 방법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영적인 갈망들을 개방하며, 사랑하며, 성장하며, 삶을 즐거워하며, 자존감을 강화 시키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방법으로 충족시킬 때에 종교는 전인건강을 창조하는 종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전인건강이 목회 상담의 목표이다.

나. 피해자 아벨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창4장 25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살해자 가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루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고통을 주는 사람도 이미 자기를 잃어버린 비존재요, 피해자 역시 이미 비존재로 전락한 상태에서 상처를 주고받는다. 여기에서는 역시 비존재로 전락한 피해자 아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상담에서 피해자 아벨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장례식을 치러 주는 것 외에 길이 없다. 더할 수 있다면 남은 가족에게 가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에서는 피의 호소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따라서 일반 상담과 다른 점이 하겠다.

1) 피해자와 비존재

아벨은 영문도 모른 채 형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들이었기에 보는 사람도 없었다. 단지 그는 시기 받는 존재가 되었다. 아벨은 이유 없이 공격과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가인은 그의 마음에 있는 분노를 그의 동생에게 투사하였고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유아적 불안과 분노와 시기심을 '분열'시켜 투사하거나 강박적으로 유지하는 정신성이 이미 '구조화'되었기에, 이들의 의식은 이미 자신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자각할 수가 없어, 타인과의 진정한 대화나 인격 개선은 좀처럼 가능하지 않다. 단지 그가 위치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대화 하는 '듯 하게 보이는' (as-if) 행태만 반

복될 뿐이다. 성격장애자의 껍 막힌 '가짜 인격'을 일상에서 개선시키려면...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한다.³⁴⁵⁾ 율라노프는 시기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로 시기 받는 사람은 가치 있는 주체가 아니라 단지 시기심의 대상인 사물이 된다. 둘째로 시기 받는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 앞에서 전적으로 무력해진다. 시기하는 사람과의 관계 개선이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동시에 시기심으로 인한 공격에 대하여 방어할 수도 없다. 셋째로 시기 받는 사람은 잘못된 것도 없이 공격당하고 상처를 입는다.³⁴⁶⁾

시기심으로 시기하는 가인은 형이 아니라 죽이려는 비존재가 되었고, 시기 당하는 아벨은 동생이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비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무참히 살해되어 들에 버려졌다.

2) 비존재를 존재케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비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피해자를 도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존재로 전락했을 때에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출 2:23). 요셉이 총리로서 고대 근동을 기근에서 살린 이후 바로의 허락을 받고 정착한 히브리인들은 바로의 총애를 받았지만 세월이 흐른 후 히브리인들 사이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의 노예가 되었다. 노예는 대표적인 비존재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해 죽었던 아벨의 아픔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허락 하셨다. “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

345) 프로이드정신분석연구소 홈페이지www.freudphil.com

346) 앤.베리 율라노프 공저, 신데렐라와 그 자매들: 인간의 시기심, 이재훈 역, 서울: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p. 30.

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4:25, 26)

일반 상담에서라면 살해당한 아벨과 같은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혀 있다. 즉 상담가는 죽어 묻혀버린 피해자를 도울 길이 없다. 그러나 상담가이신 하나님은 그와 같은 피해자도 도와서 그 한을 풀어주신다. 피해자의 한이 풀릴 때에 비로소 가해자의 고통 또한 풀리기 때문이다.

‘나와 너’ 관계의 근본적이고 가장 순수한 형태는 사람과 하나님(영원한 너) 사이의 관계이며 이는 인간관계의 전형이고, 인간관계를 나-너 관계로 살게 하셨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나-너 관계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종종 나-그것(I-it)의 관계가 된다. 나-그것의 관계에서는 상대를 사고나 행동의 대상으로 다루게 된다. 그런데 상대방을 ‘너’가 아닌 그것(it)로 대하는 순간 나 역시 나의 존재를 잃게 된다. 상대방이 노예가 되면 나는 노예의 주인으로 나의 주체가 바뀐다. 만약 내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는다, 그 관계는 나에게 있어서조차 도구로써 존재하는 나의 한 단면만 보여 주지, 나의 참다운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It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인을 살인자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살인자를 처벌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 예수께서 간음 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 하지 않노라.” 말씀하심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영원한 존재(I)로, 메시아로 남으셨다. 사람들이 여인을 간음한 죄인으로 처벌하려고 하였을 때에 군중들은 자신들의 실체 죄인과 어울리지 않게 심판자로 서 있을 때에 예수께서 자신들을 보게 하신 것이다. 그 때에 자신들= 여인의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다. 결국 군중들도 여인도 똑같이 예수의 구원을 기다리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된 것이다.

앞서 언급 한 부버의 나와 너에서 존재 방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

나-그것'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너'의 방식이다. 두 가지 태도는 일종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내 자신의 존재방식이요, 내 자신의 존재를 형성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나-그것'의 방식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 밖에 있는 사물을 대한다. 동시에 자기 자신도 타자에 대해 그저 어떤 사물로서 남아있다. 예수는 단지 어떤 사물일 수가 없는 분이시다. 상담가와 내담자 사이에 사랑과 용서의 사건이 내담자가 그의 상처를 넘어, 즉 '그것'에서 '너'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는 사랑이시고, 용서의 주체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독교 상담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나와 너로 살아가는 그 날을 위하여..

결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근친 살인 사건이라는 주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가, 문화인류학자, 신화학자, 심리학자 등 많은 이들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주제로 연구를 하였다. 최근 들어서 교회에서도 성서를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적 접근을 시작하였다. 그로 인하여 성서 사건이나 인물의 심리 역동을 읽어낼 수 있게 되었다. 성서속의 인물들도 우리와 꼭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로 심리 역동의 영향 아래 있었다. 성서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역동성을 읽는 것은 더 흥분되는 일이다. 인간을 더 잘 이해하는 길이다.

특히 역사적 사실이나 신화냐라는 논쟁 속에 있는 원역사에 속하는 가인의 형제 살해를 심리 역동으로 읽어내는 시도를 처음으로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 역동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저에 있는 심리 역동과 같아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인류 보편적 심리 역동을 가인에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성서 읽기에서 심리구조주의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 싶었다. 구조주의는 사물의 참된 의미가 사물 자체의 속성과 기능에서가 아니라, 사물들 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세계 안에서 사물은 언제나 다른 사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 그 관계망 안에서 사물이 지니는 위치에 따라 사물의 의미는 규정되며 변화한다. 따라서 사물의 의미는 개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부분으로 삼고 있는 전체 체계와 구조 안에서 사물의 의미는 비로소 인식될 수 있으며, 체계의 변화에 따라 사물의 의미도 변화한다. 따라서 구조주의는 전체 체계 안에서 사물들의 관계를 기술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 시도한다. 그리고 개개인의 행위나 인식 등을 포괄하고 그것들의 최종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구조와 체계의 원리를 밝히려 한다. 이러한 구조주의는 인간 주체에 앞선 ‘구조’를 강조함으로써 실존주의 등의 인간

중심적인 사유와 대립하며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논문에서 가인의 이야기는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살인 충동의 원형으로써 이해하여 인간의 핵심감정을 읽어내려고 노력 했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가인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으며 인간의 주체가 아니라 관계 구조가 주체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다. 가인을 이해하면서 가인이 개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과 가족이라는 심리역동 전체 구조 안에서 동생과 관계 규정에 따라 그의 심리 역동이 강하게 일어났음을 발견하였다. 가인의 폭력성은 형이라는 관계 구조 안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정도 해본다. 가인이 동생으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즉 구조가 바뀌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가인은 그가 살아가는 세계 안에서 언제나 다른 형제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였다. 그 관계망 안에서 가인이 지니는 위치에 따라 가인의 의미가 규정되며 변화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가인의 의미는 개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가인을 연구하면서 인간이 구조 안에서 참 나약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관계가 인간 주체의 모든 사상과 행위의 특수한 형태를 조건 짓는다.

본 논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조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인간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상담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과 새로운 차원의 기독교 상담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존귀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도우신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치유하시는 상담가 하나님의 손길에서 기독교 상담가의 상담의 목적과 상담의 실재를 새롭게 발견하였다.

Abstraction

Introduction

The central focus of this dissertation paper is the nuclear feelings found within the unconsciousness of the human mind – namely, the subconscious mental workings of Cain, who murdered his brother Abel. By analyzing Cain’s thought process and how God treated him for his transgressions, this paper aims to uncover the essence of the pastoral counseling method. Up until now, people have largely interpreted Cain’s wrongdoing as an act of hatred and jealousy, stemming from his lack of faith. As a result, he supposedly incited God's anger and was dealt divine punishment. However, if one carefully studies the biblical story of Cain, it becomes apparent that Cain did not kill his own brother out of simple jealousy; there is a multitude of psychodynamic issues at work within this biblical narrative, most notably the matter of nuclear feelings. “Nuclear feeling” is defined as a person’s central emotion, one which reigns control over his/her speech, behavior, thoughts, and other subdivisions of emotions. Such emotion is born when one desires love and approval, but does not receive it. Nuclear feelings are deep-seated, inner emotions that have been unable to reconcile with their sources, and as consequence, build and fester within a person.

Nuclear feelings are brought on during the subjects' youth by people whom they maintain close, immediate relationships with, namely parents, siblings, relatives, and other people whose presence exert significant impact on the their livelihood. In most cases, it is the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that bears the greatest amount of responsibility. According to Sigmund Freud, negative feelings that form during one’s youth will stay with that individual for the rest of their life. The dynamics of the unconsciousness is what feeds and influences the formation of nuclear feelings.

Jung's study of complexes is crucial to the understanding of nuclear feelings. Both are very similar in concept, but there are differences; nuclear feelings are formed much earlier in life and are more deeply ingrained than complexes. Dr. Dong Sik Lee was the first to make use of the term "nuclear feelings", but defined it as feelings experienced solely by an individual.

Part II: Different types of nuclear feelings, and Cain's personal nuclear feelings

Cain and Abel's first offerings were the fruits of their own labor – Cain offered his agrarian produces and Abel a sheep from his flock. It can be inferred that these sacrifices were performed for a thanksgiving event of some sorts. A differing perspective offers the possibility that these sacrifices were done by people in general to maintain harmony with the universe – God or otherwise – and to obtain eternal love and wisdom from their respective deities/cosmic forces. Cain was no different; he wanted love from God, but God rejected his sacrifice. He became ashamed of himself and jealous of Abel, whose offering was warmly welcomed. Thus, he directed his competitiveness and aggression towards his younger brother.

Human beings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God is represented by the Holy Trinity, the triangular, symbiotic relationship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n order to remain within God's eternal love, we humans need to emulate this divine relationship by communicating our love to one another.

According to Pannenburg, humans are born "imperfect". We start off childish and immature, but as we age and grow more mature, we progress toward a more "perfect" stage – that is, we ascend to a level more befitting of beings who were made in the image of God. Humans are essentially born "hungry", endlessly desiring and wanting to know. Humans are not by any means perfect; this is

not what it means to be made in the image of God. Rather, it indicates that we are able to maintain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our creator, and that as social creatures, we can ensure our survival through our interactions with each other. The first interactive experience for most people is with their mother, and through her influence, they develop their personal identities and construct a foundation for their future relationships with others – and God.

Cain's nuclear feelings formed as followed. The first nuclear feeling that seeded itself was jealousy, the depressive sensation we feel when our desire (a material object, a character trait, a social position, etc.) is in the hands of another. By comparing themselves to the offending parties, people cause their self-esteem and confidence to deteriorate. As a defense mechanism, they pass the blame onto the perceived threats and label them as the chief source of their problems.

According to Melanie Klein's Objective Relation Theory, jealousy is something that develops the moment an infant nurses from his/her mother's breast and is met with certain obstacles. If the mother is cold towards the infant during feeding, or if the milk doesn't flow as easily as it should, the aforementioned feeling will surface.

Humans instinctively desire goodness and warmth, but this is not necessarily available to all; for whatever reason or circumstance, some cannot obtain it. Those who are bereft begin to feel envious of those who do have access, and ultimately end up resenting the very goodness they have been seeking. This is the case of Cain – he wanted the qualities of Abel that made him so favorable in the eyes of the Lord, but couldn't get it. So instead, he resorted to hating his brother.

Shame forms when one fails to achieve the goal that

he/she had been pursuing, and often leads him/her to feel worthless for being unable to do so. Guilt and shame are not to be misconstrued as interchangeable terms. Guilt is best described as the regret people feel when their actions go against their personal morals and principles. Shame however, is the deconstruction of one's self-esteem, triggered by his/her failure to accomplish something he/she had set out to do.

According to Erikson, shame is born during a child's anal stage. Self-psychologist Kohut states that if a parents' care for, and response to, their child is dubious, the child will grow up to be self-absorbed and narcissistic. This poor parental care will lead the child to believe that they are unneeded, and encourages their narcissism and sense of shame.

If the parents suffer from some form of emotional disorder, they will be unable to connect and empathize properly with their offspring. The child in turn will develop negative emotions, among them shame. If this becomes a chronic problem, the child will internalize this shame and grow up with it. After being unable to attain God's approval, Cain was ashamed - his countenance changed, and he was unable to raise his face before the Lord.

Those with inferiority complexes perceive themselves to be at a level lower than they truly are. They have little confidence, and strongly think and feel that they don't have the capacity to do anything of worth. Freud believed that inferiority complexes were born from the sexual differences between a male and a female.

Alfred Adler believed that inferiority complexes were originally creative energies. Humans naturally have a craving for perfection. But, as people, we cannot be perfect and thus we develop inferiority complexes. This becomes our drive to develop cultures and grow. Personality psychologists believe that the first stage of an

inferiority complex is an individual's self-image. This is then fueled by the way people respond and compare themselves to external elements.

Freud's interpretation of the Instinctive Theory of Aggression states that at birth, humans already possess the following: "thanatos", "eros", and "libido". These three things are what lead to aggression. Aggression (physical assault) is preceded by hostility. When one doesn't receive adequate amounts of love, warmth, and compliments for one's good deeds, he/she will become angry and hostile, and will accuse others of obstructing him/her from receiving his/her fair share.

In contrast, psychologists believe that aggression is not an innate trait – rather, it is the result of outside factors. When a person encounters a situation that causes them discomfort and negativity, the way their cognitive brain perceives and processes the information will determine whether or not their aggressive side surfaces.

Winnicott states that aggression exists prior to the integration/formation of one's personality. According to Winnicott, aggression is best defined as mobility and activity. An infant in its mother's womb will still kick and punch, and these movements are the beginnings of aggression. Aggression is not necessarily a bad thing – it is a natural part of a child's development, and children will use it to test the boundaries of their personalities. As a whole, aggression is a creative property, not a destructive one. Psychoanalysts believe that aggression is an inherent trait, almost fully formed during an infant's prenatal stage.

Cain's feelings of aggression and hostility come from his nuclear feelings. Instead of properly expressing his shame, jealousy, and sense of inferiority, he repressed those feelings and converted them into hostility. Cain's suppressed emotions ultimately boiled over in

the form of mortal violence directed at his brother. No single factor can be held accountable for Cain's fatal show of aggression – it was the combined efforts (the psychodynamic) of Cain's internal conflicts and outside circumstances. After Cain murdered Abel, he was fearful and hid from the Lord; he had committed a crime worthy of severe retribution. However, God instead opted to care for Cain and help him recover.

Part III: God's Treatment of Cain's Nuclear Feelings

In counseling, the first step a counselor needs to take is to meet with their client. God called out to Cain, who had hidden himself out of fear. To ease him, God empathized with Cain. Most clients will initially be hesitant, and will attempt to restrict the counselor's access to their problems/issues and whatever else they deem shameful. Cain expressed the same sort of resistance. In turn, God questioned Cain about Abel in order to break down Cain's walls and force him to face his nuclear feelings.

Christian counseling is able to deal with “empathy questioning” more easily than general counseling, as Christian counseling incorporates the love of God: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Hebrews 4:12). More often than not, clients are in severe denial as they do not understand their own nuclear feelings very well. It is the job of the counselor to bring their issues to light; they need to make their client distinctly aware of their nuclear feelings and the problems these feelings are causing. In the same fashion, God approached Cain and elucidated his problems/issues for him.

The second stage is acceptance. Once the client overcomes their initial denial, the client will be able to agree that they have suffered and have been

damaged by their ordeal. In general counseling, acceptance marks the end of this stage. In Christian counseling, there is still one more remaining step: repentance and God's forgiveness. Cain ultimately accepts the fact that he is a sinner. "Cain said to the LORD, "My punishment is more than I can bear" (Genesis 4:13). Once Cain came to terms with his position, God absolved to help him. "But the LORD said to him, "Not so; if anyone kills Cain, he will suffer vengeance seven times over." Then the LORD put a mark on Cain so that no one who found him would kill him" (Genesis 4:15).

The final stage in counseling is insight, and the working-through of the problem. During this step, the detrimental habits and behavioral patterns that brought about the client's nuclear feelings need to be weeded out and undone. Subsequently, this will help the client clearly see the realities of their situation. In general counseling, the responsibility of working through the problem falls solely on the client. In Christian counseling, the Holy Spirit is meant to aid them every step of the way.

In addition to the psychological approach, we will need a study on spiritual growth as humans found their beginning as the image of God. According to Clinebell, humans need to enrich their lives with these seven different focuses: spirituality, physique, mental health, relationships, work and play, environmental, and crises and loss. But above everything else, the client needs to develop a desire for spiritual support.

What makes Christian counseling so unique? God helped not only Cain, but also Abel – he assisted both the aggressor and victim. "The LORD said, "What have you done? Listen! Your brother's blood cries out to me from the ground" (Genesis 4:10). Abel is dead and gone, but despite this, God still listened to what he had to say. "Adam lay with his wife again, and she gave birth to a son and named him Seth, saying, "God has granted me another child in place of Abel, since Cain killed him." Seth also had a son, and he named him Enosh" (Genesis 4:25-26).

참고문헌

단행본

- 권혜정. 수줍음도 지나치면 병, 서울: 학지사, 1998.
- 김경민. *이제는 부모자격증시대*, 서울: 동서심리상담연구소, 2006.
- 김계현.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학지사, 2002.
- 김영한, 임지현 편. “*유토피아.*” *서양사의 지적 운동*. 서울: 지식산업사, 1994.
- 김원형 외. *인간과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 두산동아 사서 편집국. *새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2000.
- 박성희. *상담실 밖 상담이야기*, 서울: 학지사, 1999.
- 박철수. *성경의 제사*, 서울: 품만, 1988.
- 송흥국. *기독교와 세계 종교*, 서울: 한국 문서선교회, 1987.
- 이기문 감수. *동아새국어사전*,
- 이동식. *도정신치료 입문(프로이드와 용을 넘어서)*, 서울: 한강수, 2008.
- _____. *현대인과 노이로제*, 서울: 한강수, 1993.
- _____. *현대인과 스트레스*, 서울: 한강수, 1991.
- _____.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한강수, 1989.
- 이만홍, 황지연. *역동심리치료와 영적 탐구*, 서울: 학지사, 2007.
-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서울: 이유, 2003.
- _____. *정신분석의 이해*, 서울: 전남대, 2000.
- 이부영. *분석심리학, -Analytical Psychology -C. G. Jung's thoughts on mind.C.G.Jung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1978.
- 이승녕.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1981.
- 이장호. *상담심리학*, 서울: 박영사, 1995.
- 임종열. *대상중심 경계선 가족치료*, 서울: 한국가족 복지 연구소, 2001.
- 이재은 편저. *기독교문장대백과사전*, 제 11권, 서울: 성서연구사, 1993.
- 차준구. *열등감과 정신질환*, 서울: 두란노, 1993.
- 최경희. *대인관계와 정신역동*, 서울: 이문, 2000.
- 대한 성서 공회.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Alfred Adler and Hertha Orgler.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설명환 옮김, 아틀러 심리학 해설, 서울: 선영사, 1987.
- Allen M. Siegel. The Analysis of the Self, 이재훈 옮김, 하인즈 코헛과 자기심리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 Benner, David G. Psychotherapy and the Spiritual Quest, 이만홍, 강현숙 공역, 정신치료와 영적탐구, 서울: 하나의학사, 2000.
- Bradshaw, John. Bradshaw on-the family: a revolutionary way of self-discovery Florida Health Communications, Incorporation, 임옥희 역, 가족, 서울: 중앙미디어. 1988.
- Charles L. Whitfield. Healing The Child Within, Health Communicatins, 1987 김용교, 이인출 역.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 서울: 글샘, 1995.
- David R. Shaffer, 발달심리학, 송결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 Dewald PA.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dividual Psychotherapy T a p e Library. 김기석 역. 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고려대. 1978.
- D.W. Winnicott.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이재훈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 _____. Playing and Reality, 이재훈 옮김, 놀이와 현실,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 Ernst Bloch. 희망의 원리, 박 설호 역, vol. 1. 서울: 솔, 1995.
- Fraser Boa. The Way of The Dream. 박현순, 이창인 공역, 융학파의 꿈해석, 서울: 학지사, 2004.
- Gerald Corey.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조현춘, 조 현재, 이희백, 천성문 공역, 집단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1999.
- Hall, Calvin S. A Primer of Jungian Psychology, 최현 옮김, 융심리학의 입문, 서울: 범우사, 1985.
- Hanna Levenson. Time Limited Dynalic Psychotherapy. 정남운, 변은희 공역. 단기 역동적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08.
- Hanna Segal, Melanie Klein. 이재훈 옮김. 멜라니 클라인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 Jay R. Greenberg, Stephen A. Mitchell,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0.
- Konrad Lorenz, 공격성에 관하여, 송준만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6.
- Leon J. Saul. Emotional Maturity, 감정적 성숙, 제3판, _____ . The Childhood Emotional Pattern.The Key to Personaloty It's Disorders and Therapy, 이근후, 박영숙, 문홍세 공역. 인격형성에 미치는 아동기 감정적 양식, 서울: 하나의학사, 1998.
- _____. The Childhood Emotional Pattern And Maturity. 찬성문, 이영순, 박순득, 정봉희, 장문선, 김수령공역. 아동기감정양식과 성숙, 서울: 이문, 2001.

- _____. The Childhood Emotional Pattern in Marriage. 정방자, 최경희, 김연지 공역. 결혼생활의 역동적 이해, 서울: 이문, 2001.
- _____. Psychodynamically Based Psychotherapy. 정신역동적 정신치료, 이근후, 최종진, 박영숙 공역. 서울: 하나의학사, 1992.
- Mahler, M. "On the normal separation-individuation phase in Drivess, Affects, Behavior, Vol. 2. ed. M. Schur.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g Press. pp. 161-169.
- 마리 파워스. *친밀감의 적 수치심*, 서울: YWAC 출판사, 2005.
- Marrgaret S. Mahler, others.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이재훈 옮김, 유아의 심리적 탄생. -공생과 개별화-,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 M. 쉘러. *人間の地位*, 최재희 역, 서울: 박영사, 1996.
- M. Scheler. *인간의 위치*, 서울: 전영사, 1983.
- Patricia Coughlin Della Selva. Intensive Short-Term Dynamic Psychotherapy, 김영란, 김준형, 백지연, 원희량, 주혜명 공역. 집중적 단기정신역동치료, 서울: 학지사, 2009.
- Sigmund Freud. *문명 속의 불안, -왜 전쟁인가-*, 김석희 역.
- _____.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김정일 역, 서울: 열린책들, 1996.
- Wayne Gilbert Rollins. Jung and Bible, 이봉우 옮김, *융과 성서*, 서울: 분도, 2002.
- W. 판넨베르크. *인간학, 왜관*, 서울: 분도, 1996.
- W. 판넨베르크. *인간이란 무엇인가*,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위르겐 몰트만.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김균진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 Ziegler, D. J. *성격심리학*, 이훈구 역, 서울: 법문사, 1991.
- Andrew P. Morrison. Shame: Underside of Narcissism(Hillsdale, NJ The analytic Press,1989.
- Ernst Bloch, tr. The Principle of Hopeby. by Neville Plaice, Stephen & Paul Knight, Cambridge: The MIT Press, 1995.
- Ernst Bloch, tr. by, N. Plaice et al, The Principle of Hope vol. 1.
- Erik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second ed. New York: W.W. North & Company, Inc. 1950.
- Erick H.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59.
- Gershen Kaufman. The psychology of Sham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1996.

- H. Kohut. Thoughts on Narcissism and Narcissistic Rage, in Self Psychology and the Humanities, 1972/1985.
- H. Lynd. On Shame and Search for Identity, New York L Harcourt, Brace & World, 1958.
- J. Montma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of God, London and New York, 1981,
- Kaufman, Gerhen. Shame: The PSYchology of Shame: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NY. Springer Pub Co, 1989.
- Leonardo Boff. Trinity and Society, Orbis, 1986.
- Sheldon Cashdan. Object Relations Therapy: Using the Relationship, New York: W.W. Norton Professional Book, 1988.
- Sigmunt Freud.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London: Hogarth, Press, 1953.
- Sigmunt Freud. Civillization and its disconternts, London: Hogarth, Press, 1961.
- Sigmunt Freud. New Introductory Lecture on Psychoanalysis, London: Hogarth, Press, 1964.
- Thomas More, Utopia, tr. P. Turner(Londen: 1965),

논문 및 정기 간행물

- 김명숙.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자기존중감과 열등감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inferiority scording to perfectionism of children.” 교육심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3.
- 김성애. “수치심 이해와 치료에 관한 연구-기독교 상담적 관점으로-.” 석사 학위 논문, 국제신학대학.
- 김용섭. “열등감과 적응.” 논문집 제 14 집, 고신대학교, 1986.
- 김정국. “어머니의 열등기능 의식화가 어머니와 사춘기 자녀간의 관계개선에 미치는 영향.” Study of Middle-Aged Women's Inferior FUNCTIONS: the effect of mothers' conscious awareness of their inferior functions on imoriving the relationships with their adolescent choldren, 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2003.
- 김종선. “판텐베르크의 인간 이해. -하나님 형상과 세계 개방성을 중심으로-” 신학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
- 김지아. “수치심에 대한 목회상담적 이해.” 목회상담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2.
- 김진심. “정신역동 집단상담이 자기 사랑과 자아 개념에 미치는 효과.” 상담심리

- 석사학위논문, 창원대, 2003.
- 라일탁. “Jurgen Moltman의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이해.” 석사 논문, 협성대학교,
- 박일숙. “아동의 열등감 극복을 위한 Adler 개인심리 이론의 적용.”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순천대학교, 2002.
- 박정숙. “아동기 열등감 정도와 사회성과의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 박지현. “내재적 욕구표현에 관한 연구,”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 신라대학교, 2001.
- 성문경. “원역사에 나타난 J기자의 신학.” -창조, 죄의 침입과 증대에 대한 본문을 중심으로-, 신학 석사학위 논문, 목원대학교, 2002.
- 양미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귀인성향이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2007.
- 유호정. “구약제사를 통해서 본 이스라엘의 영성회복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석사 학위 논문, 호남신학대학, 2000.
- 윤영애. “자녀의 출생순서에 따른 어머니의 기대수준.” 교육학 석사 학위 청구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88.
- 윤이상. “에릭 에릭슨의 8단계 생애주기이론을 통한 한국 교회 청년 대학부 소그룹 진단의 가능성 모색.” 신학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 2009.
- 이문희. “소양 이동식 선생의 치료개입 특성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심리학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 논문, 이화여자대학, 2008.
- 이숙.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구약에 나타난 대인 관계 실패모형 분석 및 기독교상담-, 신학 석사학위 논문, 성결 대학교, 2009.
- 이원식. “모세오경의 문서가설에 관한 연구.” 대구: 영남신학대학교, 1993.
- 이영자. “구약제사의 희생제물과 그리스도와와의 연관성.” “The offerings of O.T concerning Christ” 목회학 석사학위 논문. 안양대학교, 2002.
- 이은영. “형제자매간의 열등감에 대한 성경적 상담.” 기독교상담학,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2007.
- 이정미. “인지 상담을 기초로 한 열등감 극복에 대한 연구.”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교육 석사학위 논문. 한일장신대. 2005.
- 이종성. “로렌스 크랩의 성경적 사고를 통한 열등감 극복에 대한 연구.” 목회 신학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 신학대학. 2004.
- 임양택. Ecclesiogenesis: An Ecocommunity Building with Aged Korean-Americans in the Post Industrial Society, 목회학 박사 학위 논문,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1996.
- 이희진. “죄의 근원으로서의 폭력에 대한 세 가지 관점, -관계신학과 정신분석학 그리고 동물행동학을 중심으로-.” 목회상담 석사 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2007.
- 장영신. “여성의 대상관계와 우울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인천대학교, 2008.
- 전경인. “TV프로그램이 인간관계개선 및 열등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 1997.
- 전인호. “구약에 나타난 제사 제도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관한연구.” 구약신학 석사학위 논문, 안양대학교, 1999.
- 조미숙.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모-지녀의 관계에 대한 자기 심리학적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서울 여자 대학교, 2009.
- 최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이해-칼빈과 판넨베르크를 중심으로-.” 신학 석사학위 논문, 영남신학대학교, 2004.
- 최윤미. “아동과 가족, 상황 특성이 형제간의 질투정서와 비노절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학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5.
- 하늘. “시기심에 관한 목회상담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8
- 홍은수. “수치심의 이해 및 치유.” 신학과 목회상담학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 2002년.
- 허찬희. “동양정신치료와 서양정신치료 국제포럼.” 박사 논문, 2004. 8.21. 발표, International Forum on Taopsychotherapy and Western Psychotherapy. Hotel Lotte, Seoul, Korea. August, 2004.
- 황치호. “역기능가정에서 성장한 부부갈등 해결방안 연구.” -대상관 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상담 석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2008.

기타 자료

- 강영계. “충동과 힘에의 의지.” 인문과학논총 제34집, 2000.
- 강성렬. “설교자를 위한 창세기 강해: 처음 살인과 아담의 후손.” 그말씀, 1993 5월호
- 강석현. “도정신치료와서양정신치료국제포럼.” 2004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Forum on Taopsychotherapy and Western Psychotherapy.
- 강희천. “수치심의 재개념화와 기독교적 정서교육.” 연세교육과학, 제46집, 연세대학교, 1998
- 김균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해석.” 신학논단 vol. 19, 1991.
- 김찬국. “창조설화에 나타난 히브리 사상구조.” -창조사상을 중심으로-,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회 학술 강연, 1991
- 김태훈. “가인과 라멕의 진보(퇴보) 이야기.” 성경연구 제 8권 제9호, 한일장신대, 2002
- 노숙현. “인간관계의 기초로서의 형제관계에 대한 성서적 이해.” “Biblical Understanding for the Brother Relation as the Basis of Human

- Relationship." 금구논총 Vol. 5. 동국전문대학, 1997
- 노희원. "창 4장 가인-아벨 단화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맹점들." 연세대 목회자신학 세미나 Vol. 21.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연합신학 대학원, 2001, pp. 1-25.
- 박미란, 이지연. "또래애착이 초기청소년기 우정관계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 15. No. 2. 청소년상담연구, 2007
- 박은주.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자녀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 연구학술 저널 Vol. 18. 총신 대학교 부설 기독교 교육 연구소, 2009
- 박일영. "종교의 기원." 발행자명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학술지명 인간연구, 3호, 2002.
- 서부희. "리비도 충동의 역동성 -초현식주의 이상의 소설(지주회사) 한중인문학 연구 -." 2009, vol. 60.
- 안이환. "대상관계 이론과 상담 실제."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Vol. 32. 2000
- 유진소. "열등감과 열등의식." 목회와 신학, 2001, 12월호.
- 윤용진.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 소고." 개혁 신학 Vol.12. 장로 회 신학 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2
- 윤정숙. "Adler와 Horney의 자아형에 관한 연구." 신학지남, 1987.
- 이동식. "한국정신치료에 관한 연구 논문." 1970.
- 장석정. "가인과 아벨 이야기 I (창 4:1-8)." -본문 구성분석(Composition Analysis)-. 구약논단 Vol.5. 한국 구약학회, 1998
- _____. "가인과 아벨 이야기 II (창 4:9-16)." 구약논단 Vol.8. 한국 구약학회, 2000
- 정형수. "수치심을 지각하는 정도, 비난의 방향 및 대처방식과 우울증과의 관계."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2008. Vol. 28.
- 조광제. "핵심감정의 이해와 상담." 정례조찬간담회 강연, 동아대학교, 1995, 6월 17일.
- 하경택.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4:1-16에 대한 주석적 연구." "The Sacrifices of Cain and Abel: An exegetical Study of Gen 4:1-16)." 서울 장신논단,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 연구원, 1998
- 한국정신치료학회. "제6회 전공의를 위한 정신치료 워크숍 학술지." 2004.
- 한제호. "가인의 문화와 아벨의 문화." 생명샘 특별기고 Vol. 4. 생명샘, 1983,
- 서인석, "에덴동산 안에서 인간의 모형." 카톨릭 교육연수, vol 8, 1998.
- Encyclopedia Britannica, "Eseph Henninger Sacrifice"
- Fromm-Reicgmann F. Principles of Intensive Psychotherap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xi. 1960.

W. Brueggemann Genesis, Interpretation, John Knox Press, Atlanta.,
G. J. Wenham. Genesis 1-5, Word Biblical Commentary, Word Books.Texas, 1987,
C. Westermann. Genesis 1-11, A Continental Commentary. ET by J.J. Scullion,
Fortress Press, Mineapolis, 1984